

장 ^으로올세계지도자

내버려진 공터 가장자리, 길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살짝 움직였다. 시들어 빠진 소리쟁이풀의 큼직한 이파리들 사이로 푸른색의 두 눈동자가 어둠 속의 썰렁한 거리를 깜빡임도 없이 지켜보았다.

이윽고 울퉁불퉁한 보도 위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레 나타난 것은 말라빠진 노란 수고양이 한 마리였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킁킁 냄새를 맡으며 주위에 적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다. 그에겐 친구가 없었다. 이 거리의 고양이들은 밀림 속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었다. 다른 고양이들 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그에게는 전부 적일 뿐이었다.

적들이 없음을 확인한 그는 어슬렁어슬렁 도로 가까이로 걸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아주 세심하게 얼굴을 단장했다. 먼저 두 귀를 문지르고, 그다음엔 축축해진 앞발로 목덜미를 문질렀다. 끝으로 왼쪽 다리를 하늘을 향해 벌려 털을 손질했다. 그리고 잠시 숨을 돌리면서 이 황량한 거리 주변을 돌아보았다.

구시대의 낡은 벽돌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창문은 검댕으로 얼룩져 있고, 커튼은 녀마인데다 색어가는 창틀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이따금 맛이 간 라디오가 큰소리를 냈다가 이내 옆집 사람의 짜증 섞인 괴성에 황급히 잦아들곤 했다. 용케 동네 아이들에 의해 깨지지 않은 가로등이 노란 불빛을 밝혔고, 이미 전등이 깨진 가로등은 제 뒤로 검은 그림자만을 길게 뻗치고 있었다.

노란 수고양이는 어질러진 쓰레기 더미 옆에서 꼼짝 않고 몸단장을

재개했다. 저 멀리 '좀더 살 만한' 동네로부터 나지막이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네온사인의 붉은 빛들이 하늘을 밝혀왔다. 그러나여기 이 거리는 그저 황량하기만 할 뿐 희망 따윈 없어 보였다.

갑자기 노란 수고양이가 예민하게 경계태세를 갖췄다. 두 귀를 쫓긋 세우고 두 눈은 어둠 속을 노려보면서, 근육은 당장에라도 도망칠 준비를 했다. 뭔가가 그의 신경에 거슬렸던 것이다. 그는 '쉬익' 하는 경고의 소리를 내면서 두 집 사이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거리는 모든 것이 평상 시와 같아 보였다. 탈이 난 아기의 성마른 울음소리, 남녀가 날카로운 목 소리로 섬뜩하게 싸우는 소리, 가까운 거리 어디선가 급제동한 자동차가 내는 끼익 소리 등등...

하지만 들릴 듯 말 듯한 색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느리게 질질 끄는 발걸음 소리였다. 흔한 주정뱅이의 발소리가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의 머뭇거리는 듯한 발소리였다. 비참하고 불안정한 삶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모래 위로 샌들을 질질 끄는 듯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드문드문 가로등이 켜져 있어도 이 거리는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암흑천지였다. 어렴풋한 그림자 하나가 가로등 아래를 힘없이 지나치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 형체가 다가올수록 천식환자의 숨 가쁜 소리 같은 것이 더욱 신경을 긁어댔다. 그 형체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요란스럽게 가래침을 뱉고는 고통스럽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그 늘어지는 박자를 이어갔다.

이윽고 그 희끄무레한 그림자는 가물거리는 가로등 밑에서 걸음을 멈추며 모습을 드러냈다. 더러운 흰 승복을 입고 다 해진 샌들을 신은 노인 이었다. 그는 제 앞의 땅바닥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허리를 굽혀



버려진 콩초를 집어들었다. 몸을 구부리자 그가 들고 있던 물건이 또렷이 보였다. 그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피켓에는 조잡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도다. 회개하라.”

몸을 일으킨 그는 몇 발자국 더 나아가다 어느 아파트 지하를 향해 돌계단을 고통스럽게 내려갔다.

“당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버트, 난 정말 모르겠다구요. 당신은 우릴 놀림거리로 만들고 있어요. 제발 그만뒀어요. 제발요;

“모디,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할 일이 있어. 나는 이 세상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라고. 나는 당분간 이 일을 계속할 거야;

“당신에게 당분간이란 게 어디 있어요? 버트, 당신은 올해 여든하나 예요.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기 전에 그것을 그만둬야 한다고요.”

지붕이 없혀진 낡은 묘지 문이 쇠잔한 오후의 태양 아래 반짝 빛났다. 새로 한 니스 칠이 해묵은 목재에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좁은 길을 따라 가니 빛바랜 회색 건물인 성 마리아 교회가 원숙하고 자비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커다란철제장식이 달린 문들이 저녁예배를위해 활짝 열려 있었고, 높이 매달린 종들이 언제나처럼 울리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서둘러요, 서둘러요.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거예요;

그 교회 묘지는 무려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다. 날개를 활짝 편 천사들의 조각상에다 고풍스러운 철자가 새겨진 옛날 옛적의 커다란 석조 묘비들, 여기저기 깨어진 대리석 기둥들이 마치 한창때 유명을 달리 해버린 사람들을 암시하는 듯했다. 한 줄기 햇살이 돌연 구름 사이를 비 집고 나와서 그 오래된 교회를내리비쳤다. 얼룩진 유리창들이 째하고 반짝였고, 성곽처럼 생긴 탑의 그림자가오래전에 묻힌 사람들의 무덤 위로 길게 늘어졌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교회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은 나들이용 정장을 차려입고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었다. 어린애들은 깨끗이 씻은 얼굴과 화사한 옷이 어색한지 부모의 뒤만을 졸졸 따랐다. 나이 많은 교회 관리인 이 잠깐 모습을 드러내고는 걱정스럽게 길을 내려다본 후에 다시 교회의 어둡한 냉기 속으로 물러갔다.

돌담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니 곧 교구목사와 오늘의 초빙목사인 그의 친구가 나타났다. 그들은 오래된 묘석들을 지나쳐서 제의실밖 솔로 향하는 그들만의 통로를 걸어갔다. 교구목사의 부인과 아이들은 신

도들과 함께하기 위해 교회의 정문으로 나가 있었다. 교회의 종탑은 계속 땡땡 울리면서 게으름뱅이들을 재촉하고 무신론자들을 나무랐다.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이 점차 적어지다가 완전히 끊기자, 관리인은 한 번 더 밖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다.

교파를 막론하고, 오래된 교회에는 어딘가 신성한 분위기가 있다. 높이 솟은 석조 벽의 고풍스러운 육중한 서까래와 이어져 있고, 스테인드글라스 유리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창백한 얼굴 위에 변화무쌍한 줄무늬를 만들었다. 오르간이 놓인 2층에서는 위로하는 듯한 선율의 성가가 들려왔는데, 그 성가는 이젠 역사의 안갯속에 묻혀버린 고대로부터 전해온 것이었다. 종들의 마지막 울림이 잦아드는 사이, 문이 살짝 열리고 종을 쳤던 사람들까지 예배당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갑자기 오르간이 음악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기대감에 부풀고 뒤쪽에서는 다소 웅성거림이 있었다. 발걸음 소리, 제의레가 바스락대는 소리와 함께 소년합창단이 순서대로 성가대석에 자리를 잡았다. 신도들은 더 잘 보기 위해 저마다 들썩거리면서 평소처럼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낭독자가 단조롭게, 지난 수년 동안 해왔듯이 무 생각 없이 성경을 봉독했다. 이에 싫증이 난 합창단원 하나가 작게 뭉친 종이를 고무줄로 튕겨냈다. '악!' 첫 번째 피해자가 열결에 소리를 냈다. 오르간 연주자 겸 합창지휘자가 몸을 돌려 매섭게 노려보자 장난을 친 소년은 겁을 집어먹고 고무줄을 떨어뜨렸다.

설교 준비를 마친 초빙목사가 천천히 설교단에 올랐다. 연단에 오른 그는 나무로 된 단상에 기대어 회중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키가 컸고, 머리카락은 물결치는 갈색이었으며, 눈동자는 특히 노처녀들에게 인기 있는 푸른 색조였다. 맨 앞에 앉은 교구목사의 부인은 그를 황홀하

게 쳐다보며 자신의 남편도 그런 품모였으면 하고 내심 바랐다.

그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재림을 강설했다. 그는 단조롭게 끝없이 말을 이어갔다. 저 뒤편에 앉은 늙은 농부 하나가 견디지 못하고 선잠에 빠져들었다. 이내 코고는 소리가 예배당을 울리자 황급히 집사 한 명이 농부를 깨워서 밖으로 데려나갔다.

드디어 초빙 목사가 설교를 마쳤다. 그는 축도를 한 후 돌아서 연단을 내려갔다. 오르간 연주자가 폐회 성가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질질 끄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부산하게 들려왔다. 집사들이 통로를 따라 움직이며 헌금함을 건넸고,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무라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곧 그들은 네 명씩 조를 이뤄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와서는 교구목사에게 헌금함을 주었다.

이후 제의실로 들어온 교구목사는 초빙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수입은 19 파운드 3 실링 11 펜스에다 반 페니짜리 동전과 한 냥짜리 중국 돈. 그리고 1 프랑의 프랑스 돈과 바지 단추 두 개라네. 나는 바지 단추 두 개를 잃은 그 불쌍한 친구가 걱정이야. 그가 창피당하는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교구목사와 초빙목사는 함께 빛바랜 묘비 사잇길을 따라 걸었다. 길어진 그림자는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부속묘지와 목사 사택 사이의 담벼락에 설치된 작은 회전문을 열었다.

교구목사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내가 자네에게 피튜니아 꽃밭을 보여줬었나? 내가 손수 심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다네. 우리가 일 얘기만 할 필요 없지 않은가? 물론내가자네 설교를 좋아하긴 하지만 말이야.”

초빙목사가 대답했다. “신이 죽었다고들 떠드니 오늘은 그 주제가 적절할듯싶었네.”

교구목사가 말했다. “작은 농장을 좀 둘러보세요. 사과나무를 가지치기 해야 하거든. 자네도 나와 같은 기관에서 설교 자료를 입수하나? 나는 아주 최근에 그러기 시작했adne. 많은 수고를 덜어주거든.”

초빙목사가 말했다. “꽤 농장이 넓구만. 아니, 나는 설교 자료를 받지 않아. 그들이 나를 두 번이나 실망시켰기 때문에 세 번째 모험을 할 생각은 없어. 근데 이 농장을 자네가 직접 가꾼다고?”

그들이 저녁식사 전에 순한 세리주(백포도주의 일종)를 마시고 있을 때 교구목사의 부인이 말했다. “저기, 목사님은 설교하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교구목사가 참견했다. “마거릿! 그건 너무 난감한 질문이야. 당신은 우리가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설교할 수 없단 사실을 잘 알잖아. 우리는 신앙조례를 구독하고 있고, 교회의 규칙과 교황청 주교의 지령에 따라설교해야만해.”

교구목사의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실을 알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실한 기대와 믿음과 희망을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때 초빙목사가 말했다. “저기 있잖아. 근데 자네는 딸기밭에 천연 거름을 쓰나, 아니면 화학비료를 쓰나?”

약삭빠른 눈매의 백발노인이 흘쭍한 얼굴의 사내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사내는 공원의 찌그러진 벤치에 언짢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노인은 쉼 목소리로 불안한 듯 물었다. “여보게, 몇 시에 구호품을 준 다든가? 음식을 빨리 얻지 못하면 난 굶어 죽고 말 거야. 헌데 그 전에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면서?”

사내는 고개를 돌려 노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며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그리고 부러진 이쑤시개로 손톱의 때를 빼며 늘쩍지근하게 대답했다. “되게 촌스런 옥스퍼드 말투시네. 노인장 , 나도 소싯적에 펠덤 felthem 지역의 큰집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왜 그 소년원 말이에요. 그렇게 배가 고프시다? 나도 그래요. 그것도 주 자주요! 그렇지만 음식을 얻는 게 쉽진 않다구요. 노인장도 알겠지만 녀석들은 그 대가로 일을 시키거든 요. 찬송가, 기도, 아니면 돌덩이를 옮기거나 나무를 쪼갤 때도 있고요.”

그들이 공원의 맞은편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해질녘의 그림자가길어져 나무들 사이를 빙빙 돌며 산책하는 젊은 연인들에게 좋은 은신처를 만들어주었다. 상점들은 몇 분 전에 문을 닫았고 이제는 어딘가 기괴하고 어설픈 낚미 마네킹만이 , 영원히 굳어버린 부동의 자세로 옷매무새를 뽐내고 있었다.

불빛이 거리 아래 구세군 본부를 비쳤다. 어딘가에서 요령 없이 힘으로만 두들겨 대는 묵직한 드럼 소리가 “쿵쿵쿵” 들려왔다. 이내 행진하는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고 드럼 소리도 더욱 커졌다. 그리고 한 무리의 남자와 여자들이 모퉁이를 돌아 나왔다. 그들은 전부 짙은 푸른색의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남자들은 챙 달린 모자를 썼고 여자들도 챙이 쭈 나온 구식 보닛 2 지를 쓰고 있었다.

지금까지 몸만 풀던 악단은 이제 거리의 중심에서 제대로 된 연주를 시작했다. 나팔수가 작은 가슴을 내밀며 코넷(금관악기)을 힘차게 불었다. 드러머는 열정적으로 커다란 북을 두드렸고, 한 여성단원은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마치 자신의 미래라도 달린 듯이 심벌즈를 쳐댔다.

그들은 공원 입구에서 멈춰 섰고 , 기수는 숨을 돌리며 지휘봉의

가의 앞 마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를 들은 백발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흥얼댔다. "라-데 - 다-다, 라-데 - 다-다 , 브롬 브롬 보롬~"

그 소규모 구세군 악단은 둥글게 늘어섰다. 단장은 안경을 고쳐 쓰며 군중이 모이길 기다렸다. 인도의 가장자리에 줄지어 선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구호 문구를 내들었다. 한편 몇몇 여성단원들은 술집으로 걸어 들어가 활기차게 모금함을 흔들었다.

공원 벤치에서는 아까 그 두 남자 , 아니 이제는 한 명이 더 합류했으니 세 명의 남자가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신참이 말했다. "음식을 두 그릇 받으려면 죄를 고백해야 해요."

노인이 말했다. "죄? 난죄가없는데 !"

사내가 말했다. "없으시다고? 그렇다면 뭐라도 빨리 만드는 게 좋아요. 제정신이 돌아온 주정뱅이라면 괜찮을 텐데. 아니지, 그건 내 몫이니 까. 노인장은 아내를 패는 놈광이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노인이 말했다. "난 마누라가 없어. 그런 허튼소리 하지도 마 !"

신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끼었다. "신이여 , 이 노인장을 돌보소서. 아니 , 마누라 하나를 못 만들어내요? 노인장의 손버릇을 못 견뎀 아내가 어떻게 도망을 쳤는지만지어내서 떠벌리면 된다고요!"

사내가 구세군 단원들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며 물었다. "신을 믿으세요?"

노인이 되물었다. "신? 아니! 내겐 신들은커녕 여자들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어!" 노인은 고개를 돌려 벤치 뒤편으로 경멸하듯 침을 뱉었다.

신참이 사내에게 물었다. "어째서 그런 걸 묻는 거요? 당신은 그냥 뻔한 사기꾼으로 보이는데 ;

사내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사람이라면 뭐라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지. 제정신으로 살려면 말ियो.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고들 하니 난월 믿어야 할지 모르겠소 !”

갑작스레 음악이 터져 나오자 그들은 공원 입구를 다시 바라보았다. 찬송가는 막 끝이 났고, 이제 악단은 신나는 연주로 사람들의 주의를 단장에게로 이끌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본 단장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몇 걸음 떨어져서 소리 높여 말했다.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재림을 예비합시다. 다 같이 눈앞에 다가온 황금기를 대비합시다. 그러나 그 시기는 노고와 고난에 의해 예고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실을 받아들입시다.”

노인이 통명스런 말투로 말했다.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는군. 네가 배고픔을 알아? 네놈은 문간에서 잘 필요도, 벤치 밑에서 잘 필요도 없겠지. 경찰들에게 ‘저리 꺼져’ 하는 소리를 듣는 일도 없고 말이야.”

사내가 말했다. “바보처럼 굴지 말아요. 명심들 하라구요. 우리는 개처럼 굴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음식을 얻으려면 재주를 부려야 한다구요;

사내는 두 남자에게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공원의 입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리고 이내 구세군 속에 파묻혀서 자신의 죄를 소리높여, 무관심한세상 앞에 고백했다.

이 상황을 아파트 관리실 창문 밖으로 내다보던 한 뚱뚱한 노부인은 미심쩍은 듯 머리를내저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리고 얼룩무늬의 고양이에게 혼잣말을 했다. “저런 게 좋은 해결책은 아닐 텐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짜 진실을 말해준다면 좋으련만 !”

양철지붕으로 덮인 허름한 오두막에서도, 대대적으로 열린 부흥회에

서도, 그리고 소위 '대성당'이란 곳에서도, 성직자들은 한목소리로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을 '재림(細 coming)이 아니라 '많은 방문 중 하나'(아祀 of many comings)라고 말해 아
옳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타는 듯뜨거운모래뿐인 사막너머 어딘가, '동양에 인접한 서양' 또는 '서양의 굴레를 벗어나진 못한 동양'이라고 할 만한 곳에 아기 하나가 등을 대고 누워 까르륵 대며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다. 이 아기는 머지않아 인류를 이끌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 함께 타락해버린 또 다른 도시에서도, 두 살 난 아기가 자못 진지하게 고서*®의 누런 책장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동그랗게 눈을 뜨고 이상한 글씨들을 바라보는 그 아기는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으리라. 자신 또한 사도가 되리란 것을.

멀리 동양에서는 마치 구약의 세 현인처럼 몇몇 점성가들이 별자리를 점치다가 그들이 발견한 것에 경악한다. "여기 좀 보게." 연장자가 흑투 성이인 손가락으로 도표를 가리키며 말한다. "거해궁 아래 푸샤 Pushya(인 도점성학의 음력주기 단위) 때에 해와 달과 목성이 한데 뭉친다네. 어쩌면 다음 번 그믐날, 아니면 그다음 번의 그믐날에 말일세." 그들은 숙연하게 서로 눈빛을 나누면서 몸을 굽혀 계산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 그리고 최종 확인이 끝나자 믿을 만한 전령들을 부른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재림은 여러 차례 반복되어왔다. 실제로 오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진화 단계에서만 이번이 열 번째 방문이다.

무분별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저 생계에 얽매어 다투 고, 언쟁하고, 속이고, 이웃을 짓밟고 올라서려 한다. 머지않아

어나서 요람 속에서 울거나 버둥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채로 말이다.

동양의 현자들은 서양인들은 아직 어리석으니 이런 대사건이 언제 어 디서 일어날지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훈령을 내렸다. 만약 이런 정보가* 알려지면 특종을 따내려 광분한 기자들이 쌍발제트기를 타고 세상을 휘 저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어중이떠중이 기자들이 신성한 장소들을 더럽히면서 진실을 비웃고 부정하고 오보를 일삼을 것은 보나 마나 뻔한 일 이다.

오직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만이 이러한 성소가 어디인지를 안다. 머 지않아 좋은 시절이 오면 세상은 이런 일들에 관해 좀더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젊은 사도'들은 적절히 보호될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은 찬란 한 지도자의 명을 받아서 , 인류를 말세(칼리 유키)로부터 황금시대로 이끌 어갈 것이다.

인류가 이 세상을 뒤덮은 것은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것은 진실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 다. 수백만 년 동안 이 지구에는 다양한 문명들이 늘 존재해왔다. 이 지구 는 별의별 부류의 존재들이 다 모여드는 학교와도 같다. 따라서 평범한 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은 유별날 정도로 모범적이지만 어떤 학생 은 더없이 불량할 수 있다.

추측건대, 포도주의 경우와 비슷한 게 아닌가 싶다. 포도주는 특정연 도에 수확하여 빛은 제품이 유달리 빼어난 평가를 받곤 한다. 이처럼 지 구의 수확물 , 즉 인간에 관해서도 일정하게 반복되는 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힌두교인들은 이 세상의 학습기간이 네 등급, 네 단계, 또는 네 주기로 나뉘며 한 주기의 길이는 864,000 년이라고 믿는다. 그중 첫 번째 주기인 864,000 년은 ○주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성실하고 믿음직하며 내면의 선한 본성을 유지했다. 그들은 서로 성의껏 도움을 주고받았으므로 전쟁 따위는 소문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티 없는 행복이 좋은 일만도 아닌 것이, 일찍 맺은 열매는 그만큼 빨리 시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인도, 중국, 이집트 등의 위대한 문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진정 위대한 문명을 세웠지만 적절한 경쟁과 견제의 결여, 그리고 힘의 낭비로 인해 쇠퇴하고 말았다. 우리는 같은 모습을 상대 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로마의 역사에서도 읽을 수 있다.

두 번째 주기는 사람들이, 아니 세계의 지도자들이 '에덴동산에는 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였다. 그래서 두 번째 주기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 반대 상황을 극복해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난제와 논제가 다소 도입되었다. 추측건대 두 번째 주기가 끝날 무렵 이 단계에 참여한 사람들의 '학교 성적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주기, 즉 갓 시작된 또 다른 864,000 년이란 기간 동안 시험은 좀더 가혹해졌다.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 하러 나섰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전쟁은 오늘날의 전쟁처럼 잔혹하고 야만스럽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을 했을망정 배신을 일삼지는 않았다. 그들의 전쟁은 놀이, 시합, 경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마치 두 명의 소년이 서로 치고받는 주먹다짐과 같았다. 상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어느 정도 굴복시키겠다는 취지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주기의 상황은 갈수록 통제불능으로 악화되었다. 제때 불길을 잡지 못한 산불과도 같았다. 어떤 열간이가 떨어뜨린 담배의 불씨가 덩불로 번져 나가더라도 주의 깊은 사람이 빨리 불길을 잡는다면 큰불은 미리 방지될 수 있다. 그러나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면 곧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 불은 많은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고 난 후에야 사그라질 것이다.

인간의 삶도 그와 같다. 만일 악이 무런 제지 없이 번성하도록 방치된다면 그것은 점점 더 커지며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것은 잡초처럼 틈답게 피어난 꽃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이 본래 지녔던 선의 가녀린 본능을 말살해버리고 말 것이다.

세 번째 주기의 끝 무렵에 상황은 거의 극에 다다랐다. 비유하자면 지구라는 교실에서 난폭한 학생(국가)들이 교사들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대들고 나선 것이다. 그렇게 해서 — 힌두교에 의하면 — 칼리의 시대로 알려진 네 번째 주기가 탄생했다. 칼리의 시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기이다. 이제 사람들은 전쟁의 화염 속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들의 심성이 정화되고 불순물이 태워져 좀더 나은 다음번의 삶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말이다.

삶은 끝없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 속에서 경험을 통해 성숙해진다. 그러나 진화의 어느 단계에서든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그들은 기말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유급자처럼 똑같은 교실로 되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다.

조금은 화제가 된 전작《영원한 당신》에서 나는 유대인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들은 이전의 존재 단계에서 전혀 진보를 이루지

못한 민족이다; 이 문구가 세계 각처의 유대인 독자들과 아주 우호적인 서신을 왕래하도록 해주었다. 특별히 텔아비브의 박학한 숙녀분들은 내게 유대인에 관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왔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호주, 독일 등에 사는 유대인들도 같은 요청을 해왔다. 그러니 그들의 질문에 대해 좀더 자세히 답하고자 한다.

여기서 나는 내게 꽤 많은 유대인 친구가 있으며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두고 싶다. 그들은 지상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온 민족으로, 그만큼 남다른 지식을 가진 탓에 그렇지 못한 민족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이런 의문부터 풀어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유대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하면 유대인에 관한 우리의 관념은 상당히 그릇된 것이며, 실은 '유대인^(deu)'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일종의 오기₂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등장한지 그리 오래된 단어가 아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틀림없이 "그야 물론 아브라함이지" 하는 대답을 듣게 되리라. 그렇지만 역사가 단정적으로 입증하듯 꼭 그렇지는 않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당신이 공공도서관에 가서 고대 역사를 공부한다면, 혹은 좀더 손쉽게 아카샤 레코드에 접근한다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칼데아(페르시아만 연안)의 우르니¹라는 지역의 원주민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요즈음에는 많은 지역들이 두 가지 지명으로 불리듯이, 우르니¹의 또 다른 이름은 '바빌로니아의 우르 카스딴^{UrKasdim}'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바빌로니아인이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 Abraham 의 실제 이름은

이런 유의 이름이 쓰이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예수가 탄생하기 2300 년 전의 인물이다. 당시는 '유대인'이란 말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때였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죽어 '당연히 천국으로' 가고서 약 1,800 년이 지난 후에 , 팔레스타인 남부의 유다^{유다} 왕국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 아 후 디 란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성경의<열왕기>를 보시라. 여기서 당신은 기원전 600 년에 쓰이던 말들을 읽게 될 것이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이번에는<에스터>11 장 5 절을 보자. 여기서 당신은 '유대인(jew)'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볼 것이다. 기억하라.<에스터>는 아브라함이 죽고 약 2400 년이 지나서야 쓰였다. 즉 서기 1 세기에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jew)'이라는 단어는 '야 후디 hudi'가 변형된 것이다.

각각의 주기마다 열두명의 '구세주', '메시아', 또는 '세계지도자'가 현존해왔다. 그래서 '재림'을 운운하는 것은 좀 시대에 뒤쳐지는 셈이 된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 모세 , 부처 , 예수 , 그 외의 여러 사람들을 손에 꼽을 수 있다.

요점은 하나의 주기 속에서 , 서로 다른 황도대 궁마다 서로 다른 세계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도대에는 총 12 궁이 있다. 그리고 하 나의 궁마다 하나의 지도자•가 나온다. 다른 궁엔 다른 지도자 , 또 다른 궁 엔 또다른 지도자... 이렇게 총열두명의 지도자가현존해왔다.

현재 이 칼리의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열한 번째 궁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후로 열두 번째 궁까지 거친 후에야 우리는 마침내 황금시대로 접어들 수 있게 되리라.

명칭이 '사도'이든 , '조력자'이든 , '성직자'이든 , '장관'이든, 아무래도 좋다
그렇지만 특별히 세상에 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

열한 번째 궁인 현시대에는 1941 년에 첫 번째 사도가
태어났으며 , 이 후로 다른 사도들도 속속 태어났다. 현시대의 '구세주'는
1985 년 초에 태어날 것이며 그때까지 사도들이 먼저 그의 길을 닦아들
것이다. 이번의 '구세주' 또는 '세계지도자'는 아주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거치며 자랄 것이고, 스무 살이 되는 2005 년도에 신과 구세주를
외면하는 무신론자들을 크게 당혹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영혼이주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은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기만 한다면 (2천 년 전에) 실은 '성령 -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점유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으
리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계지도자의 몸도 참으로 고귀한 인격에 의해
점유될 것이다. 그 후로 수년 동안은 괄목할 만한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
고, 세계는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수순을 밟게 될 것
이다.

지금부터 약 2000 년 동안 세계는 이 새로운지도자가 창시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진보를 이룰 것이다. 그렇지만 그 2000 년이 지나면 또 다
른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번 주기의 마지막 열두 번째 황도대 궁을
통과시킬 것이다.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 서서히 사람들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인도될 것이다. '바벨탑'은 사실 잘못 전
해진 이야기로, 본래 인간은 투시와 텔레파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힘을 남용한 탓에 능력을 잃게 되었다. 성경에 설화의 형태로 실려 있는

바벨탑 이야기는 바로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담은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들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물들을 배신하면서 텔레파시 능력을 빼앗겼고, 그 결과 철저한 혼란 속에서 저마 다의 방언으로 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것들이 이어져서 현 재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가 탄생한 것이다.

지금 이 세계는 기차에 비유할 수 있다. 이 기차는 여러 마당의 풍경을 지나왔다. 처음에는 1 단계에 해당하는, 쾌적한 햇빛이 비치는 땅을 횡 단해왔다. 호감을 주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아•다운 경치를 만끽하는 경 험이었다.

그러다 우리는 2 단계를 맞았는데,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무리로 승객들이 싹 바뀌고 말았다. 여행 또한 즐겁지 않은 것이, 궤도가 고르지 않 아 기차가 덜컹덜컹거리기 시작했고 온갖 고약한 연기와 화학물질이 자욱 한 공장지대를 지나야 했기 때문이다. 이윽고 승객들은 서로 다투고 주먹 질을 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사정은 더 나빠졌다. 3 단계에서 승객들은 다시 물갈이가 되었 는데, 이번에는 산적들이 승차했다. 그들은 다른 승객들을 칼로 찌르고 위협하고 강탈했다. 기차 또한 산사태로 길이 좁아진 협곡을 불안하게 덜컹 대며 움직였다. 밖은 끊임없이 시끄럽고, 안에서도 다툼이 끊이질 않았다.

이제 또다시 기차가 서고 새로운 승객들을 실었는데, 이번의 상황은 더욱 고약하다. 새 승객들은 거의 기차를 부술 기세로 행패를 부린다. 그 들은 예의 바른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의 폭력과사기와 온갖 비행을 저지른다. 기차 또한 더욱더 험난한 지형을 향해 달려간다. 철도의 상태가 몹시 나쁘고, 길도 구불구불하다.

마침내 길고 어둑어둑한 터널이 나타난다. 기차가 빨려들고 이제 그

안에는 어떤 빛도 없는 것만 같다. 승객들은 암흑 속에 갇힌다. 마치 무정부 상태의 국민처럼. 짙은 어둠 속의 분위기는 황량하기 그지없다. 기차는 터널의 중심부, 완전한 어둠 속으로 진입하면서 전후, 상하, 좌우 가릴 것 없이 요동을 친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어두워질 수는 없으므로, 빛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기차는 여전히 흔들리겠지만, 점차 앞이 환해지면서 마침 내는 반대쪽 산허리로 튀어나올 것이다. 새 시대를 맞은 승객들은 너른 호수가 반짝이는 풍경과 소 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탁 트인 평야를 보게 될 것이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다음 역에서 올라탈 승객들은 훨씬 더 평화로운 존재들일 것이다. 그 승객들은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고, 폭력과 학대와 고문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많은 일들이 이뤄져야만 한다. 황금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앞서 큰고난과 시련이 이 세상에 찾아올 것이다.

고대의 점성술에 의하면, 슬픈 사건들이 꽤 많이 발생할 것이다. 1981 년경에는 전 세계의 온도가 예기치 않게 올라갈 텐데, 강수량이 줄고 곡 물이 말라붙으며 온갖 식물과 과실들이 수확기 전에 시들어버릴 것이다. 이 강렬한 폭염은 어쩌면 중국이 원자탄을 떨어뜨리면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현재 서둘러 초대형 폭탄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은 다른 나라들은 안중에도 없는 미친개와도 같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립되어 외 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슬프게도, 사람은 늘 낯선 상대를 두려워하는 법이다. 그래서 중국은 외국인을 혐오하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을 위협하려 한다. 미국이 원자탄을 가진 것만 해도 충분히 위험했는데 이제는 러시아, 프랑스, 중국, 그 외의 여러 나라들이 같은 무기를 갖게

셈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하기 전에는 많은 예비적인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에 관한 암시 가 주어져야 한다.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쾡쾡 감 추어져 있어야한다.

지금 갖태어난 , 또는 아직 어린아이인 '미래의 사도'들도 있지만, 특별한 지식을 지녔으되 그보다 훨씬 나이가 든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이 보급되도록 책을 집필함으로써 '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새로운 도래의 시기에 지상에 살아 있지는 않으리라. 그렇지만 뒤에 올 이들처럼, 이 선구자들 또한 앞선 사람들에게 늘 닥치게 마련인 증오와 의심의 눈길을 감내함으로써 그들의 과업을 완수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타인과 몸을 바꿨다는 얘길 한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박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몸을 바꾸는' 이런 사건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은 꼭 필요한데 , 그래야 새로운 지도자가 도래했을 때 사람들이 영혼이주에 관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무지한 언론의 경멸과 조소와 박해를 받을지라도 , 때가 되면 그 수난과 불행이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그들도 알게 되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큰 능력을 가졌다면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만일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돈이든 뭐든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당신은 당신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 지상에 온 존재들을 손가락에 박힌 가시처럼 여긴다. 당신은 그 가시를 뽑아낼 때까지 안절부절못하고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할 것이다. 당신은 그 가시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몸을 바꾸고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수상히 여긴다. 그들을 마치 가시처럼 불편한 존재로만 대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부족을 탓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애쓴다. '아, 그사람뭔가수상해. 가까이 있으면 몹시 괴기한느낌이 들거든:

그렇게 이 세계는 혼란과 문제투성이인 채로 굴러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이야말로 여명의 전조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바람직한 것이다. 이 세계와 이 세계의 사람들은 암흑의 시간을 건너 빛 속으로 계속 전진해갈 것이다. 그때 인류는 더욱 마음을 열게 되고, 동 물계의 소인, A 들도 지금처럼 두려움의 대상으로 오해받거나 괴롭힘당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2 천 년대의 시작과 함께 세계는 기쁨을 늘 려가고, 황금시대는 천천히 도래하리라.

제 2 장 거^

그는 혼자였다. 황무지의 한복판, 오랜 덩굴로 덮인 집안에 그는 혼자였다. 저만치 길게 가꾼 정원 끝에서는 소란스런 시냇물이 바위 위를 뒹굴다가 돌투성이 바닥으로 졸졸 흘러내렸다.

어느 따스한 날, 그는 그 재잘대는 시냇가에 버릇처럼 서 있었다. 아 니, 소란스런 급류를 막으며 솟아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 앞쪽에는 흔들거리는 난간이 달린 작은 목조다리가 있었고, 그는 우편물을 챙기고 일용품을 구하기 위해 그 다리를 건너 작은 마을로 향하곤 했다.

이곳은 행복한 장소였다. 그와 그의 아내는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애썼다. 그들은 육체와 영혼을 '합일'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는 그림을 그렸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길 기다렸다. 그러나 보통 그렇듯이, 언론은 그의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비평가들은 쥐꼬 리 같은 칭찬과 더불어 그의 작품을 혹평했다. 인정을 받는 것은 그에게 아직 요원한 일이었다.

그는 지금 오래된 낡은 집에 혼자 있다. 혼란스러운 마음과 기분이 바깥의 질풍과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질풍이 헤더꽃 무성한 황아를 가로지르며 광포하게 울부짖었다. 엄청난 바람이 노란 가시금작꽃을 마구 몰아쳐 무릎을 꿇게 했다. 먼바다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단단한 화강암으로 된 해변에 우레처럼 부딪쳐 흰 거품을 끓어오르게 하고, 거친 비명과 함께 조약돌들을 쓸어 옮겼다. 외로운 갈매기도 폭풍의 위세에 밀려 무력하

게 물 위로 날아올랐다.

그의 낡은집은 끊임없는 폭풍의 위력 앞에 덜덜 흔들렸다. 낮게 몰아치는 바람이 마치 집을 찾는 유령처럼 창문을후려쳤다. 갑작스레 금속성의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났고, 한장의 골함석이 정원을 가로질러 굴러가더니 목조다리에 부딪혀 낡은 기둥을 부셨다. 부러진 조각들이 잔뜩 조여진 바이올린 현처럼 한동안 떨리다가 곧 하나씩 시냇물 속으로 뚝뚝 떨어지며 굴러떨어졌다.

그 남자는 바깥의 소동도 모르는 채 집안을 이리저리 서성댔다. 그는 마을에서 돌아온 후 아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을 몇 번이나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 떠난다는 아내의 잔인한 메모를 읽고 또 읽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그는 굳은 얼굴로 다 찌그러진 낡은 책상으로 성큼 걸어가서 가운데 서랍을 비틀어 열었다. 그는 서랍 뒤편을 뒤져서 집세와 생활비를 넣어두던 담배 상자를 꺼냈다. 그는 상자를 열어보기도 전에 안이 텅 비어 있음을 눈치챘다. 돈, 그의 유일한 돈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는 의자를 더듬어 찾아 털썩 주저앉고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전에도!'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전에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 그는 고개를 들고 초점 없이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역수 같은 비가 줄기차게 창문을 두들기며 영성한 문틈을 뚫고 들어와 양탄자까지 적시고 있었다. '전에도 꼭 이랬었지!' 그가자문했다. '내가 미쳐버린 걸까? 어떻게 지금 겪는 일과 똑같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지?'

처마 위에서 바람이 조소하듯 윙윙거리자 낡은 집은 또 한 번 심하게 흔들렸다. 황무지의 조랑말들은 눈이 따끔거리지 않도록 바람을 피하려

오래된 돌담에 기대어 머리를 땅으로 수그렸다.

저만치 현관에서 전화기가 울리면서 그를 멍한 상태로부터 깨워냈다. 그는 천천히 전화기로 향했는데, 그 벨소리는 그가 수화기로 손을 뺐기 직전에 그쳐버렸다. 그는 무심한 벽을 향해 중얼거렸다. '분명해. 이걸 처음 있는 일이 아니야. 난 똑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어!'

노교수는 강의실로 가는 길의 안뜰을 지친 듯 터벅터벅 걸었다. 그는 참으로 힘든 세월을 견뎌왔다. 그는 아주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손으로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다. 그것은 그의 보잘것없는 출신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의 평생을 필사적으로 싸워온 결과였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세월의 무게가 그의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에, 그리고 기력이 떨어진 발걸음에 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비틀거림을 내디디면서, 인사를 하는 제자들도 못 본 채 자신의 전공인 고대역사의 모호한 부분들에 대한 골똥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혼자만의 생각에 깊이 빠진 노교수는 이미 열려 있는 문의 손잡이를 찾아 더듬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곳에 손잡이가 없자 그는 돌아서며 이렇게 중얼댔다. "허, 그것참! 정말 이상해, 정말 이상하군. 여기에 문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건물을 잘못 들어온 게 틀림없어!"

그때 눈치 빠른 한 학생이 공손하게 노교수의 팔을 잡고 돌려세웠다. 노교수의 탁월한 강의로 큰 도움을 얻고 있는 학생이었다. "여기 맞습니다. 교수님. 제가 문을 미리 열어두었어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노교수는 돌아서면서 고맙다는 말을 우물거렸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노교수는 다른사람이 되었다. 그의 진짜 인생은 고대역사를 해설하는 이

강의실 안에 있었다. 그는 회춘이라도 한 듯 연단으로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자애로운 미소를 띄웠다. 학생들도 존경심이 깃든 미소로 화답했다.

학생들은 때로 노교수의 건망증을 놀리기도 했지만, 온 힘을 다해 제 자들을 가르치려 하는 그에게 깊은 호감을 갖고 있었다. 노교수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에, 어려움에 빠진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 서곤 했다. 다른 교수들은 간단히 낙제점을 주고 끝내버리지만 말이다.

교실이 수업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한 노교수는 강의를 시작했다.

“우리는 역사의 커다란 수수께끼인 수메르 문명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자 한다. 이곳에는 강대한 문명이 있었는데, 그 문명은 참으로 불가사의하게 일어났다가 불가사의하게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감질나는 단편들만을 읽을 뿐, 분명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다.

예컨대 우리는 기원전 3,500 년에 수메르인들이 아름다운 문헌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중 일부를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편만이 남아 있을 뿐, 아직 전체가 온전하게 발견된 것은 없다.

우리는 또한 수메르인들이 구세계나 신세계를 통틀어 악보 표기법부터가 전혀 다른 아주 독창적인 음악체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안다. 만들어진 지 3천 년 이상 된 점토 평판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새겨진 것은 바로 음악적인 상징들이었다. 아마도 찬송가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음악을 재현해낼 방법은 아직 없다.”

노교수는 말을 멈추고 눈을 크게 부릅떴다. 마치 인간의 시력 너머에 있는 뭔가를 투시하는 것처럼. 한동안 그는 그렇게 아주 먼 곳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억눌린 신음을 내며 마루로 엮어졌다. 학생들은 깜짝 놀랐

여든 학생들은 얼른 자리를 비켰고, 그들은 인사불성인 노교수를 조심스레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를 들것에 실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구급차로 옮겼다. 곧 소식을 들은 학장이 부산을 떨며 나타나 오후 수업을 해산시켰다.

한편 서늘한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노교수는 담당의사에게 툭툭거렸다. “이상해 ! 이상하단 말야 내가 이런 일을 전에도 겪었다는 분명한 느낌을 느껴. 내가 수메르인들의 기원을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일을 너무 열심히 한 탓인가? 그렇지만 난 정말로 답을 알았었어. 비록 지금은 다시 잊어버렸지만. 이상해 , 이상하단 말이야”

중년의 사내가 딱딱한 나무벤치 위에서 다리를 번갈아 꼬며 불편하게 뒤척거렸다. 그는 때때로 반쯤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곤 했다. 방 끝 에서는 간호사의 쌀쌀맞고 단조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갈랜드 , 너는 노티 박사님에게 가. 이 카드를 저 문으로 넣고 박사님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 로저 , 너는 치료실로 가. 검사할 게 좀 있으니까. 이 카드를 갖고 저 쪽 복도로 내려가.” 정육시장의 시세를 읊는 듯한, 아나운서 같은 따분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중년의 사내는 자신 앞에 줄을 선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진저리를 쳤다. 동반자 없는 환자들, 친척과 함께 온 새로운 환자들, 그리고 듬직한 안내원이 옆에서 감시하고 있는 환자들까지 . 시간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제정신이 아닌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바로 옆에서도 한 남자가 소리쳤다. “난 어쩔 수 없었어. 너라고 뭐 달랠 것 같아?” 그는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을 헤치며 방을 내달렸고 안내원도 팔꿈치로 밀어

젖혔다. 그러다가 한 사무원에게 다리가 걸려 넘어지며 창문 밖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런 소동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별다른 동요 없이 단조로운 목소리로 계속 지시를 내렸다.

밖의 우중충한 붉은벽돌 건물들은 뜨거운 열기로 아지랑이를 피우고 있었다. 건물의 창문들이 햇빛을 반사하면서 무수한 줄무늬를 그려냈다.

눈빛이 멍한 스무 명가량의 남자들이 발을 질질 끌면서, 허리를 굽혀 보도의 자갈들 틈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안내원들은 열기를 피해 그늘에서 빈둥거리면서 사역을 감시했다. 저 멀리 풀이 무성한 언덕과 큰길이 만나는 곳에서도 촌스런 복장을 한 여자들이 줄지어 풀밭에서 쓰레기와 돌들을 집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정원사가 풀을 베기 전의 준비작업이었다. 커다란 나무 아래에는 몹시 야윈 한 여자가 위압적인 자세로 서서 돌발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두 여자 안내원들을 경멸하듯 노려보고 있었다.

정문에선 두 안내원이 들어오는 차들을 통제하며 승객들을 인도했다. 임시 간호대상자인 듯한 한 입원자가 안내원의 등 뒤로 슬쩍 빠져나가려 다가 이내 제지당했다. "알프!" 안내원이 타일렀다. "도로 들어가. 속일 생각 마. 나는 바쁘다고."

바깥의 행인들은 높은 돌담 벽과 무겁게 빗장이 걸린 문 너머로 신기한 듯 병원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금지된 담벽 안의 모습을 엿봄으로써 흥분을 ^겼다.

마침내 접수처에서 이름이 불린 중년의 사내가 어정쩡하게 일어섰다. 그는 데스크의 간호사에게 걸어가 말했다. "이건 다 오합니다. 나는" ㄷ

간호사가 말을 가로챘다. "네, 네, 알아요. 당신은 더없이 온전하단

리고 가.” 그녀는 안내원에게 귓속말로 주의를 주었다. “그는 전부 다 오해이고 자신은 온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니 그가도망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갑시다, 친구.” 안내원이 팔을 잡고 중년의 사내를 작은 문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여러 개의 문이 열 지어 달려 있는 복도를 터덜터덜 걸었다. 뒤쪽 어딘가에서 한숨소리가, 다른 곳에선 비명이 들렸고, 또 다른 데선 거품이 끓는 듯한 괴상한 소리가 났다. 안내원은 급히 경보기를 울리고 면도칼로 자해하여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했다. 이를 본 중년의 사내는 사시나무 떨 듯 몸을 움츠렸다. “무서워요?” 안내원이 물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도 곧 알게 되겠지만!”

드디어 그들은 어느 문 앞에서 멈췄다. 안내원이 문을 두드리자 저만치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요.” 안내원은 중년의 사내를 앞세워 들어가서 카드와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는 물러가며 말했다. “또 한 분 모시고 왔습죠, 박사님.”

박사는 느릿하게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 들고 그것을 카드와 비교했다. 그러고는 중년의 사내를 본체만체 회전의자에 기대앉아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읽고 나서야 박사는 사내를 올려다보더니 짧게 내뱉었다. “앉으슈 ! ”

“헌데, 사내가 불안한 듯 의자에 앉자 박사가 말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어떻게 당신이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요? 사실대로 말해봐요.” 박사는 귀찮고 따분하다는 듯한 태도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저, 박사님.” 중년의 사내가 말했다. “한동안 저는 제 분신이 이 세상 어디엔가 살고 있다는 이상한 감정을 가졌죠. 저는 저 자신이 쌍둥이

중 한 편으로서, 다른 한 편과 완전히 교감하고 있다고 느낀단 말입니다.”

박사가 투덜거리며 담뱃재를 털었다. “형제나 자매가 있소? 보고서엔 없다고 되어 있지만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박사님. 형제도 자매도 없습니다. 이런 감정이 설명될 만큼 친밀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마치 제가 다른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저’와 수시로 연락을 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또 다른 ‘저’도 이런 감정을 아는 것 같고요.”

박사는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얼마나 자주 그런 남다른 느낌이 듭니까? 언제 그러리라는 걸 스스로 예측할수 있소?”

“아니요, 선생님.” 중년의 사내가 대답했다. “아주 일상적인 일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배꼽이 따끔거리곤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제가 두 개의 전화선이 혼선된 상태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저의 신호뿐 만 아니라 상대의 신호도 받게 된다고요 ;

“흠!” 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쨌든 그래서 불편하단 거요?”

“네, 박사님. 그렇고말고요; 중년의 사내가 대답했다. “때때로 저는 큰소리로 욕을 내뱉기도 합니다!”

박사가 한숨을 쉬고 소견을 말했다. “이 보고서를 읽고 그러리라 예상했소. 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신을 병동에 두고 관찰해야겠소. 당신은 동시에 두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박사가 신호를 주자 안내원이 방으로 들어왔다. “이분을 B3 병동으로 데려가시오. 나중에 회진하러 갈 테니

안내원이 중년의 사내에게 손짓했고 그 둘은 함께 돌아서서 박사의 집무실을 나왔다. 박사는 한동안 꼼짝도 않고 앉아 있다가 안경을 이마

위로 올리고 열심히 목덜미를 긁었다. 그리고 새 담배에 불을 붙였고, 회 전의자에 등을 기대며 두 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요즈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단 말야, 박사는 혼잣말을 했다. “자신의 쌍둥이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아마도 다음엔 평행우주인가 뭔가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지 ;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그의 생각을 멈추게 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두 다리를 책상에서 내리며 다음 환자를 맞을 준비를 했다.

평행우주는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반드시 짝(반대극) 이 있기 때문이다. 양극만 있는, 또는 음극만 있는 건전지는 존재할 수 없다. 양극과 음극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 어쨌든 그 주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 여기서는 평행우주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불행히도 체면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거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마주하길 꺼리는 ‘과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이 논의를 헛갈리게 만들어왔다. 그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조사해볼 용기를 내지 못한다.

인도의 옛 달인들은 ‘링가 샤리라 L_Shā 心’라는 것을 언급해왔다. ‘링가 샤리라’는 다른 차원에 있는 — 이 3차원의 세계 너머에 있는 — 신체의 일부분을 뜻하며,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세계가 3차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세계는 어디까지나 3차원적이며, 형이상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4차원이란 웃음거리 또는 재밌게 읽을 만한 과학소설의 소재로 여겨질 뿐이다. 그러나 4차원은 실재한다. 그뿐 아니라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의 세계도 존재한다.

9차원의 세계에서는 예컨대 깨달음을 얻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생명의 기원, 영혼의 기원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만물의 존재가 시작되었는지, 우주의 진화과정에서 인류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9차원에서는 초자아의 꼭두각시인 인간이 바로 자신의 초자아와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있으니, 불행히도 '과학자'들이 별 의별 터무니없는 법칙을 다 정해두었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의 말'을 감히 반박한다면 전적으로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의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완전히 불구상태가 된 적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일찍이 가르쳐두었으므로 인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불경스런 짓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력을 벗어날 때까지, 의사들은 어떤 해부도 사후검시도 조사도 할 수 없었다.

몇몇 천문학자들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란 사실을 가르칠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왜냐하면 고대의 똑똑한 인간 하나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며, 온 우주가 인류의 안락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가르쳐 냈기 때문이다!

차원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이 지상에서 우리는 통상 3차원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사물을 보고 느낀다. 우리는 그것들을 단단하고 실재하는 무엇으로 느낀다. 그렇지만 3차원 이외의 차원들을 다룰 때는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다른' 차원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쉽게 이해가 되진 않으리라. 4차원이란 뭘까? 게다가 5차원은 또 뭘까? 그리고 이런 질문이 9차원 이상까지 이어진^^?

먼저 평범한 테이프 녹음기를 하나 떠올려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녹음기를 가졌거나 최소한 본 적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주 느리게 작동하는, 즉 테이프가 초당 1 인치도 채 못 도는 속도의 녹음기를 가지고 있다. 그 속도를 기준으로 우리는 테이프 하나에 한 시간 분량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녹음한 테이프를 예컨대 초당 1 피트의 속도로 재생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 대화 내용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릴 것이다. 테이프에 녹음된 정보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지만,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테이프에 수록된 소리를 파악하려면 우리는 녹음할 때와 같은 속도로 재생해야만 한다.

덧붙여 말하지만, 해양 생태학자들은 녹음 연구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대화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로 바닷속의 소리를 담은 특수한 축음 기록이 있는데, 거기엔 물고기들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담겨 있다. 심지어 게와 가재들조차 교신을 한다. 믿기 어렵다면 돌고래 들의 대화 소리를 떠올려보라. 돌고래들은 인간들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을 한다. 그래서 그 대화를 직접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녹음된 소리를 인간의 귀에 적합한 차원(속도)으로 낮추면 사정이 달라진다. 과학자들은 그 녹음테이프를 판독중이고, 돌고래들의 어휘를 번역해낼 가능성이 속속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돌고래들과 소리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평행우주 이야기로 되돌아가자. 오래전에 러시아를 탈출하고 장 시간에 걸쳐 고통스럽게 유럽을 횡단하여 마침내 자유국가에 이르렀을 때, 나는당시 야만스런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베를린에서 우연히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로 가는 차편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이다.

베를린의 폐허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었다. 폭격 탓에 곳곳이 돌무더기로 변해 있었다. 폭격에 시달린 건물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나는 빨강계 녹슬고 비틀린 철골 구조 아래 작은 공터에 세워진 한 가설무대를 보았다. 무대 위의 배경은 부서진 폐물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었다. 무대 주변엔 거친 천 조각을 두른 장대들이 서 있어서 입장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무대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호기심이 생겨 살펴보니 두 노인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중 한 노인은 장막 앞에 서서 돈을 받고 있었다. 그는 누더기 차림에 텃수룩했지만 어딘가 당당한 태도가 엿보였다. 그 입장료가 얼마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리 큰돈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의 폐허였던 베를린에서는 아무도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냈고, 그 노인은 돈을 호주머니에 챙기더니 흙투성이의 초라한 객석으로 나를 정중히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은 돌덩이들 위에 놓인 널빤지를 의자 삼가 앉아 있었다. 나도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곧 연륜의 무게로 몸이 굽고 야윈 노인이 발을 끌며 무대 중앙으로 나와서는 독일어로 우리가 구경할 내용에 대해 간단한 소개말을 했다. 그는 다시 돌아서서 무대막 뒤로 들어갔다. 우리는 그가 손에 막대기 두 개를 쥐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두 막대기에는 여러 꼭두각시 인형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생기 없는 나뭇조각들로서 야단스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엔 페인트칠을 했으며, 머리엔 말털이 붙어 있었다. 한마디로 조잡하게 깎인 꼭두각시들이었다. 공연히 아까운 돈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러시아와 독일의 경찰들을 피해 걷는 일에 몹시 지쳐 있었으므

로, 계속 딱딱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노인은 그의 작은 가설무대 뒤로 발을 끌며 사라졌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 일종의 조명장치를 가동시켜서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 이 임시변통의 무대 위에 형상이 나타나게 했다. 나는 두 눈을 비비며 열심히 구경했다. 그것은 꼭두각시들이 아니었다. 살아 있는 생명체였다. 서투게 색칠되어 있고 머리는 말털로 꾸며지고 폭격의 잔해 속에서 건져낸 냄바를 두른, 조악하게 깎인 아까의 형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것들은 저마다 온 마음으로 눈앞의 일에 열중하는,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이 무대에는 음악은 물론 어떤 소리도 없었다. 그저 무대 뒤에 숨은 노인이 천식으로 쉹쉹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렇지만 어떤 소리도 필요 없었다. 효과음조차도 굳더더기였으리라. 이 꼭두각시들은 생명 그 자체였고, 모든 동작에는 풍부한 표현이 담겨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것은 만국의 공통언어인 무언극이었다.

꼭두각시들 주위에 오라가 떠 있는 것 같았다. 그 꼭두각시들은 각자 개성을 지닌, 완전한사람으로 보였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보아도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줄이 보이지 않았다. 그 줄들은 배경 뒤로 참으로 교묘하게 감춰져 있었다.

인간관계를 아주 충실하게 재현해낸 삶의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나는 정신없이 그 주인공들의 동기와 행위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는 인간의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내 심장은 패배자를 동정하며 쿵광거렸다. 대단히 인상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인형극이었다.

마침내 극은 끝이 났고 나는 마치 몽환 상태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되 찾았다. 나는 이 꼭두각시들을 조종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천재임을

달았다. 그는 명인 중의 명인이었다.

곧 노인이 무대 뒤에서 나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의 몸은 힘이 부쳐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한 탓인지 창백했고, 가는 땀줄기로 온통 번들거렸다. 그는 진정한 예술가였다. 그는 진정한 대가였다. 나는 후줄근한 차림의 노인을 본 것이 아니라 저 조악한 꼭두각시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천재를 본 것이었다.

나는 밖으로 나오면서 내가 티베트에서 배웠던 것들을 생각했다. 나는 사랑하는 스승 밍야 돈드압 스님이 내게 인간은 한갓 초자아의 꼭두각 시에 불과함을 깨우쳐줬던 일을 떠올렸다. 나는 또 이 꼭두각시 인형극이 평행우주에 관해 놀랄 만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 존재의 10분의 9는 무의식이고 10분의 1만이 의식이다. 당신은 이런 말을 꽤나 많이 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심리학이라는 학문 전체가 온통 인간의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의 갖가지 단면과 성질을 연구하는 데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이 이처럼 '의식부재' 상태라면, 강력한 힘을 가진 초자아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일까? 초자아는 별별 능력과 기예를 다 부여받았고 이 지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힘과 다른 패턴의 삶으로 고통치고 있는데, 골칫거리에다 장애 투성이인 이 지상에서는 고 작제 능력의 10분의 1 밖에 발휘하지 못한다.

당신이 8 기통 엔진의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하자(정확히 비유하려면 10기통 엔진이어야 하지만, 오직 그런 차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중한 기통만이 작동하고 나머지 일곱 기통은 자동차에 도움이 되지는커녕 오히려 거주장스럽기만 하다면 실로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를 보면, 10기통 엔진 중에 단 하나의 기통만이

이 '잠재의식'인 것이다. 이런 낭비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인간의 초자아는 - 또는 다른 피조물의 초자아들 역시 -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인간의 초자아는 달성해야 할 많은 과업을 가지고 있다. 초자아가 존재의 다음 단계로, 다음 차원으로 성장해가기를 열망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때 우리의 초자아는 제 능력의 10분의 1 만을 지상의 우리 육체를 다루는 데 쓰고, 나머지 능력은 다른 행성 또는 다른 차원의 다른 육체들을 다루는 데 쓰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의 초자아는 어쩌면 다른 차원에서는 육체(꼭두각시)조차 없이 이른바 순수한 영의 상태로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아직 그만큼 진화되지 못했거나 또 다른 계획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우리의 초자아가 다소 초심자라고 해보자. 예컨대 중학생 정도로 생각해보자. 중학생은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동시에 공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다른 교실을 찾아다니면 시간과 과정력이 크게 낭비될 것이다. 우리의 초자아는 훨씬 더 만족스런 위치에 있다. 초자아는 꼭두각시의 조종자다.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이 세계에는 초자아가 10분의 1의 주의만을 기울이고 있는 몸체, 즉 꼭두각시가 있다. 그러나 초자아는 동시에 다른 차원의 평행우주에서도 또 다른 꼭두각시들을 여럿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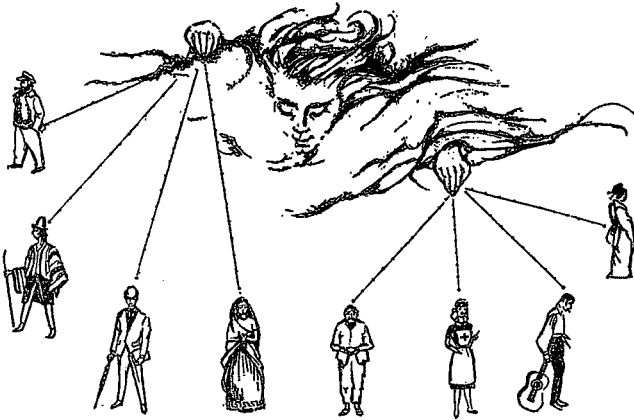
초자아는 이처럼 자신만의 방에 초연히 앉은 채로, 여러 꼭두각시(대리인)를 여러 교실에 보내서 그 각각의 원천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종합해 낸다. 특히 초자아가 진화의 주기를 따라잡기 위해 일을 좀 서둘러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 학생은 좀 느릿하게 여유를 부려왔지만 그렇다고 다른 학생들보다 뒤쳐져서 유급당하기를 바라진 않는다. 그래서 그는 남은 학기 동안 아주 뻑뻑이 짜인 교육과정을 택할 수밖에

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외수업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초자아는 호주에서 사는 사람과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을 동시에 조종할 수도 있다. 어쩌면 남미, 캐나다, 또는 영국에도 꼭두각시가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서녘 또는 예닐곱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결코 서로 만나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서로 상당한 유사성을지니게 된다. 그들은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텔 레파시로 서로 동조하게 된다. 이따금씩은 유체 상태로 만나기도 하리라. 밖에서 일하는 외판원들도 한 번씩은 관리자의 사무실에 모이는 것처럼 ^이다.

일곱, 여덟, 또는 아홉의 꼭두각시를 거느린 불쌍한 초자아는 그들 모두를 동시에 조종하면서 '줄이 엉키는' 일을 피하기 위해 적잖은 수고를 해야 한다. 아주 진기한 꿈을 꾸었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같은 주인을 둔 꼭두각시들의 은줄이 잠든 동안에 서로 맞닿게 되면 마치 혼선이 된 전화선과 흡사한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들의 정보가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몹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처럼 흥미로운 사실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꼭두각시들을 많이 가짐으로써 초자아는 방대한 경험을 할 수 있고, 한 생애의 시간 동안 열 개의 삶을 살 수 있다. 초자아는 부유와 가난을 동시에 경험하며 그것들의 경험을 저울로 달아볼 수 있다. 어떤 나라의 꼭두각시는 생계가 비참하여 굶어 죽을 지경의 거지인 반면, 다른 나라의 다른 꼭두각시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국가의 정책을 짜는 왕자일 수 있다. 비참하고 곤궁한 거지의 경험이 왕자의 경험과 어우러지면서 초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이번에는 왕자로 왔다가 다음번에는 거지로 오는 식으로 정해진 차례를 기다리게 된다. 그렇지만 시간에 쫓길 때는, 특히 지금처럼 진화의 한 주기(칼리 유가)가 끝나갈 무렵에는 과감한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진도가 느린 사람들이 동료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말이다.

우리는 지금 물병자리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물병자리 시대에는 인류에게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영성이 증진될 것이다. 여담이지만, 정말로 이젠 때가 되었다. 인간의 심령적 능력 또한 증진될 것이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시 지구에 태어나지 않고 다른 진화 단계로 이동할 것이다. 하지만 이생에서 또는 이번 존재의 주기에서 버릇없는 학생들처럼 유급당한 이들은 다음 주기에든 같은 공부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떠난 후에 좀더 높은 존재 형태로 옮겨간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항상 위를 향해 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인간의 영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무엇보다 좋아하는

노력을 기울여 많은 꼭두각시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평행우주란 다른 차원에 있는 세계, 지구와 꽤 흡사하지만 다른 차원의 세계이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지구의 반대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과거로 돌아갔는가 아니면 미래로 건너왔는가? 당신은 날짜변경선을 넘었으므로 하루만큼 뒤로, 또는 앞으로 여행했을 것이다. 달력의 날짜를 기준으로 당신은 미래 또는 과거로의 여행을 할 수 있다. 평행우주도 이와 비슷하다.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또 다른 여러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심장이 시간당 10 톤의 피를 뿜어낸다거나 몸속 모세관의 길이가 6만 마일에 달한다는 놀라운 사실은 쉽게 믿으면서도, 평행우주와 같은 간단한 사실 앞에서는 불신의 눈을 치켜뜨고 온몸을 긴장시키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접근하기도 측량하기도 몹시 어렵다. 만일 우리가 쉽게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면 다른 꼭두각시들이 다른 세계 또는 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늘 알게 될 것이므로 대단한 혼란, 경악, 낙담을 초래하게 되리라. 예컨대 오늘 당신은 어떤 일을 했다. 그런데 당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보니, 지난주에 같은 일을 이미 했던 다른 꼭두각시가 있고 다음주에 그일을 하려고 하는 또다른 꼭두각시도 있다. 이처럼 동시에 진행되는 여러 개의 삶은 당신에게 주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재의식의 문을 열기 어려운 이유들 중 하나이다.

때때로 의도치 못하게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가 관통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다. 그 결과는 대개 정

신병원에서 다루어질 만큼 심각한 것이다. 이때 당사자는 별의별 정신병 증을 다 겪게 된다. 왜냐면 이 불쌍한 피해자는 자신이 본래 거주하게 되어 있는 육체가 어느 것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당신은《이브의 세 얼굴》이란 책을 읽은 일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의 몸 안에 세 개의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여자의 이야기다. 그 모든 내용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하고 명성 있는 의사와 전문가들에 의해 쓰였다. 브리디 머피 BridieMurphy 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그것도 유사한 사례

다. 다른 인격에 의해 점유된 사람의 이야기인데, 잠재의식 속에서 두 꼭두각시 사이에 관통이 일어난 경우이다.

우리는 잔 다르크^(1412~31)란 인물도 잘 알고 있다. 잔은 자신이 송고한 출처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믿었다. 그리고 아주 열악한 교육밖에 못 받은 시골처녀였음에도 전사로 변모하여 일군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두 꼭두각시의 은줄이 서로 엉키면서 잔이 다른 육체의 남자에게 일어났던 충동을 대신 느끼게 된 것이다. 한동안 그녀는 남자들의 지도자로, 위대한 전사로 행동했다. 그러나 엉킨 은줄이 풀리자 힘이 떨어져서 다시 소박한시골처녀로 되돌아갔고, 이전의 일시적 명성으로 인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결국 그녀는 화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이브의 세 얼굴》의 사례에서, 그 불쌍한 피해자는 잠재의식의 관통현상으로 인해 동일한 초자아에 의해 조종되는 다른 꼭두각시들과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게 되었다. 물론 다른 꼭두각시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으니 그들 모두는 철저하게 혼란스러운 결과를 감내해야만 했으리라. 당신 이 여러 개의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다가 부주의하거나

발로 차거나 꼭두각시 C가 머리를 끄덕이는 식의 간섭이 일어날 것이다.

잔 다르크는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소박한 시골 처녀였다. 그녀는 오랜 기간을 홀로 묵상 속에서 보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잠재의식의 관통을 일으키게 되었다. 어쩌면 온전한 지식 없이 특수한 호흡법을 시도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녀는 잠재의식에 진입하여 다른 꼭두각시와 은줄을 교차시켰고, 그리하여 큰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전사의 충동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탔다.

그렇다면 본래 지도자가 되어야 했을 그 불쌍한 사내는 어찌 되었을까? 반대로 여성적 인격을 발전시키게 되었을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리는 불행한 결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어쨌든 잔 다르크는 남자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다른 꼭두각시의 은줄로부터 정보를 받았던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은줄은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다.<전도서>12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은줄이 풀리고, 황금 주발이 깨지고, 샘에서 물 뜨는 물동이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

사람들은 시간, 상대성이론, 평행우주 등을 거론할 때마다 그토록 현 학적인 말들을 늘어놓으면서도 그 정확한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이번 장에서 그 대략적인 개념을 깨달았으리라.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은 진실이다. 이 모든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의 어느 날, 과학은 장애와 편견을 타파하고 평행우

^13 장 더 많은 거소들

"당신이 내 라디오를 망가뜨렸어!" 마르고 날카로운 인상의 한 여자가 작은 점포로 뛰어들면서 외쳤다. "전부 다 당신이 판 건전지 때문이니까!"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로 뛰어오더니 놀란 얼굴로 진열대 저편에서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는 젊은 점원의 손에다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안겼다. 갑자기 이 무서운 여자에게 자리를 빼앗긴 고객은 조심조심 옆걸음질로 비켜서더니 무사히 문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거리로 도망 치듯 사라졌다.

뒷방에 있던 지배인이 당황한 듯 손을 비비며 나타났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여자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그가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

"무슨 일이냐고요?" 그녀가 고함쳤다. "당신네의 불량 건전지 때문에 내 라디오가 망가졌어요. 작동이 안 되니까 새 라디오를 달라구요." 그 때문에 골치를 썩힌 일들이 떠오르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목 쉰 황소울음처럼 한층 더 높아졌다. 진열대에 있던 젊은 점원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라디오만 만지작거렸다.

. 이윽고 그는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라디오 뒷면의 나사 두 개를 반쯤 돌렸다. 그리고 덮개를 열고 천천히 건전지 네 개를 꺼냈다. "점검을 해볼게요." 그는 카운터 끝으로 가서 건전지를 테스트기의 전기선에 연결 시켰다. "이것 보세요!" 건전지의 전압이 15 볼트를 가리키자 그가 소리 쳤다.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그는 조심스럽게 건전지를 라디오에

끼워넣었다. 그리고 나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라디오를 뒤집어서 엄지로 가볍게 스위치를 돌리자—최신 비틀스음악이 울려 나왔다.

여자가 깜짝 놀라 입을 벌린 채 점원을 쳐다봤다. “거참! 내가 할 땐 작동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공격적으로 따져 물었다. “혹시 배터리를 바꾼 거 아니에요?”

지배인과 점원은 서로 쳐다보다가 화가 치미는 듯 어깨를 들썩거렸다. 지배인은 감정을 누르고 달래듯이 말했다. “부인! 건전지를 바르게 넣으신 게 확실합니까?”

“바르게? 바르게? 무슨 뜻이죠?” 여자가 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자줏빛이 되어 있었다. “건전지를 못 넣는 사람도 있나요? 물론 나는 바르게 넣었어요.”

지배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른 방법이 있고 바르지 않은 방법이 있지요. 전극을 반대로 해서 넣으면 작동이 되질 않는답니다.”

“엉터리잖아요.” 여자가 도도하게 말했다. “위치야 어쨌든 작동을 해야죠. 어떤 위치든지 말이에요. 텔레비전 전원을 켜는 때는 전극 따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당신들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그렇듯이!” 그녀는 일부러 크게 콧방귀를 끼고서 여전히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는 라디오를 집어들고 돌아섰다.

“잠깐만요, 부인!” 지배인이 소리쳤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혼란을 또 겪으실 거예요.” 지배인은 그녀에게서 라디오를 건네받아 재빨리 건전지 덮개를 벗겼다. 그리고 건전지들을 꺼내서 잘못된 방향으로 다시 집어넣고 스위치를 돌렸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는 건전지의 방향을 제대로 바로잡고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라디오를 건넸다. “한 번 직접 해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해보진 않았어요 !” 여자는 억울해하는 목소리로 말하더니 태연하게 점원을 가리켰다. “제대로 알려줬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배인은 선반 위의 건전지들을 꺼내 보였다. “보세요, 부인. 모든 건전지에는 전극이 있습니다. 한끝은 양극이고 다른 끝은 음극이죠. 라디오를 작동시키려면 건전지의 방향이 올바르게 삽입되어야 해요. 텔레비전 전원과는 다르죠. 그건 교류라고 해요. 어쨌든 건전지나 자석 같은 것은 양극을 가진답니다. 남자와 여자처럼요.”

“그렇군요!” 여자는 결눈질을 하며 킬킬댔다.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하지요!”

.....

전화벨이 끈질기게 울렸다. “따르릉 , 따르릉 , 따르릉...” 차고 반대편 끝에서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너털거리는 천조각을 집어 기름 묻은 손을 닦고 계속 울리고 있는 전화기로 다가갔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며 큰소리로 말했다. “스티브 정비소 판매수리부입니다,

“어머나!” 반대편에서 여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를 안 받는 줄알았어요;

“죄송합니다 , 부인.” 정비소 남자가 말했다. “다른 고객이 있어 바빴습니다.”

“괜찮아요.” 여자가 대답했다. “저는 페른 마을의 엘리스인데요 ,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급히 시내에 가봐야 하거든요.”

정비소 남자^{cr} 다시 한숨을 쉬었다. 여자들은 항상 시동 거는 데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그 덕분에 집세를 벌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동장치를 시험해보셨나요?”

“물론이죠.” 그녀가 당당하게 말했다. “누르고 또 눌러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엔진이 전혀 돌아가지 않아요. 이리로 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마음을 즐기고 있었다.

정비소 남자는 잠시 생각했다. 엘리스의 남편은 꽤 괜찮은 고객이었다. ‘그래, 가보는 편이 좋겠지!’ 그는 말했다. “그러죠, 엘리스 부인. 30 분 안에 그리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때 부품을 구하러 갔던 그의 조수가 차를 몰고 돌아왔다. 남자는 서둘러 트럭으로 향했다. “예비 배터리와 점퍼 전선을 실어주겠나, 짐? 엘리스 씨의 차를 보러 갈 참인데 먼저 좀 씻어야 하거든.” 그는 급히 욕실로 들어가 검댕과 기름때를 씻고 더러워진 작업복을 벗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손질한 후 소형 트럭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정비소 잘 지키고 있계, 짐.” 그는 정비소를 조수에게 맡기고 트럭을 몰아 교외로 향했다

엘리스의 집까지 가는 10 분 동안 그는 신개발지 옆을 지나갔다. 그는 그곳의 새집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새로 생길지 모르는 잠재고객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큰 차를 새로 산 사람들은 시내로 나가서 돈을 쓰기 바빴다. 오직 험 차를 가진, 또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의 주인들만이 자신의 정비소를 찾아왔고 인근에서 쇼핑을 했다. 시동만 걸린다면 그들 또한 번쩍이는 창들과 펄럭이는 장식들로 유혹하는 ‘플래시 피트’나 정직한 조가 있는 시내로 몰려갈 것이다.

엘리스 부인은 집 앞에서 초조한 듯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녀는 소형트럭을 보자마자 경사진 차도를 허겁지겁 내려왔다.

“아!” 그녀가 외쳤다. “오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²○분밖에 안 걸렸는데요, 부인!’ 남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대체 뭐가 문제죠?”

“그건 당신이 찾아야지요!” 엘리스 부인은 딱 잘라 말하고는 돌아서서 차 두 대가 가는 차그IS 潮다.

스티브가 주위를 둘러보니 예비 타이어들이 꼼꼼하게 벽에 걸려 있었고, 5 갤런짜리 기름통은 주둥이가 열려 있었으며, 번쩍이는 새 배터리 충전기 역시 콘센트에 꽂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흠’ 그는 생각했다.

‘이 정도면 고장 날 일이 없을 텐데.’

그는 거의 새것 같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위로 미끄러지듯 앉았다. 그는 이리저리 살펴보고, 클러치도 밟아보고, 기어가 걸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 시동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자동차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점화 상태를 표시하는 적색등조차 켜지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 보닛을 올려 보니 엔진은 깨끗했고 모든 전선도 신품이었다. 배터리 연결 상태도 이상이 없었다. 한동안 그는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 빨리요. 이미 늦었어요. 뭐라도 해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엘리스 부인은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남편이 배터리 충전기를 어제 새로 사왔기에 이전 추운 날씨에도 쉽사리 시동을 걸 수 있겠거니 했는데, 지금 내 차가 전혀 꼼짝을 안하니 말이에요!”

스티브는 황급히 소형트럭으로 가서 각종 도구와 배터리 검사기를 갖고 돌아왔다. 그런데 검사기를 배터리 단자들에 연결해보니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다.

그가 그 사실을 지적하자 엘리스 부인이 소리쳤다. “아, 말도 안 돼

요! 내가직접 밤새 배터리를 충전시켰다구요.”

그가 배터리 충전기로 가서 보니 놀랍게도 단자에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양극 표시도 음극 표시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물었다.“어떤 게 어떤 극인지 어찌 알지요?”

엘리스 부인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그게 중요한가요?”

그는 한숨을 쉬고는 설명했다.“모든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을 반대로 연결하면 배터리는 충전되는 게 아니라 방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로는시동이 안걸리는 거고요.”

엘리스 부인이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남편에게 그 딱지들을 떼지 말라고 얘기했건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스티브가 단자와 배터리 꺾쇠를 옮기며 말했다.“10 분이면 돼요. 이 배터리는 다시 충전시키고, 대신 제가 가져온 예비 배터리를 빌려드릴게요.”

엘리스 부인이 그제야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왜 양극이니 음극이니 하는 게 있어야만하는 거죠?”

“에너지가 흐르려면 꼭 그래야 하니깐요.” 그는 대답했다.“세상 만물은 자신과 반대되는 대응물을 어디엔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지요.”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저는 우주 어디엔가 이 지구와는 반대의 극을 가진 세계가 있다고 믿는답니다.” 그가 다시 운전석으로 가서 시동을 걸자 엔진은 큰소리를 내기시^^다.

“서둘러가겠어요.” 엘리스 부인이 소리쳤다.“점심 약속에 늦기라도 하면 내 ‘반대극’이 성을 낼 테니까요.” 그녀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그는 방전된 배터리를 소형트럭에 얹으면서 체념하듯 머리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여자들이란... ! 그렇지만 정말로 반물질의 다른 세계가 있을지는 의문이야. 요전 밤 저 아래 '장미와 용월' 가게에서 이런 진기한 얘기를 들었었지. 글썄...!'

강은 이리 요새 (Fort Erie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격전이 벌어졌던 유적지, 역주)의 '평화의 다리'를 감돌아 소용돌이치며 출렁거렸다. 그리고는 나이아가라 공원의 제방을 빙 돌아 유유히 흘러갔다. 파도치는 잔물결로 강에 정박한 유람선들은 밧줄 맨 기둥에 부딪혀 흔들리며 들썩였다.

그랜드 아일랜드아빠 Island 의 모래 강가를 따라서 작은 돌들이 강물에 쓸려 구르며 까르륵 거리는 소리를 냈다. 강은 치파와 Chippawa 강과 하나로 합쳐지며 계속 흘러갔다. 작은 강, 시내, 그리고 개울이 더해질 때마다 강은 수량이 많아지고 파도도 높아졌다.

멀리 나이아가라폭포에서는 물보라가 수십 미터 위의 공중으로 뿌려져서 한동안 그 상태로 떠 있다가 되떨어지며 급류에 가세했다. 흩뿌려진 물보라 위에선 다채로운 빛이 시시각각 반사되며 화려한 무지개를 만들었다.

강물은 폭포 위 수량 통제소에 있는 한 남자에 의해 줄기가 갈라지고 있었다. 엄청난 양의 물이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위해 폭포로 향했고, 또 다른 수천 갤런의 물은 왼쪽으로 급히 돌아 거대한 인공 터널로 들어가서 5 마일이나 내리막을 치달은 후 수력발전소로 흘러갔다. 가속도가 붙은 강물은 거대한 힘으로 터빈의 날개를 휩쓸며 회전시킴으로써 엄청난 양의 전력을 생산해냈다.

온타리오 주를 가로질러 가설된 송전선들이 실어 나르는 전기가 문명

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캐나다로부터 뻗어나온 거대한 고압선이 미국을 횡단해 뉴욕까지 닿으면서 미국의 가정과 산업체에 전기를 공급해주었다. 수십억 개의 불빛이 사람들을 안락하게 만들었다. 캐나다산출 전기 덕분에 변화한 호텔에선 승강기가 쉬익 거리며 투숙객들을 방으로 날랐고, 병원에서 내외과 의사들이 진료를 볼 수 있었다. 곳곳에서 라디오 소리가 울려 퍼졌고, 텔레비전이라 불리는 유리화면 뒤에서는 깜박이는 그림자들이 흔들리고 뛰어다녔다.

전 세계 각지에서 불빛이 휘황한 땅을 가로질러 항공기들이 날아왔다. 영국, 호주, 일본, 남미, 그 외 여행사 광고에나 나올 법한 온갖 생소한 지역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 주 공항을 향해 줄지어 몰려들었다. 관제탑의 관제관들은 실 틈 없이 지시를 내리며 조종사들을 안내했다. 활주로 불빛은 공항을 대낮처럼 밝게 했고, 탐조대는 커다란 빛줄기를 하늘로 쏘아 올려 아직 수 킬로미터 밖의 대양 위에서 어둠에 싸여 있는 이들이 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전철은 지하에선 울부짖듯 쇠소리를 냈고, 지상에선 고가를 건너며 요란하게 덜컹거렸다. 부두의 정박소엔 전 세계의 거대한 상선들이 묶여 있었고, 인간들은 개미처럼 정신없이 짐을 부리는 하역작업에 열중했다. 엄청난 밝기의 조명등이 시간을 되돌려 어두운 밤을 밝은 대낮처럼 바꿔 놓았다.

여전히 저 멀리 발전소에서는 물이 끝없이 쇠도하여 터빈을 돌리고 또 돌림으로써 전기가 두 나라를 횡단하여 흐르게 했다. 발전소에서 생겨난 양극과 음극이 상대극을 향해 흘러가려는 부단한 몸부림(에너지의 흐름)이 이처럼 인간을 안락하게 해준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어디에선가 작은 폐단이 생겨났다. 합선이 발생한 것

이다. 합선이란 양극과 음극의 갑작스런 접촉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단 합선이 되고 나면, 금세 엄청난 양전기가 음전기를 향해 - 마치 흥분한 축구 관중처럼 - 뛰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계전기가 뜨거워지고, 콘센트는 9에 들러붙는다. 절연선도 뜨거워지며 빨갱게 달아올라 여기저기 고무가 타는 얼룩이 생긴다. 전동기들은 과잉 출력으로 소란을 떨다 경경 거리고 이윽고 힘이 다하며 정지해버린다.

그리하여 두 나라의 전깃불이 모두 나갔다. 승강기가 작동을 멈추면서 탑승객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떨었다. 땅 밑에선 전철이 귀에 거슬리는 쇠소리를 내며 운행을 정지했다. 가장 즐거운 것은 - 요란한 라디오와 번쩍이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전부 꺼져버렸다는 사실이다. 기자들도 찢어진 신문과 사람들의 악다구니 속에서 모처럼 잠잠해졌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양전기가' 음전기를 향해 갑작스럽게, 또한 맹렬하게, 어떤 사전조치나 통제도 없이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대극끼리의 만남이 통제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

지난 수 세기 동안 동양의 달인들은 이 세계와 반대되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양에서는 그 세계를 '검은 쌍둥이'라 일컫는다.

수년 동안 서구의 과학자들은 오직 관찰 가능한 것들만이 존재하는 전부라는 맹목적인 믿음으로써 동양의 주장에 냉소를 보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한 남자가 반물질(反物質) 세계와 관련된 여러 사실들을 발견함으로써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1927년 한 영국의 물리학자가 이 우주에는 일종의 '반물질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발견을 의심스러워했고, 자신의 능력에도 충분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 칼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 물리학자가 특수한 실험공간 안에서 우주선《mic mys》을 사진으로 찍었다. 거기서 그는 여타 전자들과는 다른 한 전자의 궤적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자의 반물질(anti-electron, 양전자)이다. 칼 앤더슨은 1927년에 한 영국인이 이미 예상했던 이 발견 덕분에 노벨상을 받았다. 아마 그 영국 물리학자가 자신의 능력에 충분한 확신이 있었다라면 앤더슨보다 먼저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다.

동양에서는 수 세기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고 이제는 과학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컨대 수소 원자가 자신의 반물질과 만날 때 일어나는 엄청난 폭발에 비하면 원자폭탄은 젖은 폭죽 정도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좀더 고찰해보자. 모든 생명, 모든 존재는 움직임, 흐름, 성쇠, 증감을 보인다. 심지어 시각조차도 일종의 움직임이다. 눈의 시신경(간상체와 원추체)이 물체를 본다는 것은 사실 그 물체로부터 진동(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정지해 있는 것이라곤 무것도 없는 셈이다.

산을 예로 들어보자. 산은 단단한 구조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산은 위아래로 춤을 추는 분자 덩어리, 마치 여름밤의 하루살이 떼처럼 서로 맘을 도는 분자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좀더 규모를 넓혀 우리는 그것을 우주에 비유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과 유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즉 정지한 채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었다고 해도 정지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야 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음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순수한 양 또는 순수한 음의 존재물은 없다. 만약 그렇다면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의 에너지의 흐름이 있을 수 없으므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반물질 세계를 알지 못한다. 이는 마치 배터리의 음극 또는 양극이 상대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물질계에 살고 있다. 우주에는 그와 동등하면서도 정반대 성향의 반물질 세계가 있다. 신이 있으면 악매 (anti-God)가 있다 악마가 없으면 신의 선함을 파악할 방법이 없고, 신이 없으면 악마의 악함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현재 음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악마, 사탄 등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악의 힘'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 그러나 곧 존재의 주기는 바뀔 것이고, 우리는 신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서 그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수시로 변하는 일종의 교류전기의 회로 속에 있다. 우리의 반물질 세계도 마찬가지로 음으로부터 양으로, 양으로부터 음으로 변화해간다.

흐름, 움직임, 떨림, 진동, 변화 그 자체가 곧 생명이다. 흐름과 변화가 곧 존재이다. 영국의 가정에 공급되는 교류전기를 예로 들면, 음극과 양극이 초당 50 번 전환된다. 캐나다와 미국 같은 지역에서는 그 전환 빈도가 초당 60 번이다.

이처럼 세계, 태양계, 또는 우주로 알려진 존재의 틀 위에서 우리 역시 고유한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는 전자들이 전류를 따라 여행하듯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여행을 한다. 우리는 -아니, 우리의 초자아는 - 좀더 월등한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의 시간 개념에 따라 여행을 한다. 내가 쓴<<선인들의 지혜>>를 참고하면 각각의 시간 주기가 72,000 년임을 알

게 될 것이다.

지구의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은 또 다른 지구, 또 다른 은하계, 또 다른 시간의 체계 속에 반대극의 대응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근접해오지 못한다. 이 두 세계가 서로 만나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양편 모두 괴멸되기 때문이다.

1908년 6월 30일에 지축을 흔들며 시베리아를 황폐화시켰던 폭발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의 대기권에 진입한 축구공보다도 더 작은 반물질 때문이었다. 그 조그만 반물질은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여행해왔는데, 지구와 접촉하면서 약 800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릴 정도의 소음을 내며 폭 발했다. 그로부터 약 60 킬로미터 밖에 있던 사람들조차 돌풍과 충격으로 완전히 내동댕이쳐졌다. 만일 그 반물질 조각이 좀더 컸더라면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으리라.

우리는 현 주기의 현 세계에서 부정적인 순환 과정에 속해 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좌절과 쓰디쓴 괴로움을 겪고 있다. 현세에서는 단연코 악의 힘이 우세하다. 그러나 기운을 차리라. 현 주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터인데, 그때는 모든 것이 갈수록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전쟁도 없을 것이며, 모두가 선해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서로를 향해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다음 주기에서는 오직 가난과 질병을 타파하기 위한, 악 그 자체를 근절시키기 위한 투쟁만이 전부일 것이다. 우리는 소위 '지상 천국'의 도래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초자아는 그곳으로도 자신의 '꼭 두각시'들을 지금과 똑같이 내려보낼 것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떠올려보자. 앨리스는 거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뒤바뀐 세계로 들어갔다. 당신이 부정과 긍정을 가르는 장막을 통과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지금 이 세상에서 당신은 청구서를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까, 이웃들은 왜 나를 싫어할까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장막 저쪽으로 밀려나서 보니, 그곳의 당신은 빛이 전혀 없고, 더없이 친절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런 전환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기가 바뀔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공부거리가 주어진다. 실로 흥미롭지 아니[^]가

만일 우리가 반물질을 완두콩만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엄밀한 통제 아래서 활용할 수 있다면 거대한 우주선을 간단히 지구 너머의 깊고 깊은 우주로 날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현재와 같은 로켓의 복잡한 추진체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반물질 덩어리는 반중력(anti-gravity)에 필요한 동력을 충분히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악이 없으면 선도 없다. 상대극이 없으면 무런 자력도 작용할 수 없다. 양극 또는 음극만 있는 자석은 없다. 그런 자석은 존재할 수가 없다! 지구의 자장이 북극과 남극으로부터 방사되는 것처럼, 이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반대극의 세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야 말굽자석의 온전한 양극이 갖추어진다.

많은 과학자들은 반물질 세계에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복제되어 있다고 추측한다. 예컨대 반細마-인간들, 반-고양이들 그리고 반-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반물질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상상력이 부족하다. 오직 손안에 넣어 절개하거나 비교해본 것만을 이해한다.

이 특별한 주제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비술가[^]■향(。^_레가

다른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볼 수 있다. 내가 아주 빈번히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반-인간들이란 에테르의 방향이 이 지구의 사람들과 반대인 존재이다. 예컨대 우리가 푸른 색조에 노란 띠의 오라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노란 색조에 푸른 띠의 오라를 갖고 있을 것이다. 반물질의 세계를 상상하기 어렵다면 사진 인화술을 참고해보라. 사진에는 음화와 양화가 있다. 음화에 빛을 쬐어 감광지에 투영시키고 그걸 여러 화학약품에 담그면 음화의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화상을 얻어지고 어두운 부분에선 밝은 화상을 얻어지면서 양화의 사진이 인화된다.

이 세상에는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비행물체들이 있다. 소위 '비행접시'(flying saucer)라는 그것들은 사실 반물질 세계로부터 이 지구에 온 것이

다.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 가깝게 접근하지 못한다. 그러면 폭발을 일으킬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달과 화성과 금성에 로켓을 보내는 것처럼 이 세계를 탐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만일 비행접시 사건들이 진실이라면 그 승무원들이 왜 착륙 하여 지구인들과 접촉하려 들지 않느냐고 불평한다. 진실은 그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착륙하는 즉시 폭발이 일어나서 비행접시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여러 보고서들을 참고한다면, 당신은 레이더에 분명히 잡힌 '미지의 비행물체'가 지표면의 3백 미터 이내로 접근했을 때 갑자기 폭발해버린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폭발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로켓을 반물질 세계로 쏘아 올린다면 그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하 나의 도시를 완전히 날려버림으로써 그곳

반물질 세계라는 주제는 연구하면 할수록 대단히 흥미로운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지구에는 사람들이 다른 차원 또는 반물질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는 특정한 장소들이 있다. 다행히도 그런 곳은 몇 군데밖에 없지만, 불운한 사람들은 그 '수상한' 장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한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거듭 입증된 사실이다.

저 멀리 혹한의 세틀랜드 제도 너머에는 '울티마 툴 Ultima Thule(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섬이 있다. 그런데 아주 이상스런 일들이 그 섬을 중심으로 종종 일어났다. 예컨대 수년 전 영국해군 본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단의 영국 수병들이 그 섬에 상륙해서 아주 괴이한 일들을 겪었다고 한다. 수병들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목격했다. 수병들은 깜짝 놀라서 자신들이 타고 온 영국 전함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만일 그 전함에 탔던 수병들은 결국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고 전 부사라졌다.

미국의 해안 바깥에도 '죽음의 삼각지대'로 알려진 장소가 있다. 대서양에 있는 그곳에서는 선박들은 물론 빠르게 비행하는 항공기조차 사라지곤 한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 시작은 이랬다. 1963년 2월 2일, '마린 설퍼 퀸 Marine Sulphur Queen*'이라는 이름의 유조선이 텍사스주 보몬트항을 떠났다

다. 이 유조선은 버지니아주의 노퍽항으로 갈 예정이었다. 유조선은 2월 4일까지는 육지의 무선국과 정기적인 무선 교신을 했는데, 당시 멕시코만의 특정 지역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배로부터 갑자기 교신이 끊겼고, 2월 6일에 공식적으로 배가 실종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 지역을 순찰키 위해 비행기들이 떴고, 연안

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렇게 2월 14일까지 수색이 계속되었으나 유조선에 관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배들만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1963년 8월, 두 대의 대형 급유기가 마이애미 남쪽 공군기지를 떠났다. 열한 명의 승무원들은 지극히 일상적인 급유작업과 훈련을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급유기들이 위치를 마이애미로부터 북쪽 1,300킬로미터, 버뮤다로부터 서쪽 500킬로미터로 무선 보고한 이후로 교신이 끊겼다. 비행사들은 고도로 훈련된 인력이었고 기체도 전혀 결함이 있을 수 없는 새것이었다. 그런데 위치 기록만을 남긴 채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뒤이은 수색을 상상해보라. 항공기들이 출정하여 그 지역을 말 그대로 누볐다. 몇몇은 높이 떠서 바다를 최대한 넓게 조망했고, 몇몇은 낮게 훑으며 두 기체의 잔해라도 탐지하고자 애썼다. 배들도 종횡으로 이동하며 수색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기체도, 난파의 흔적도, 시체도.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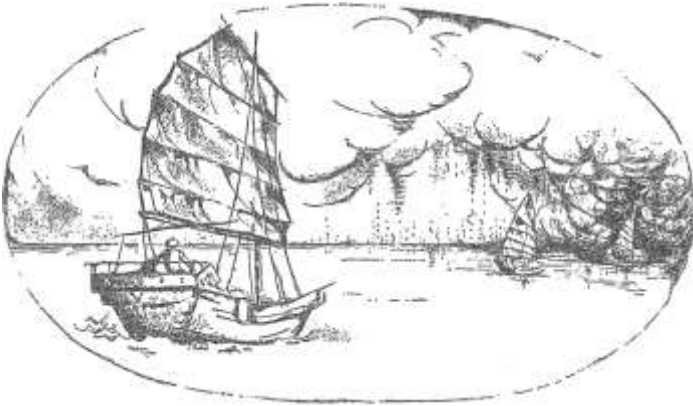
수년 동안 배들의 수상한 실종 사건이 줄을 이었다. 배들은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졌다. 난파되었다는 단서조차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고성능의 레이더를 갖춘 항공기가 즉각 탐색 작업에 투입되는 오늘날에도, 아무리 살살이 수색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길이 없다.

이처럼 대서양의 버뮤다/플로리다 해안선 부근 특정 지역에서는 많은 배들과 항공기들이 사라졌다. 이곳은 결코 외딴 지역이 아니다. 이 해안선 일대는 해안경비대, 해군, 공군이 항시 순찰하고 있으니깐.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이런 실종사건은 대단히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듯하다.

수년 전, 나는 태평양에도 일본 남쪽에 아주 수상한지역이 있음을

게 되었다. 그곳엔 '악마의 바다'라고 알려진 지역이 있다. 그곳에선 평 화롭게 항해해가던 범선이 갑자기 통째로 사라져서 근처 다른 범선에 탄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다고 한다.

한번은 일련의 고기잡이 범선들이 '악마의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다. 선두의 범선은 다른 범선과 약 1 마일쯤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흔 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뒤따르던 범선의 조타수는 경악했지만 영문을 몰라 진로를 변경할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 결국 그 범선은 똑같은 진로 를 그대로 갔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다. 그 범선의 승무원 들은 머리 위 허공에서 이상스런 가물거림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회오리바람의 전조처럼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 다고⁴다.



회의적인 독자들이 살펴볼 만한 또 다른 사례도 있다. 1945년 12월 5일, 다섯 대의 공중어뢰 폭격기들이 플로리다 주 로더데일 요새 해군기지 에서 이륙했다. 구름 없이 태양이 비치는 맑은 날씨였고 물결도 잔잔했다. 물론 폭풍우 같은 것도 없었다. 커다란 수수께끼가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날이었다.

이 폭격기들은 정규 비행 중이었고, 미국의 해안 또는 카리브 제도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가시권 내에서만 움직였다. 그들의 비행고도를 감안할 때 그들은 한 번도 육지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었다. 모든 기체는 신중한 점검을 마친 후였고 연료 탱크에는 기름이 가득했다. 모든 엔진이 최상의 상태였고, 이륙 전에 조종사들은 확인을 마쳤다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 더욱이 모든 기체는 자동으로 펼쳐지는 구명장비와 구명보트를 싣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각자 구명조끼를 휴대했다. 그것은 비상 시에 여러 날 동안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승무원은 총 열네 명이었는데, 모두가 1년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갖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평소처럼 푸른 하늘에서 쾌적한 비행을 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보석처럼 빛나는 카리브 제도와 플로리다의 길고 긴 해안선을 지켜보면서 말이다. 어쩌면 몇몇은 에버글레이드 Ev 배 1 ade 습지를 한 번 더 구경하고 싶어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일상적인 정규 순찰을 하기 위해 이륙했고 동쪽으로 160마일, 북쪽으로 40마일을 비행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수를 공군기지로 되돌려 두 시간 이내로 착륙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륙 후 약 30분이 지났을 무렵 하나의 메시지가 로더데일 요새로 날아들었다. 놀랍게도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전언이었다. 비행을 지휘하는 편대장은 겁에 질려 동요하는 상태였다. 그는 자신들 모두가 진로를 벗어난 것 같으며 육

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기에 그는 그 말을 계속 반복했다. “반복한다.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

공군기지에 근무 중이던 무선통신사는 비행편대의 위치를 물었다. 그러나 편대장의 응답은 관제탑 요원들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버렸다. “위치가 확실치 않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들은 이상적인 조건하에 비행 중이었고, 조종사들은 비행경험이 풍부했으며, 항공기의 상태 또한 나무랄 데 없었다.

다시 새로운 메시지가 접수되었다. 몹시 흥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어느 방향이 서쪽인지 모르겠다. 모든 게 잘못됐고 모든 게 이상하다. 우리는 방향을 확신할 수 없다. 바다조차도 이전과는 다르게 보인다.”

당신은 열세 명의 부하를 거느린 노련한 상관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상상이 되는가? “나침반이 제대로 가리키지 않는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 바다조차도 뭔가 다르게 보인다 ;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날던 열네 명의 사내들은 공군기지를 흰히 비치고 있는 해조차 자신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다른 비행 편대장이 위치를 모르겠다고 무선으로 말해왔다. 그는 말을 계속하려 했으나 이내 교신은 완전히 끊겨버렸다. “이건 마치 우리가— ...” 이 열네 명의 사내와 그들이 탔던 기체는 어떤 흔적도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다.

불과 몇 분 이내에 구조장비를 모두 갖춘 커다란 미해군 비행정이 열세 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로 수면을 차고 내달았다. 길이가 약 25미터, 날개폭은 약 40미터나 되는 이 비행정은 거친 바다 위에도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실로 무적의 비행정이라 불러 손색없는 기종이었다.

그 비행정은 공중어뢰 폭격기들의 예상 위치로 향하는 동안 정기적인 교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20 분 후 모든 무선교신이 또 중단되었다. 공중 어뢰 폭격기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찾으려 갔던 , 특수장비와 특수요원을 탑재한 비행정마저 사라져버린 것이다.

해안경비대, 해군 , 공군, 그 모두가 서둘러 수색에 나섰다. 구멍조끼 또는 구멍보트에 의지해 떠돌고 있을 사람들을 , 또는 난파된 잔해를 찾기 위해서. 그렇지만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항공모함 하나가 그 지역으 로 이동했고 동이 틀 무렵 30 대의 비행기가 이륙하여 전 지역을 수색했 다. 우연히 부근에 있던 영국 공군도 기동 가능한 모든 비행기를 수색에 참여시켰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일말의 난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모든 비행기가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사라졌다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시간의 구멍'을 통과해 반물질 세계로 들어간 것이다. 수 세기 동안 남자들과 여자들과 동물들이 흔 적 없이 사라졌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이 같은사건들은 그저 최근에 발생한 우연이 아니다. 역사상 이런 일 들은 종종 있어왔다. 본격적으로 연구해보면 갑작스런 실종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저녁 농장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한 소년의 사례가 자세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땅 위에 눈이 몇 센티쯤 쌓여 있는 날 씨에 그 소년은 얼른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려고 양손에 물통을 들고 밖으 로 나갔다. 그의 부모와 친구들은 불가에 앉아 소년이 돌아*오길 기다렸 다. 그들은 차를 끓일 물이 필요했다.

얼마 후 소년이 너무 지체하자 엄마는 마음이 불안해졌다. 하지만 아 이들은 빈둥거리기 십상이라 한 시간 정도 더 기다려보았다. 하지만 결국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온 가족이 호롱불을 들고 소년을 찾아 나섰다. 혹시 우물에 빠졌는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호롱불로 눈 위를 비추면서 마당을 가로지른 소년의 발자국을 뒤따라갔다.

그런데 선두에 선 아빠가 깜짝 놀라 멈춰 서면서 뒤따르는 이들이 그의 등에 부딪혔다. 아빠는 옆으로 비켜서서 말없이 바닥을 가리켰다. 다른 이들이 내려다 보니 거기에서 소년의 발자국이 끊겨 있었다. 마치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이 사라졌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직선으로 이어지던 발자국이 갑자기 끊겼고, 그 후로 소년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흰한 대낮에 일어났던 또 다른 남자의 사례가 있다. 그는 아내와 보안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로 나갔다. 보안관에게 들에서 뭔가를 가져다주려고 말이다. 그런데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갑자기 공중으로 휙 사라지더니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레이널드 뉴스>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1938년 8월 14일자 발행물을 열람해보라. 이제는 노랗게 색이 바랜 종이장들을 넘기다 보면 영국 공군의 비행정 얘기가 나온다. 그 비행정은 영국 펠릭스토우를 벗어나 수면에 거의 붙어서 날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물기둥과 연기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어떤 충돌과 충격도 없었지만 비행기는 증발했고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1952년 3월 영국 공군의 볼드윈 중령은 비행정 찰대와 함께 한국의 해안을 날고 있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모두 신형 제트기를 타고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 떨어져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기지로 돌아온 동료들은 볼드윈 중령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흔적도, 비행기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동료

들 중 그 누구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사례들은 무척이나 많다. 예를 들어 1947년 미국의 폭격기(B-29, 나중의 B-50)가 무런 흔적도 난파의 잔해도 없이 사라졌다. 그것은 버뮤다 근처의 삼각해역을 날고 있었다. 이 폭격기는 아주 큰 비행기였는데 그대로 증발해버렸고, 철저한 수색이 이뤄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신은 영국남미항공 소속의 '스타 타이거' 사건을 기억하는가? 1948년 1월 30일, 이 대형 비행기는 버뮤다의 킨들리필드 공항에 자신이 섬에 서 약 64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무선보고를 보냈다. 비행기의 무선통신사는 날씨가 쾌청하고 비행 상태도 아주 순조로우며 예정대로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여섯 명의 승무원과 스물네 명의 승객이 사라졌고, 아주 철저한 수색에도 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약 50대에 이르는 온갖 기종의 비행기들이 그 지역을 살살이 훑었지만, !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자 런던의 로이드 보험조합이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아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사관들이 발표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결론은, 그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되었음'뿐이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1948년 12월, 대형 여객기가 산 후안(푸에르토 리코의 수도) 공항으로부터 플로리다를 향해 비행 중이었다. 승객은 서른 명을 넘었으며, 무선통신사는 만사가 순조롭고 승객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기지에 전했다.

오전 4시 15분, 무선통신사는 마이애미 관제탑에다 자신이 현재 80킬로미터 밖에 있으며 비행장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착륙지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비행기는 곧 사라졌다. 승객들과 기체가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졌다. 조사관들은 그 비행기의 기장과 승무원이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목적지를 불과 80 킬로미터 앞둔 곳에서 대형 비행기가 일말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만 더 살펴보자. 우리가 이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스타 타이거' 사건과 한 쌍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리엘'이라는 비행기였다. 아리엘은 버뮤다 기지와 교신했고,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으로 가는 항로에 있었다. 8시 25분, 아리엘의 무선통신사는 기체가 버뮤다로부터 28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상 없이 비행하고 있으며 무선국을 킹스턴 기지로 바꾸겠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지막소식이었다. 비행기년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당시 미해군은 버뮤다 부근에서 기동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미 이런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충분히 겪은 미해군과 공군은 비밀을 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두 척의 거대한 항공모함이 모든 비행기를 공중에 띄웠다. 순양함과 구축함, 소해정과 갖가지 함재보트들도 총동원되었다. 그렇지만 바다를 이 잡듯이 뒤져도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을 설명하자면 이렇하다. '시간의 균열'이란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통해 드물지만 사람들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 두 개의 커다란 축구공이 서로 가까이서 회전하는데, 각 축구공마다 그 안에 작은 균열이 있다고 하자. 어떤 이유로 두 균열 부위가 바짝 근접하게 되면 한 축구공에 있던 불운한작은벼룩은다른축구공의 균열 속으로 휩 옮겨질 수 있다. 이 세계와 반대 세계 간에는 이것과 흡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라. 여기 우리는 3차원의

아주 안전하며, 무엇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4차원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존재의 입장에서는, 천장이나 벽과는 무관하게 쉽게 손을 뻗어 우리를 집어올릴 수 있다.

차원의 문제는 따로 장을 마련하여 제대로 다루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예컨대 4차원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 말이다. 4차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차원들!

제 4 장에서는 4 차원을 다루는 것이 꽤 적절한 듯싶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면서 모두 4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덧붙이자. 강령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자주 '타계한' 이들로부터 받는 영터리 메시지에 당황하게 된다.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 다른 존재의 국면으로 간 사람들이 소위 수천 광년 후의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은 이 장 말미에 나오는 인도의 왕과 그의 딸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유사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먼저 무엇이 1 차원의 세계인가를 살펴보자. 1 차원의 세계를 모르면서 4 차원을 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종이 한 장과 연필을 갖고 있다고 하자. 종이 위에 연필로 직선을 긋고 그 흔적이 모두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직선은 우주 그 자체가 된다. 그곳의 사람들은 오직 앞과 뒤의 두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을 뿐 다른 길은 전혀 없다.

만약 당신이 그 선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1 차원의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는 종이를 살짝 누르고 있는 당신의 연필 끝을 보면서 비행접시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1 차원에 묶여 있어서 당신을 볼 수가 없으며 오직 종이와 접촉하고 있는 연필 끝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차원의 세계가 이해되었다면 이제 2 차원의 세계를 알아보기로 하자. 2 차원은 평면의 세계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필시 평평한

기하학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들이 존재하는 세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 세계와 아주 흡사할 것이다. 즉, 만일 당신이 그들 주위에 연필로 선을 그어놓으면 그들은 그 선을 커다란 담벼락으로 느낄 것이다. 그들은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며, 그 선이 어딘가 '다른' 차원에 속한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상상하듯이 말이다.

우리가 4차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듯 이 2차원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3차원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으리라. 만약 누군가 어리석게도 3차원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그들의 인식을 흔들어놓는다면 그는 곧 거짓말쟁이, 사기꾼, 날조자, 미치광이로 여겨져 격리당하리라. 2차원적 존재는 선들을 인식하지만 그것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2차원 속에 묶여 있기에 위에서 내려다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그토록 완고하지만 았다면, 과학자들이 모든 선입관을 떨어버리고 아무런 편견도 없는 시선으로 연구에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유명인사'들이 우리의 일상사에 지나치게 참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전쟁에서 장군으로서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는 곧장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진다. 또는 흥행한 영화 속에서 멋진 인물로 나온 배우가 내뱉은 대사가 — 실제로 그는 별 볼 일 없는 시내지만 — 우리의 머릿속에 깊게 저장된다. 우리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닦아사: 하고, 머리는 어떤 스타일로 잘라야 하며, 면도기는 어떤 제품을 써야 하고 심지어 어쩌면 그 배우조차 실제론 즐기지 못했을 성생활에 관해서까지 영향을 ^는다.

그런고로 우리 같은 형이상학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

한다는 점이다. 아인슈타인이나 러더퍼드와 같은 권위자들을 예로 들어 보자. 그들은 각자의 협소한 과학 분야바서만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낡고 세속적인 개념들과 모순덩어리인 물리법칙으로써 세상 만물을 분석하고자■다.

사람들은 저명한 과학자들의 말을 복음처럼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인기 있는 영화배우의 말을 복음처럼 받아들인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그 '복음'을 철석같이 믿는다. 그리하여 그 유명인사들이 열심히 감추고자 하는 진실들을 캐내는 일이 우리의 몫이 되어버렸다.

가장 기본적인 법칙조차도 실은 상대적인 것이다. 즉, 현시점의 지식으로는 타당한 법칙이라 해도 더 많은 지식이 축적된 후에는 유연하게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심지어 폐기될 수도 있다. 호박벌을 떠올려보라. 공기역학의 법칙에 의하면 호박벌은 날지 못해야 옳다. 왜냐하면 그 불쌍한 생물의 구조는 철저하게 공기역학의 법칙을 무시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과학자들이 말하는 기본 법칙을 믿는다면 우리는 호박벌이 날지 못한다고 믿어야 한다.

명성 있는 과학자들은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인간은 시속 50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는 결코 여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몸이 지나치게 긴장하여 혈류 체계가 붕괴하고 심장이 터지고 뇌가 망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시속 50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었다!

그게 이뤄지자 과학자들은 인간은 결코 날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것 또한 극복되자 과학자들은 인간은 결코 음속보다 빠르게 날지 못하리 라고 말을 바꿨다. 그들은 여전히 당당 하게 주장했다. 지금 그들은 인간은 결코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이미 그것

좀더 먼 과거로 돌아가보자. 1910 년 전후로 모든 지식인과 자칭 과학자들은 인간이 대서양 너머로 목소리를 보내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마르코니(이탈리아의 발명가)라는 신사분이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 증했다. 지금 우리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사진까지도 전기신호의 형태로 대서양 너머로 보낼 수 있다. 사실 이 정도는 오늘날의 텔레비전 방송 기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동의 법칙'으로 무장한 상투적이고 편협한 기성 과학자들의 말도 틀릴 수 있음을 이제 이해했다면, 이야기를 좀더 진전시켜보자. 그들의 가진 오류 중의 하나는 '두 개의 고체가 동시에 같은 공간을 점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건 엉터리고 전적으로 옳지 않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의 차원에서, 두 육체는 상호침투적으로 동시에 같은 장소를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존재하는 모든 물체가 커다란 공간을 사이에 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맑은 밤하늘의 별을 쳐다 볼 때 커다란 검은 바탕 위에 작은 점(별빛)들을 보게 되는 것과 같다. 그 러므로 만약 대단히 작은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체'로 바라 보는 것들을 '넓은 공간 안에 띄엄띄엄 있는 분자들의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피조물이 바라보는 우리 몸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보는 맑은 밤하늘의 모습과 비슷할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그것은 몇몇 광점이 있는 커다란 공간일 뿐이다.

이렇게 상상해보라. 어떤 거대한 존재에게는 우리의 우주가 '고체'로 인식될 것이다. 바이러스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당신이 바이러스 하나를 집어들어서 좀 허술한 용기 안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 가련한 생물은 용기의 밑바닥을 그냥 통과해버릴 것이다. 중간에 어떤 걸림도 없이

곧장 아래로 떨어져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크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실험실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주 작은 피조물의 시각에서는 '고체' 속 원자들 사이의 공간은 비교컨대 우리 우주의 별들 사이의 공간만큼이나 넓다. 그래서 수많은 혜성과 우주선들이 우주 공간을 여행하듯이, 우리가 '고체'라고 부르는 것들 끼리도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두 개, 세 개, 또는 네 개의 고체까지도 각각의 세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사이 공간을 점유하는 일이 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이런 현상을 일상에서 느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지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각 능력을 확장시켜야 한다. 어쨌든 3차원 속에 있는 우리가 4차원으로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지금은 이런저런 설명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두 개의 포크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라. 정원용 갈퀴든 식탁 포크든 상관없다. 당신은 한 포크의 창살들을 다른 포크의 창살들 사이로 지나가게 할 수 있다. 그 둘은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을 점유하지만 서로의 '생활공간'을 침해하지 않는다.

당초에 사람들은 물체에는 길이와 폭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정이 좀 나아져서 길이와 폭과 두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게 됐다. 여기서 길이는 1차원, 폭은 2차원, 두께는 3차원에 해당한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 우주에는 4차원과 5차원 등의 다른 차원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길이와 폭과 두께를 가진 3차원에다 '시간'을 더하면 4차원이 된다.

보통 사람들은 특수 장비가 있어야 적외선을 볼 수 있다. 적외선은

평범한 인간의 인식 범위 너머에 존재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길이, 폭, 두께를 초월하는 차원에 있는 물체는 3차원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 사람, 나무와 같은 3차원의 물체는 2차원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림자는 길이와 폭은 있어도 두께가 없으니 2차원이다. 그렇다면 4차원의 물체도 우리의 3차원에 일종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사람들이 목격한 '유령'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 4차원에 존재하는 무언가의 그림자일 수 있다. 유령은 분명히 3차원적으로 폭과 두께와 높이를 갖고 있지만 분명히 그림자처럼 어딘가 희미한 구석이 있다. 이처럼 4차원의 존재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3차원에 현시하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기만 한 일이겠는가.

더 나아가 신문과 방송이 좀 멍청하게 '비행접시'라 부르고 있는 물체에 대한 보도를 생각해 보자. 이 물체들은 아무런 소음 없이 엄청난 속도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한다. 그것들은 인간이 상상도 못할 속도로 방향을 전환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비행접시들이 4차원 물체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하지 못할까? 그것들이 방향을 전환하는 속도를 생각해 보라. 당신도 손에 든 거울로 햇빛을 벽에 반사할 때는 그 밝은 얼룩을 자유자재로 춤추게 할 수 있다.

인간이라는 종에 관해 완전히 무지한 어떤 존재가 한 장의 서리 낀 유리 맞은편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이쪽 편에 있는 인간이 그 서리 낀 유리에 다섯 손가락 끝을 갖다 댄다고 가정하자. 그때 반대편의 존재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므로, 그저 다섯 개의 거무스름한 얼룩만을 보게 될 것이다.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일종의 얼룩들을 보곤 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 모든 논의가 형이상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형이상학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알다시피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설 때라야 최고 수준의 진실을 지각할 수 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한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다. 시간은 인류가 스스로 편의를 위해 지어낸 인습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치과에 가서 이를 빼야 한다고 가정하자. 그 아픔과 통증이 지속될 때 시간은 마치 그 대로 머물러 있는 듯이 보인다. 당신은 치료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영원 한 듯 느낀다. 반대로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 주 즐거운 경험을 한다고 하자. 그때 당신은 시간이 날아가고 있음을 알 것이다. 이처럼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흐른다.

이런 차원 이론은 — 우리에게 실질적인 지식이지만 — 수수께끼로 치부되는 많은 현상들을 설명해준다. 물체가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동하는 양력 현상이 바로 그런 예이다. 이 현상은 2차원적 존재를 떠올려보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3차원에 사는 우리가 뚜껑이 없는 상자를 갖고 있고, 그 안에 2차원의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하자. 그들은 높이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위쪽이 열린 상태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어 그들 중 한 사람을 이쪽 상자에서 저쪽 상자로 옮긴다면 2차원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절대적인 기적으로 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3차원의 사람들은, 4차원에서는 명백하게 보이는 측면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4차원의 사람은 우리가 만든 밀실 안으

점에서만 밀실이기 때문이다. 그 물체는 3차원의 세계를 떠나서 잠시 4차원의 세계에 머물게 되며, 우리가 소위 '단단한 벽'이라 부르는 것을 문제없이 통과한다. 벽을 뚫고 들어온 전파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기기를 작동시키는 방식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시간은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라 부르는 그것은 사람마다 동물마다 다르게 인식된다. 동물들도 그들 나름의 시간개념이 있다. 그들의 시간개념은 인간과는 무척 다르다. 동물은 인간과 다른 속도로 산다. 인간의 시간으로 24시간밖에 못 사는 곤충도 70년을 사는 인간만큼이나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 곤충은 24시간 동안에 배우자를 얻고 가족을 부양하고, 그 후손이 또 다른 가족을 잉태하는 모습까지 지켜본다.

평균 수명이 20년인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의 20년은 인간의 70년에 해당할 것이다. 주어진 시간 동안 그 동물은 인간처럼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곤충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모든 생물이 평생 동안 거의 같은 횟 수의 심장박동을 보인다는 사실은 기억해둘 가치가 있다.

수 세기 전 현자들은 시간에 관한 이런 모든 개념을 알고 있었다. 동양의 위대한 '성서들' 중에는 <스리마드 바가바탐 SrimadBhagavatam>이라 불리는 신성한 책이 있는데, 거기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옛날 어떤 왕이 딸을 다른 차원에 사는 창조자 브라마에게 데리고 갔다. 왕은 그의 딸이 결혼 적령기에 도달했으나 아직 괜찮은 적임자를 발견하지 못해 몹시 걱정이었다. 왕은 딸을 위해 좋은 배필을 찾고 싶었다.

브라마의 집에 도착한 왕은 간청을 올리기 전에 잠시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그는 브라마의 말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아, 왕이여. 그대가 지구로 돌아가면 어떤 친구도 친척도 도시도 궁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오. 비록그대는 여기에 조금 전에 도착한 것 같 겠지만, 우리 시간으로 잠시라는 것은 지구 시간의 수천 년에 해당한다 오. 그대가 돌아간 지구에는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려 있을 테고, 함께 온 그대의 딸은 크리슈나 영주의 형제인 발라라마와 결혼하게 될 것이오. 그 러니 수천 년 전에 태어난 그녀가 수천 년 후의 발라라마에게 시집을 가 는 셈이오. 왜냐하면 그대가 지구를 향해 여행하는 동안 또다시 지구 시 간으로 수천 년이 지나갈 테니 말이오!”

이 말에 당황한 왕과 그의 딸은 지구로 돌아갔는데, 그들의 느낌으로 는 불과 몇 분밖에 흐르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문명을 발견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모습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종교도 달랐다. 브라마가 말한 대로 지구 시간으로 수천 년이 경과한 후였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쓰인 힌두교의 성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나는 이런 신화가 아인슈타인 박사로 하여금 상대성이론을 창시하게 하는 모종의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아마도 당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철저히 공부한 적이 없을 것이다. 아주 간결하게 말해서, 그는 시간을 4차원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시간이 한결같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다. 1 초가 60 번 지나가면 1 분이 되고, 1 분이 60 번 지나가면 한 시간이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편의상 정해놓은 기계적 수치일 뿐이다. 아인슈타인은 감각적 지각으로써 시간을 고찰했다. 동일한 대상을 봐도 사람마다 지각하는 색깔이 다르듯이, 아인슈타인은 어떤 두 사람도 정확히 같은 시간감각을 갖지는 않는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1 년을 365 일로 정의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주기에 지나지 않는다. 수성의 경우는 지구 시간으로 88 일에 한 번꼴로 태양을 돌며, 그 기간 중에 딱 한 번 자전한다. 반면에 당신이 알다시피 지구는 24 시간마다 한 번씩 자전한다.

당신이 숙고해볼 그 밖의 다른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당신은 움직이는 물체에 부착된 시계가, 그 물체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느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이 금속이든 목재든 도자기든, 좋아하는 재질로 막대기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자. 당신은 그 막대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길이를 잴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움직이는 물체에 부착한다

면, 막대기는 그 물체의 운동방향과 속도에 따라 다소 오그라들게 된다. 이 현상은 물체의 재질이 위축되는 기계적 현상이 아니다. 이 현상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관계가 있다.

당신이 1 미터짜리 막대기를 들고서 광속의 90 퍼센트로 우주 공간을 질주한다면, 그 막대기의 길이는 50 센티미터로 줄어들 것이다. 만약 속도가 더욱 높아져서 광속으로 질주한다면, 그 막대기의 길이는 0 이 될 것이다. 같은 원리로 움직임의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지면 시간의 흐름은 점 점 느려지다못해 완전히 정지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당신은 이렇게 투덜댈지 모른다. "차를 아무리 빨리 몰아도 차체가 오그라드는 일 따위는 생기지 않는걸." 이런 현상은 물체의 속도가 광속에 근접하는 수준일 때라야 탐지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새 자동차로 도로를 질주한다고 해서 차체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시속 150 킬로미터 또는 200 킬로미터로 달려봤자 차체 길이의 변화는 측정이 불가능할 만큼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우리가 광속의 속도로 우주선을 우주로 보낸다면 그것은 즉시 오그라들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결코 유체여행을 할 수 없어야 옳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안다. 인간은 결코 음속의 속도로 여행하지 못할 거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틀렸다. 인간이 결코 시속 50 킬로미터 이상으로 여행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처럼 그도 틀렸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통해 배워야 한다. 그래야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게 된다. 그러니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승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낱알이 기록되고 있는 우주선이 있다고 하자. 그 우주선은 거의 광속에 근접한 속도로 여행 중이다. 그 우주선은 지구로부터 특히 먼 행성을 향하고 있고, 그곳까지는 족히 10년이 걸릴 것이다. 즉 10광년의 거리를 가야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실제로 광속 여행이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는 미뤄두자. 이 우주선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곧장 다시 돌아온다면 이 여행은 총 20년이 걸릴 것이다. 20년이나 우주선 안에 갇히게 된 그 불쌍한 승무원들은 무척이나 갑갑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엄청난 양의 식량과 음료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그들은 갑갑해하지도 않으며 20년분의 식량도 필요가 없다. 우주선이 광속에 접근하면 선내의 시간이 느리게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승무원들의 심장박동, 호흡, 신체활동, 생각의 속도가 전부 느려질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0.1초 만에 일어났다가사 라진다면, 광속 수준의 여행자에게는 10초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그 승무원들은 하나의 생각을 10주 가량 지속할 수도 있다. 요컨대 지구에서는 20년이 흘러가겠지만, 우주선의 승무원들은 불과 몇 시간의 여행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대중이 알지 못하도록 미합중국이 애써 잠재웠던 사건이 하나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이 특별한 사건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만약 고위층에 있는 독자라면 미합중국의 해군기록을 직접 '파헤쳐볼' 수도 있으리라.

1943년 10월, 미합중국에서는 해군 함정을 보이지 않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실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는데, 왜냐하면 일부 과학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직 책(이론)에만 의존했기

당신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초강력 병기들을 제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중에는 아인슈타인이 루스 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로부터 비롯된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다. 그 편지는 통일장 이론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룰 필요는 없지만, 4차원 세계에 대한 일부 지식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만은 짚어두고 싶다.

이에 참으로 영리한 어느 박사님께서 통일장 이론을 활용하여 1943년 10월 미해군과 합동으로 어떤 차폐물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일종의 광선으로서 빈틈없이 구축함을 둘러쌌다. 그 빛은 광원으로부터 약 90미터까지 뻗어 있었는데, 속에 있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게 했다. 즉, 밖의 관측자가 봤을 때는 배와 승무원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불행히도 그 배가 다시 발견되었을 때 승무원들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이후에 의사들은 그들에게 펜토탈 나트륨(마취/최면용)을 투여하여 잠재의식을 파헤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썼다.

우리의 견해로는, 그 배는 4차원의 경로를 통해서 수백 마일 떨어진 체서피크 만(미국 메릴랜드 주와 버지니아 주 사이)에 다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유감인 것은 그 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해당 날짜의 신문철을 들추거나 라일리 크랩 Crabb 이 엮은《모리스 제섭 박사가 아엔데로부터 받은 편지들》* 같은 책을 읽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레 이 버커 Barker 가 출간한《제섭 박사가 수집한 이상한 사례들》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 U.F.O. 연구가었던 모리스 제섭 Morris K. Jessup 박사는 '카를로스 아엔데'라는 사람으로부터 서신을 통해 기이한 목격담과 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추적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것은 날조되었거나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잠재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특정한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은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보도기관을 잠재우는 데도 거의 성공한 듯했다. 그러나 부주의하게 흘러나가는 보도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 보도에 따르면, 갑자기 항구에서 배 하나가 홀연히 나타났고 낮이 나간 듯한 선원들이 비틀거리며 술집으로 몰려 들어왔다. 그런데 술을 주문하던 그 30~40 명의 선원들이 마치 증발하듯이 제자리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이 사건에 관심이 있다면 위에 언급한 책들을 꼭 읽어야 한다. 또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1944 년과 1956 년의 신문들을 살살이 뒤져보아야 한다. 당시의 보도를 들추어보면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이 실험에 앞서서 승무원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사전 준비 없이 낯선 시공간을 경험하는 것은 당사자의 마음을 흔들어놓기에 충분할 만큼 충격적

글과 그림 속에 의미를 숨기다

작열하는 정오의 태양열 아래 사막의 모래는 타는 듯이 뜨거웠다. 딱딱하게 굳은 제방 사이를 흐르는 어머니 나일 강조차 평소보다 흐름이 둔해 보였고, 강의 한복판에서 연신 수분이 증발하며 아지랑이를 피워 불모의 땅을 더욱 힘겹게 했다. 땀별 아래서도 일하는 인부들은 어찌나 무더위에 지쳤는지 하늘을 저주할 힘조차 없었다. 따오기 한 마리도 시들어가는 갈대 수풀 옆에 힘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이 열기는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위대한 존재들의 새로운 무덤을 뒤덮으면서 그 거대한 구조물과 갯돌사이에 칠해진 회반죽을 바싹 말렸다. 그리고 그 아래 깊숙이 비교적 서늘한 시체처리실에서는 몹시 여윈 노인과 나이 차이가 별반 없는 그의 조수가 향내 나는 약초를 죽은지 여러 달이 지난 시신 속에 채우고 있었다.

나이 많은 고위사제가 말했다. “나는 파라오가 사제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네.”

“맞습니다.” 조수도 씩씩한 말투로 수긍했다. “근위병들이 사원을 습격해서 몇몇은 체포하고, 몇몇에겐 경고를 내렸어요. 파피루스 꾸러미까지 압수해갔고요. 아주작심한 듯하던 걸요!”

“세상이 어찌 되려는지 모르겠네, 연장자가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땐 이런 일이 없었지. 세상이 결단나려는 거야. 그래, 결단나려는 거지!” 그는 한숨을 쉬며 약초 혼합물을 말 없는 시신의 구멍에 쑤셔 넣었다.

“어명이요!” 그때 근위대장이 부하들을 대동하고 고위사제의 공간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오며 외쳤다. “그대는 그분에 반하는 음모를 꾸미고, 그분을 해하는 마법을 몰래 걸러 했던 반체제 활동으로 피소되었소” 대장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곳을 수색하라. 그리고 모든 파피루스 문서를 압수하라 ;

고위사제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뇌까렸다. “더 높은 배움을 열망하는 이들은 잘난 체를 하면서도 진실을 알기를 두려워하는 무식쟁이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법이지. 그들은 우리의 지혜를 담은 문서를 없앴으로써 스스로 지식의 희미한 불빛마저 꺼버리게 될 거야.”

힘든 하루였다. 병사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근위대는 설쳐대며 혐의자들을 줄줄이 연행해갔다. 이웃들이 악의를 품고 그들을 밀고한 것이다. 노예가 끄는 짐마차들이 몰수된 파피루스 문서를 싣고 거리를 덜컥덕거리며 지나갔다. 그렇지만 그날도 끝은 있었다. 어떤 날이든 반드시 끝은 있다. 압제로 고통받는 희생자들에게는 마치 영원히 끝이 없는 듯이 보일지라도 말이다.

서늘한 산들바람이 일자 파피루스 갈대들이 메마르게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얇은 파도가* 어둑해져 가는 나일강 위를 너울거리다 햇볕에 달궈진 제방에 부딪히며 재차 물결쳤다. 강 하류의 집으로 향하는 뱃사공들은 그들의 널조각 돛단배가 바람을 가득 받아 속력을 내자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대낮의 타는 듯한 열기에서 해방되자 작은 생물들이 제방의 구멍에서 기어 나와 먹이를 찾으며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인간들도 또한 먹이를 찾고 있었다!

빛나는 보석 같은 별들이 어두운 창공에 흩뿌려졌다. 오늘 밤엔 달이 늦게 떠오르리라. 흙으로 지어진 오두막에서 희미하게 가물거리는 빛이

흘러나왔다. 밝은 빛은 드물게 부유한 집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거리에는 불길하고 공포스런 분위기가 가득했다. 어떤 술꾼도 빈둥대 지 않았다. 어떤 연인들도 나일강의 넓은 연안에서 손을 맞잡고 언약을 나누지 않았다.

오늘 밤, 왕의 심복들은 거리를 배회하면서 거친 '게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숙청이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학자들이든 사제들이든, 왕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에 대한 숙청이었다. 이날 밤에 문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다. 근위병들의 창끝에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었다.

그럼에도 도시의 후미진 곳에서는 말 없는 그림자들이 살그머니 민첩 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왕의 심복들이 모여 소란을 피우자 이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피했다. 그들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기 위해 모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몸을 숨겼다.

하늘에서는 영원한 별빛이 돌고, 땅에서는 근위병들이 요란하게 순찰 을 돌았다. 검은 그림자는 이내 하나씩 아무런 표시도 , 불빛도 없는 문 안 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방문객들의 정체를 확인 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마지막 남자까지 정체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들은 육중한 나무 걸개를 걸어 문을 단단히 잠갔다.

나이 많은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따르시오. 한 줄로 서고, 한 손은 앞사람의 어깨 위에 올리시오. 절대 소리를 내선 안 되오. 죽음이 우리를 몰래 추적하고 있으니까."

남자들은 발을 질질 끄는 소리와 함께 노인을 따라서 잘 은폐된 비밀 통로로 내려갔다. 그들은 경사진 좁은 길을 한참 동안 내려간 끝에 곰팡 내 나고 축축한 고대의 지하 납골당에 도착했다.

“여기는 안전하오; 나이 든 지도자가 소곤댔다. “그렇지만 괜히 말 소리를 높이지는 맙시다. 세트(이집트 신화의 악신)의 앞잡이들이 우리의 회 합을 밀고하면 안 되니까.”

그들은 장의도구들 한가운데 말없이 빙 둘러앉았다. 그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지도자의 말을 기다렸다. 그 노인은 눈이 나쁜 듯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펴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가장 소중한 재산들이 탈취당하고 불타는 것을 보았소. 우리는 권력에 미친 폭군의 사주를 받은 무뢰한들이 학자들을 박 해하고 지난 시대의 축적된 지혜를 파괴하는 사악한 광경을 목격했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유산을 건질 수 있을지 를 논의하기 위함이오.”

그는 날카롭게 주위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많은 걸 잃었지만 많은 것을 구했소. 우리들 중 몇몇이 잔혹 한 고문의 위험을 무릅쓰고 귀한 파피루스들을 쓸모없는 파피루스들로 바꿔치기했소. 그것들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소. 자, 누구든 좋은 생각 이 있^면 말해보시오.”

얼마 동안 가라앉은 목소리의 대화가 오갔다. 그들은 이런저런 생각 의 타당성을 서로 토론했다. 그러다가 북부 이집트 사원의 한 젊은 사제 가 일어나서 특이한 어조로 말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 이렇게 앞으로 나서는 제 만용을 너그럽게 용서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뜻으로 여기저기서 머리를 끄덕이자 그는 말을 이었다.

“저는 어젯밤 사원에서 종무 중에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바스테트 여신이 제 앞에 강림하시어 반박의 여지가 없는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

분에 따르면, 고대의 지식은 학식 있는 서기들에 의해 잘 감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신께서는 지난 시대의 지혜들을 섬세하게 지은 시뵘의 연에 숨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까막 눈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것이야. 그렇지만 선각자들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지! 여신께서는 그 방법으로 과거와 현재의 지식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불안한 듯 자리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에 연장자들은 토론에 들어갔다. 그리고 최고령자가 결론을 내렸다.

"그의 말대로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시구 속에 감출 것이요. 우리는 타로 Tarct 속에 특별한 그림들을 그려넣을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그저 카드놀이처럼 보이도록 꾸밀 것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지식의 빛은 다시 미래를비추어 밝히고, 새롭게 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은 운명대로 진행되었다. 고상한 뜻과 담대한 성품을 겸비한 후대 사람들은 시구와 그림 속에 담긴 가치 있는 지식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애를 썼다. 이에 신들은 미소를지으며 흡족해했다.

각각의 시대마다 사람들은 암호와도 같은 특수한 형태의 말을 사용해 왔다. 특히 운문은 독자를 매혹시키거나 휘방꾼을 미혹시키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 이처럼 적당한 리듬과 운율과 압운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일종의 심령체(Phychic entity)가 되는 데 필요한 잠재의식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다.

시를 읽을 때는 그 시인이 그저 가볍게 언어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들은 평범한 산문을 읽는 수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오직

많은 '예언자들'은 그들의 전언과 예언을 운문으로 적었다. 그것은 회의론자가 말하듯 그들이 평범한 언어로 기술하길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입문이 허용된 자들로 하여금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읽게 하기 위함이었다.

식견 없는 작가들은 —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 유명한 예언시들을 냉소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은 순도 높은 이야기를 쓰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의 낮은 충동에 영합하여 시장을 장악할 순 있다.

지금은 만인이 만인을 서로 끌어내리려 애쓰는 칼리의 시대이다. 지금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진실을 백안시하는 시대이다. 신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지만 지상에 있는 우리는 입장이 다르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전도된 속물근성이 횡행하여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뭐, 나도 그 사람만큼은 선하다구!"

우리는 윈스턴 처칠 경이나 루스벨트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름과 명성이 진흙 속에 처박히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남을 음해함으로써 악마 적 쾌감을 얻으려는 가엾고 능력 없는 인간들이 그런 일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편의 시를 읽고 침잠하여 그 배후의 진실한 의미를 찾아보자. 다음은 아주 유명한 티베트의 시 한 편이다. 이것은 그저 재미 있는 읽을거리가 아니라 특별한 뜻을 담고 있는 시이다.

죽음이 두려워 나는 집을지었죠
내 집은공\$이라는진실의 집입니다.
이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추위가 두려워 나는 외투를 샀죠.

내 외투는 스스로 열을 내는

외투입니다. 이제 나는 추^를

두려워하지 ^아요.

빈곤이 두려워 나는 부를 추구했죠.

내 부는 영예롭고 , 무궁하며, 일곱

겹이어서 이제 나는 빈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배고픔이 두려워 나는 음식을구했죠.

내 음식은 진실을 향한 명상의 음식이랍니다.

이제 나는 배고픔을 두려워굴지 ^아요.

갈증이 두려워 나는 마실 것을 구했죠.

내 음료는 바른 지식의 감주랍니다.

이제 나는 갈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태가 두려워 나는 동행을 구했죠.

내 동행은 영원한 행복의 공간입니다.

이제 나는 권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못이 두려워 나는 길을 추구했죠

내 길은 초월적인 합일의 길이랍니다.

이제 나는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다양한 열망의 보배를 알차게 가진 현자입니다.
그 어디에서 살든 나는 행복합니다.

곧 우리는 이 시의 내밀한 뜻을 탐구할 것이다. 그전에 또 하나의
시를 접해보도록 하자. 이것 또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티베트의
시이다.

〈충실하여라〉

내 이들아, 몸을 수행처로 삼으라.
몸이야말로 신성의 궁전이니 라.

지성을 교사로 삼으라.
진리를 담은지식이 성스러움의 시작이니라.

세상만물을 책으로 삼으라.
모든 것 안에 해방으로 가는 길이 숨어 있느니라.

무아경에 취함을 음식으로 삼으라.
고요함이야말로 신성의 닦은꼴이니 라.

내면의 열기를 옷으로 삼으라.
하늘의 여신들은 행복의 온기만으로 움직이느니라.

동무들을 버리고 홀로 머물라.
고독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집회이니라.

분노에 찬 적들은 상대하지 말라.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걷는 여행자이니라.

악마가 찾아와도 공의 명상에 전념하라.

마법의 유령은 마음의 창조물에 불과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더 접하기로 하자. 이것은 제 6 대 달라이 라마 가 지은 티베트 시인데 그는 참으로 박학한 사람이었다. 그는 작가요 예 술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지만 동양의 문화에 결정적인 자취 를 남겼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유형의 인물이 매우 드물다.

아래에 영어로 번역한 시가 있다. 누가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실제 티베트어의 의미를 전혀 옳게 나타내지 못했다. 작가들에게 큰 불행은 , 그들의 작품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 원래 전달하려 했던 생각 의 흐름이 제대로 옮겨지지 못한다는점이다.

〈내 사랑〉

내 마음이 향해 가는사랑하는 이여.

우리가 맺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대양의 깊은 밑바닥에 들어가

가장 뛰어난 보배라도 건졌으리라.

나는어느날길 위에서

내 고운 연인을 우연히 지나쳤다.
더없이 깊고 푸른 터키석은 저
멀리에 떨어져 있도다.
다 익은 복숭아 열매는 나뭇가지
저 높이에 달려 있도다.
그처럼 고귀한 출신의 아가씨는
생기와 매력이 너무나
넘치는구나.
불면과 갈등 속에서 밤은
흘러가고 내 마음은 갈피를 못
잡는구나.
내 삶은 생기를 잃었으니
낯조차 내 마음의 열망을 채워주진 못한다.
나는 지상에 내려온 신으로서 포탈라에 외따로 살지만
불량배와 환락이 주인인 도회지에서 머지않아 떠돌게
되리라.
흰 두루미여, 네 날개를 빌려다오.
리탕 Li Thang 까지 만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

이제 위대한 성자 밀라레파와 함께<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란 시를
살펴보자. 밀라레파는 수행자라면 이 시의 의미를 능히 이해하리라고 말
했다.

죽음이 두려워 나는 집을 지었죠
내 집은 공^s이라는 진실의 집입니다.
이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요.

이 시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면서 의미가 왜곡되었다. 신비전승에 의하면, 이 시는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던 한자리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는 외줄 타기를 하고 있으며, 전진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상승과 하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비록 지금은 여기 지구에 있지만, 죽은 후에 우리는 존재의 다른 단계에서 다시 태어난다. 즉, 지구의 존재 단계를 마치면 이어서 다른 단계로 건너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또 다른 능력과 기준이 주어진다. 예컨대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 단계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감각과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한 계속 앞으로 나아 가리라.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몸(집)을 만들었고, 내 몸은 공포이라는 진실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진실을 지녔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생에서 죽으면 다른 생으로 간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다. 영원한 죽음 따위는 없다. 죽음은 곧 재탄생과 같은 말이다. 나는 이 사실을 일말의 거짓도 없이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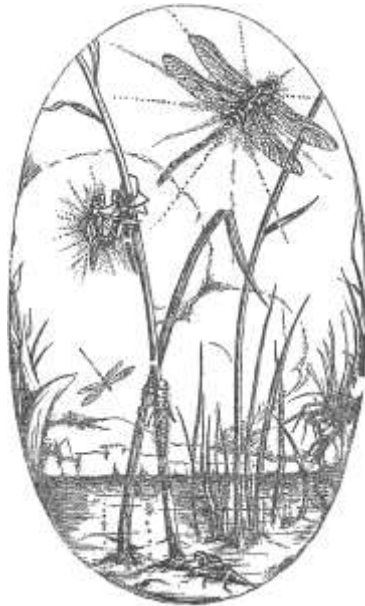
아주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나는 지상의 거주자로서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존재의 다른 단계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물론 안내자들에 의해 특별한 사전조치가 취해져야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동이 — 우리는 본래 진동체일 뿐이다 — 거기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려면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경험은 몹시 고통스러웠다. 눈이 멀 정도의 빛을 쏘이는 것 같았다. 백색의 뜨거운 화염을 지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았다.

그 상위의 세계에 가보니 나 자신이 마치 고등한 인간들과 마주친 달

팽이와 같은 처지처럼 여겨졌다. 지상에서 제아무리 위대한 과학자일지라도 그곳에 가보면 자신이 달팽이보다 못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 생의 끝마다 부단히 자신을 향상시켜야 한다. 나비 유충을 생각해보라. 나비 유충은 땅을 기어 다닌다. 그러나 나비로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원리에 의해 땅에서 기는 대신 공중을 난다.

잠자리를 생각해보라. 하찮게 보이는 잠자리 유충이 썩은 못 위를 애써 기어 다니다가 골풀이나 뽕죽 나온 가지 위로 천천히 오른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주 단단하게 들러붙는다.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 마치 죽어 부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침내 풀썩거리는 작은 소리와 함께 마른 껍데기가 쪼개지면서 불품 없는 잠자리가 나온다. 하지만 날개를 펴는 순간 잠자리는 햇빛 아래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공중으로** 솟아 멀리 날아가 버린다.



계속해서 다음구절을 보자

배고픔이 두려워 나는 음식을 구했죠.

내 음식은 진실을 향한 명상의 음식입니다.

이제 나는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물론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뜻한다. 의심에 휩싸인 사람은 뭘 해야 할지, 어디서 지식을 얻어야 할지 모른다. 회의에 빠진 사람은 좌절하고 불행해한다. "영적인 기아가 두려워 나는 지식을 추구했고 진실에 관해 명상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나는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확신하건대 당신은 이번 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은 내면에 지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 그 씨앗은 지금은 작지만 언젠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 나는 지금 씨앗을 심고 있다. 나는 어둠 속에 촛불을 켜고 있다.

오랜 옛날에는 전 인류가 이 같은 지식을 가졌었다. 그러나 몇몇 인간들이 그 지식을 남용한 결과로 암흑시대가 도래했다. 곳곳에서 배움의 촛불이 꺼졌고, 지식의 책들이 불태워졌다. 인간은 끝없는 무지와 미신의 나락에 빠져들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잘못이 두려워 나는 길을추구했죠.

내 길은 초월적인 합일의 길이입니다.

이제 나는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시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나는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몰랐다. 나는내가 갈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다. 그래서 나는 더 높은 세계에서 지식을 구했다. 나는 그 지식을 얻었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다양한 열망의 보배를 알차게 가진 현자입니다.
그 어디에서 살든 나는 행복합니다.

이 시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나는 높은 출처로부터 현명 하게 알아야 할 바를,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인간의 무한한 영적 삶에 비하면 지상의 삶이 눈 깜짝할사이에 불과함을 안다. 나는 어디에 거처하든 만족할 수 있고 , 그래서 나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

밀라레파는 위대한 성자로서 산속 동굴에 은둔한 사람이었다. 그의 조언을 듣고 그와 함께 공부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 점을 확실히 해두자. 공부하러 온 이들은 대가로 스승을 봉양했다. 그들은 동굴을 청소하고 의복을 챙기고 음식을 준비하고 가르침을 전했다. 많은 서양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 지식은 무료로 주어야 옳지. 사람들에게 뭘 가르친답시고 대가를 받는대서야!’ 그러나 이런 생각 은 나귀 같은 아둔한 무지의 소산일 뿐이다. 소유할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밀라레파는 진리에 충실하라고 가르쳤다. 밀라레파는 몸이 곧 수행처라고 말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속한 상이한 힘과 능력이 하나하나의 수행자라고 말했다. 몸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 그것은 초자아 또는 영혼

이 여기 지상에서 세속적인 일을 경험하기 위해 지은 집이다. 존재의 높은 단계에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불가능하다. 유일 한 해결책은 지상으로 와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당신은 자신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싫어 하고 있고, 또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 에 수긍할 것이다. 일터에서 누군가는 당신을 밀어내려 하고, 당신의 승진을 저지시키려 하고, 빈번히 악의를 품는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헌데 초자아는 바로 그런 불쾌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와 야 한다. 그 때문에 우리의 몸은 꽤나 내구력이 있도록 고안되었다. 육체는 과도한 충격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한다.

우리는 지성에 충실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실한 지식을 분류 하고 정리하여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아야 신성도 알 수가 있다. 거짓 경건함으로서의 신성이 아니라 참된 신성 말이다. 우리는 초 자아가 신체의 조종자이며, 신체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분노에 찬 적들은 상대하지 말라.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걷는 여행자이니라.

누구에게든 증오나 적의를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강한 증오를 느끼는 것 자체가 당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자리에 머물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남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팽팽한 외줄 아래로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지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종교들은 흔히 영원한 저주, 영원한 고통을 설

한다. 믿지 말라. 절대로 믿지 말라! 옛날의 사제들로부터 전해진 그런 가르침은 엄마가 이를 혼낼 때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제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아빠한테 일러 매를 맞게 할 거야!”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수준이었다. 그들은 이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위협이라도 해야 했다. 당신도 어린 자녀가 아침을 먹지 않겠다고 버틸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장 먹어야 해. 안 그러면 경찰 아저씨를 부를 거야.”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모든 경찰을 마귀처럼 바라보게 된다. 아이들은 경찰이 언제라도 자기를 붙잡아서 교도소로 데려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옛날의 사제들도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악마들이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이요. 악마들이 입에 담기도 무서운 장소에서 당신을 찌를 것이요.”

믿지 말라! 분명히 신은 계신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분명히 신은 계신다. 그는 선한 분이시다. 아무도 자신의 한계를 넘는 고통을 겪도 록 두지 않으신다.

우리 중 몇몇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다. 또한 나 같은 사람들은 단순한 기억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지식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억도 지식도 없는 이들은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지상에 사는 우리 존재는 10분의 9가 잠재의식이고 10분의 1만이 의식이다. 사실 동양에 사는 사람들은 서양 : 보며 10분이 1이 의식이라는 것조차 의심할지 모른다! 어쨌든 나는 여기서 초자아가 행하는 또 다른 일에 대해 좀더 설명하려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집단을 이루어 이 지상에 내려온다. 예컨대 어린 소녀가 태어났다고 하자. 그녀는 형제자매 또는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반푼이처럼 군다. 그 가족은 함께 있을 때만 제 역할을 해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에게 죽음은 더없는 간극이다. 그 소녀는 결혼을 해도 틈만 나면 친정으로 달음질을 칠 것이다. 이런 경우에 그 가족은 하나의 초자아에게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들일 수 있다.

둘 이상의 쌍둥이들도 종종 같은 초자아에 의해 조종되곤 한다. 상위 차원의 지도자들은 이번의 존재 단계가 곧 끝나고 다른 단계가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리지어 공부시키기 위해 하나의 초자가 아래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것 같다.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한 감독관의 통제하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한 상위 감독관의 통제하에 모든 감독관들이 움직이는 방식과 흡사하다.

우리는 종종 새떼들을 보는데, 대체로 약 50 마리의 새들이 한 개체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일제히 선회하며 방향을 바꾼다. 실제로 그 새들은 모두 한 개체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개미떼와 꿀벌떼도 한 개체에 의해 통제된다.

어쨌든 이 장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시의 운문 또는 일정한 리듬은 특정한 메시지를 잠재의식 속으로 침잠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인들을 예로 들고자 한다. 불행히도 그들의 시는 영어로 번역되면서 많은 힘을 잃었다. 본래의 이집트어는 운율이 뛰어나므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래의<마아트를 향한 고해>는 이집트어 원본만큼 뛰어나지 않았다. 본래 이것은 이집트신전의 '진리의 방'에서 읊어졌던 고해성사였다. 이것은<이집트 사자의 서>에 실려 있으며 신을 향한 탄원이었다. 마아트 Maat 는 '진리의 여신'을 가리킨다. 그래서 마아트•트의 방은 진리의 방 또는 진리의 신전을 의미한다.

이 진리를 향한 고해를 매일 밤 잡들기 전에 읽어보라. 이집트인들처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좀더 순수한 삶이 열릴 것이다. 직접 해보고 결과를 확인해보라.

〈진리를 향한고해〉

그대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오, 위대한신이시여 . 모든 진리의 주인이여 . 저는 그대를 찾아왔습니다. 오, 나의 신이시여.

저는 그대의 명을 깨닫기 위해 저 자신을 이리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대를 알기에 그대와 이 진리의 방에서 있는
그대로의 마흔두 가지 법칙에 순응합니다.

진리 속에서 저는 그대와 조화를 이루었고 제
마음과 영혼에 진실을 심었습니다.

저는 그대를 위해 불의를 무찔렀습니다.

저는 인류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가족의 구성원들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의와 진리의 장소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품행이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동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위한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예욕에 들떠 제 이름을내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없는 자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굶주림으로 고통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누구도 비탄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아무런 고통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전의 봉헌물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곡물의 무게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농지 에서 좀도독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영 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는 사람을 속이려고 저울로 단 후에 물건을 더 얹지도 않았고 사는 사람을 속이려고 저울 눈금을 엉터리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이 흘러야 할 때 물길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이 타야 할 때 그것을 끄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이 현현할 때 그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선언>

나는 순수하다! 나는 순수하다! 나는 순수하다!
나의 순수함은 성스러운 신전의 신성한 순수함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악은 나를 침범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신의 법칙을 알며, 실은 나 자신이 신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한 대로 특별한 메시지를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 넣기 위해 색다른 형태의 글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는 내가 만든 기도문인 데, 당신도 이것을 아침마다 세 번씩 반복해서 읽으면 좋으리라.

〈나의 초자아를 향한 기도〉

나로 하여금 날마다 명해진 대로 살면서 내

상상력을 통제하고 감독케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날마다 명해진 대로 살면서 내 욕망과

사고를 통제해 그로써 정화되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내 상상력과 사고가

이뤄야 할 과업에 집중되어 그로써 성공을 거두게 하십시오.

나는 항상 상상력과 사고를 통제하면서 날마다 내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외울 기도문도 필요하리라. 아래는 내가 특별히 만든 기도문이다. 이 내용이 밤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게 하라.

〈잠들기 전의 기도〉

저를 사악한 생각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저를 낙망의 암흑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제가 비참할 때에, 저를 뒤덮은 어둠 속으로 빛을 비춰주십시오.

제 모든 생각이 선하고 순수케 하십시오.

제 모든 행동이 다른 이들의 이익이 되게 하십시오.

제 사고가 적극성을 띄어 그로써 마음이 굳건해지게 하십시오.

저는 제 운명의 주인입니다.

오늘의 제 생각이 바로내일의 저입니다.

그런고로 모든 사악한 생각을 피하게 하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불행을 주는 모든 생각을 피하게 하십시오.

제 영혼이 제 안에서 일어나서 앞에 놓인 과업을쉽게 이루게 하십시오.

저는 제 운명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우소서 .

제 6 장 우리가 방문해야 할 세계

사납지 않은 비가 후두두 내리면서 오래된 시장거리의 검댕 묻은 석판들을 가볍게 씻어냈다. 이 비는 마치 과부의 눈물처럼 회색 하늘로부터 떨어지며 쓰레기통들을 고운 소리로 튕겼다. 그리고 저녁바람의 부드러운 일렁임에 맞추어 도로 위에서 춤을 추듯 흐느적됐고, 창문들을 두드렸고, 밑동이 콘크리트 보도에 박힌 앙상한 나무들의 마른 잎사귀를 적셨다.

자동차들은 불빛을 차도에 반사시키면서, 배수가 안 되어 지면에 얇게 고인 물웅덩이 위를 치익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낡은 회색 지붕에서 신나게 달음질친 빗방울들은 깨진 홈통으로 흘러들어가 닳고 닳은 돌계 단으로 떨어지며 툭툭■툭 소리를 냈다.

행인들은 종종걸음을 쳤다. 어떤 이는 날씨를 저주하며 목덜미 깃을 세우고 우산을 곤두세웠다. 우산이 없는 사람들은 황급히 신문지를 펴서 임시변통으로 비를 피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진창을 뛰어넘으며 마른 장소를 찾는 듯했다. 그리고 젖는 게 싫었는지 아니면 제 집에 돌아온 것인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조그맣게 열린 창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칙칙한 레인코트에 작은 검정우산을 쓴 사람이 모퉁이에 나타났다. 그녀는 가냘픈 체구에 허둥대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가로등 밑에 잠시 멈춰서 손에 움켜쥔 종잇조각을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불빛으로 주소와 호수를 꼼꼼히 확인한 그녀는 다시 바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기저기서 종종걸음을 멈추고 집들의 번지수를 읽었다. 마침

내 그녀는 작은 탄성을 지르면서 모퉁이의 집 앞에 멈춰 섰다. 잠시 둘러 보니 햇빛에 바래서 대문의 페인트칠이 벗겨졌을 만큼 초라하고 작은 집 이었다. 창들의 페인트도 갈라졌고, 석조 부분도 낡아빠진 모양새였다. 그렇지만 그녀는 , 이곳은 행복한 집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세 개의 작은 돌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이내 집안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문이 삐걱대며 열렸다.

그녀가물었다. "라이언 부인이세요?"

"네, 제가 라이언 부인이예요. 무슨 일이시죠?" 집주인이 말했다. "비가오는데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그녀는 고마워하며 우산을 접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젖은 코트 를 받아주는 라이언 부인을 살펴보았다. 라이언 부인은 마치 이 집처럼 나이가 들었지만 인생의 교훈을 잘 체득한 듯 보였다. 얼굴은 다정한 인상이었고, 손은 일을 많이 한 듯 거칠었다. 집안도 낡긴 했지만 가구들은 깨끗해 보였다.

가냘픈 여자가 몸을 돌리며 말했다. "아 ,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저는 하비 부인이라 합니다. 엘리스 부인이 당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간절히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라이언 부인은 그녀를 근심스런 표정으로 보며 말했다. "거실로 가시 죠, 하비 부인. 뭐가 문제인지부터 알아보시다." 라이언 부인은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작고 깔끔한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앉으세요."

가냘픈 여자는 안락의자에 주저앉았다. "프레드 때문이에요.' 그녀는 울먹였다. "5 주 전에 죽은 그이가 너무나 보고 싶어요." 지난 기억이 그 녀를 압도했다. 격양되어 눈물을 흐르자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무력하게 눈가에 갖다 댔다.

라이언 부인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 그대로 앉아서 실컷 울어요. 차 한 잔 준비할게요. 그때쯤이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라이언 부인은 방에서 서둘러 나와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곧 찻잔들이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너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 둘이 찻잔을 두고 마주 앉았을 때 하비 부인이 말했다. “저는 남편 프레드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는 5 주 전에 공장의 폭발사고로 즉사했죠.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밤마다 저는 그이가 제게 뭔가를 말하려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아랫입술을 짹 다물었다. 그리고 마루의 닳아빠진 카펫을 발로 문지르면서 손수건을 과민하게 비틀었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엘리스 부인이 말하길, 당신이라면 프레드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그이의 소식을 들었으면 해요!”

“부인.” 라이언 부인이 불안에 떠는 젊은 미망인에게 말했다. “우리는 오직 신을 기대하고 믿을 뿐이죠. 제가 때때로 이생을 떠난 이들로부 터 메시지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직 최고의 달인들만이 항상 텔레파시와 투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돕게 된다면 그건 신의 뜻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 또한 신의 뜻입니다. 그리고비용은...”

라이언 부인은 손으로 방 안을 가리켰다. “제가 많은 수고비를 받아서 사치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라이언 부인은 한숨을 쉬 후 덧붙였다. “다른 나라와도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듯이,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연결해주는 기계가 제작된다면 좋으련만. 하지만 회사들

은 그런 일에 흥미가 없답니다... 당신의 남편에 대해 말해보세요. 혹시 제가 그와 접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유품을 가지고 오셨나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충분히 위로를 받은 하비 부인이 미소를 띤 채로 일어섰다. “영매라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란 걸 이제 알겠어요. 쓰린 대가를 치르고야 알게 됐지만, 어떤 영매들은 그저 사기꾼에 불과하죠.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희망을 부추긴답니다. 그런데 부인은 완전히 다르시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이언 부인!”

나이 든 영매 라이언 부인은 하비 부인과 작별한 후에 가만히 문을 닫 으면서 중얼거렸다. “주여 ! 주여 ! 가짜들이 전부 몰려난 가운데 진실한 연구를 시도한다면 저세상과의 교신이 아주 쉽게 가능해질지도 모르는 데.”

그녀는 거실로 돌아가서 천천히 찾그릇을 치우며 한때 참석한 적이 있었던 강령회의 기억을 떠올렸다.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다. 주중이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없었고 , 내일의 장사를 위해 식료품 매대도 훑하니 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상점 들이 일찍 문을 닫은 대도시에서 서기 , 회계사 , 타자수, 여점원들이 쏟아 져 나왔다. 거대한 인파가 지하철 입구로 몰려서 노도와 같이 에스컬레 이터에 올라탔고, 역내를 따라 길게 늘어섰다.

깊은 터널에서 열차가 나오면서 부응부응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너울거리는 열차의 등불이 나타나자 뒤숭숭한 분위기가 군 중을 에워쌌다. 덩치 큰 사람들은 앞으로 밀고 들어갔고 작은 사람들은 거칠게 옆으로 밀려났다.

열차가 천천히 역내로 들어와서 제동기 소리와 함께 멈추자 군중이

앞으로 몰리며 객차 안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쿵 하면서 고무로 마감된 문들이 닫혔고, 둔하게 고동치는 공기압축기가 브레이크를 떼자 열차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벌써 다음 차례의 퇴근 인파가 지하도를 쏟아져 내려와 막비워진 역내에 양떼처럼 모여 섰다.

퇴근 인파는 점차 줄어들었다. 귀가 시간이 지나면 열차의 왕래도 다 소뜸해질 터였다. 물론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즐기러 극장을 찾거나 상가를 구경하러 나올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것이다. 아마도 밤의 여인들도 등장해서 어두운 문간에서 서성대거나 등불 밑에서 몸매를 과시하리라. 경찰들은 유유히 관내의 문단속 상태를 점검하고, 주차된 차들을 살피고, 수상하거나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감시하리라.

저 멀리 교외에선 사람들이 저녁식사를 물리고 일어서는 중이었다. 어떤 이들은 극장에 가려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한가한 저녁을 어떻게 보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강령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길 아래로 둘씩 셋씩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커다란 고택으로 향했는데, 그 집은 속세의 일로부터 초연하려는 노인네처럼 도로에서 다소 물러난 곳에 있었다. 고택의 외관을 가린 덤불은 손질되지 않은 채로 제멋대로 자란 것이 꼭 장발을 늘어뜨린 남자를 연상케 했다. 현관 위엔 갖 없는 전구 하나가 타죽은 날벌레와 곤충이 남긴 찌꺼기를 비집고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잠시 한 얼굴이 이층 창문에 나타나서 모여든 사람의 숫자를 세더니 잼싸게 커튼 뒤로 사라졌다. 현관에 모인 사람들은 큰소리로 인사를 나누었고, 처음 보는 얼굴에는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곧 문이 열리면서 가짜 진주 목걸이로 멋을 낸 큰 덩치의 뚱뚱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양손

을 비비며 사람들에게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세상에나!” 그녀는 교활하게 외쳤다. “신령님이 제게 오늘 밤은 기 록적인 인원이 모일 거라고 말해주셨지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는 옆으로 물러섰고 사람들은 어둑한 입구로 줄지어 들어갔다.

“사랑의 헌납물은 저기에 두세요.” 뚱뚱한 여자는 구석의 선반 위에 놓인 오목한 접시를 가리켰다. 거기엔 이미 은화 네 닢과 은행권 한 장이 놓여 있어서 사랑의 헌납물의 기준액을 암시해주고 있었다.

뚱뚱한 여자의 눈길 아래 사람들은 호주머니와 지갑을 뒤져 헌납물을 접시 위에 떨어뜨렸다. 접시는 빠르게 채워졌다. “바로 그래요!” 그녀는 점잔을 빼며 말했다. “우리는 영혼의 친구들이 소홀히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선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받는답니다 ;

사람들은 한 칸에 무대 같은 것이 설치된 큰 방으로 들어갔다. 불규칙 하게 놓인 딱딱한 목제의자들이 금세 사람들로 채워졌고 불안해하는 신 참자들은 자연히 뒤쪽으로 밀려났다.

뚱뚱한 여자는 육중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자리를 잡고서 조금하게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키가 큰 훌쭉한 여자가 등장하여 반쯤 감춰진 소형 오르간으로 찬송가의 첫마디를 연주했다.

“먼저 분위기를 바르게 하기 위해 찬송가 몇 곡을 부릅시다.” 뚱뚱한 여자가 말했다. “그 후에 일을 시작하자고요;

몇 분간 오르간 연주에 맞추어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다. 그때 뚱뚱한 여자가 양손을 명령하듯 휘저으며 말했다. “중지 ! 중지 ! 혼령들이 기다 려요!” 오르간의 송풍기가 바람을 비우면서 마지막 선율은 점차 잦아들 었다. 사람들이 편안한 자세를 취하려고 뒤척이자 가구들이 삐걱대는 소

리를 냈다. 불빛은 어둑해지다가 이내 꺼졌고, 곧 빨간 등이 켜지면서 기괴한 분위기가 모든 사람을 적셨다.

무대 위의 뚱뚱한 여자는 강충강충 뛰기 시작했다. “아, 애들아!” 그 녀는 교태를 부리며 소리쳤다. “기다려, 기다려, 차례대로 애길 해야지!” 오늘 밤은 말하려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아주 많네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조급해하네요. 오늘 밤은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받게 될 거예요.”

한동안 그녀는 무대 위에서 몸부림을 치고, 킁킁 웃고, 머리를 문질렀다. “이제!” 그녀가 드디어 소리쳤다. “그들이 재미있게 놀았대요. 그러니, 일을 시작하죠.”

주변을 돌아보며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메리, 혹시 메리라는 분이 안 계신가요? 최근에 소중한 사람을 잃으셨을 텐데.”

반신반의하며 누군가 손을 들었다. “여섯 달 전에 계부를 잃었어요.” 불안한 표정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분은 고통을 무척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확신해요.”

뚱뚱한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곤 한마디 했다. “예, 그런데 그가 자신은 지금 행복하며 그간의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군요. 젊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곤 옆의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다.

“스미스” 뚱뚱한 여자가 불렀다. “스미스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 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 죠? 이런 모임에서는 자세히 말하기가 곤란하군요. 그렇지만 당사자는 충분히 이해할거예요!”

앞쪽에 앉은 젊은 남자가 동의의 뜻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오늘 밤은.)이들이 주 활기차네요.” 뚱뚱한 여자가 말했다. “메

시지가 너무 많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타계했지만 아직도 영혼의 상태로 우리와 함께 있는 소중한 분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화기입니다! 기다려, 기다려, 뭐라고? 아! 제가 이 방을 장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헌금을 청해야 한다고 그들이 말하네요. 초라한 방을 방문하고 싶진 않다는군요 도와주시겠어요? 이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헌금하시지 않겠어요? 존스 양, 어서 접시를 돌리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자. 일정한 조건이 허락되면 '타계한'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일은 실제로 가능하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건대, 그들은 길거리에서 무리지어 어슬렁거리는 젊은이들처럼 마냥 앉아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실로 많은 메시지들이 영터리에 불과하다. 그것은 저급 령들로부터 왔거나 가짜 영매의 창작물일 뿐이다.

우리는 신비전승 또는 형이상학 분야의 아주 실질적인 위험 한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물론 순수한 의미에서 비술을 실습하는 사람은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는다. 우리가 직면 하는 커다란 위험은 바로 괴짜들, 별종들, 사기꾼들, 그리고 자신이 클레 오파트라 같은 인물의 환생이라 생각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 마도 클레오파트라 환생자의 숫자만도 뉴욕을 전부 채우고도 남아 미국 의 다른지역까지 흘러넘치리라.

잼 병에 파리가 껴듯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들이 비술에 몰려드는 것은 몹시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과대망상이 심한 괴짜일수록 품위 있게 진리를 탐구하려는 사람들에게겐 더 큰 위험요소가 된다.

강조하건대, 비술은 자연스런 일이고 거기엔 신비로운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 비술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사용법을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힘을 지녔다고 해서 모두가 마법 사인 것은 아니다. 그는 그저 모든 사람에게 있는 특정한 감각을 계발해 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근육을 갖고 있지만 역도선수의 근육은 종일 앉아서 지 내는 노부인보다 월등히 발달해 있다. 정치인의 목청은 가정주부의 목청 보다 확연히 발달해 있다. 모두가 근육과 성대를 가졌지만 그 기관의 발 달수준은 각자 다르다.

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과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누구도 비술을 단순한 곡예 차원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어떤 여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 오늘 멋진 남자를 만났어. 우리 집 으로 찾아왔더라고. 그는 아침엔 스페인산 양파를 팔고 오후엔 숙녀복을 팔지. 그리고 저녁엔 비술을 보여주는데 아주 기가 막혀. 한 손가락으로 지탱하면서 물구나무를 서서 차 한 잔을 마신다구.”

세상에서 고립된 어떤 불쌍한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 “난 비술에 관 한 책을 읽었지. 곧 나는 위대한 교사 , 대가로 출세할 거야.” 그래서 그는 낮에는 집집마다 영업을 다니거나 오만한 사장 밑에서 유순한 직원으로 일하겠지만, 밤에는 뒷방에 홀로 앉아 이상한 표정을 하고 눈썹을 찡긋 대고 시선은 코 옆으로 내리깔고 수상한 한숨을 쉬며 끙끙대리라. 아마도 그는 몇 가지 속임수를 배우고는 자신이 얼마나 멋지게 유체여행을 할 수 있는지를 떠벌리리라. 사실은 저녁에 상한 치즈를 먹었거나 과식을 해서 가위에 눌린 것에 불과한데 말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골칫거리다. 그들을 자기 자신을 위험하게 만든다. 단언하건대 , 무대에서 쇼를 하면서 그걸 비술이라 떠벌 리는 별종들은 진실을 배울 때까지 몇 번이고 지상에 다시 내려오는 대가

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인도에는 파키르라 불리는 고행자 집단이 있다. 그들은 성자를 자 처하며 인도를 돌아다니는데, 지각 있는 여성이라면 무조건 그들을 피해 야 한다. 그들은 무대에서 쇼를 벌이고 묘기를 부린다. 나라면 차라리 돈을 내고 관찮은 극장에 가서 마술 공연을 보겠다. 나는 더러운 사내가 땅에 웅크리고 앉아 구경꾼들에게 최면을 걸러 애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그것은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다. 오직 자신이 영혼의 영자도 모른다는 사실만을 드러낼 뿐이다.

인도인의 밧줄 곡예는 간단한 최면술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명인들은 최면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곡예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할 일 없는 구경꾼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진실로 말하건대, 나를 포함한 실로 많은 사람들이 공중부양을 목격했다. 공중부양은 신비로운 요소가 전혀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것은 자력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데 관한 문제일 뿐이다.

두 개의 막대자석을 양손에 들고 있다고 하자. 그 둘을 가까이 가져가면 쟁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서로 들러붙으면서 살점이 그 틈에 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석 하나의 극성을 바꾸면 그들은 필사적으로 서로 밀어낸다. 같은 극성끼리는 자기적으로 전혀 끌리지 않는다. 대신 그것들은 서로 반발한다.

공중부양은 우리 몸의 자기력 방향을 바꿔서 몸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약 60여 년 전에 영국에는 홈 home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시골집에서 실제로 공중부양 시범을 보였다. 세계적인 과학자 몇몇이 그 시범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 시범을 인정하면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법칙을 부정하는 셈이 되므로, 그들은 있

는 그대로를 발표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이 소동을 일으키기 전의 티베트와 중국에서는, 그리고 미군이 소동을 일으키기 전의 일본에서는 공중부양과 같은 일들이 순하게 행해졌다. 그러나 그것들은 서커스 곡예로서가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한 학생들의 과학적인 쿤달리니 수행에 의해 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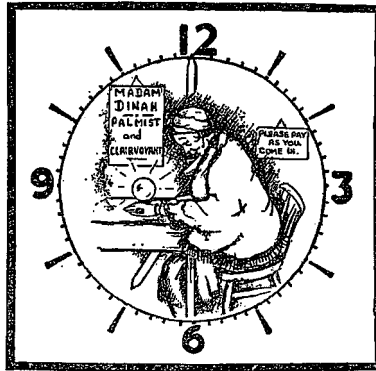
그러니 진실한 비술가가 되도록 하자. 한 손가락으로 균형을 잡는 시범을 보이겠다는 사람이나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무방비 상태의 군중을 미혹시키는 별종들을 철저히 의심해야 한다. 진실한 비술가는 정말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말고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

이런 별종들에는 '뒷골목의 천리안' 다이나 드립드라이 ^{DinahD} _y 같은 사람도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이 불쌍한 여자는 아마도 매일 여려 시간 물통과 자루걸레를 들고 마루를 닦을 것이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그녀는 터벅터벅 걸어서 — 버스는 특하면 파업이니까! — 집으로 걸어갈 것이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주 이국적인 스타일로 자신을 치장한다. 그녀는 몸에 화려한 장식을 두르고 야한 손수건으로 터번처럼 머리를 감싼다. 그녀의 방은 불빛이 어둑어둑해서, 고객들은 그 방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알지 못한다. 그녀는 그렇게 영업을 준비한다.

그녀는 어디선가 종종 수정구들을 구해오는데, 그것들은 볼거리로서 당당하게 진열되어 있다. 사람들이 그녀가 얼마나 멋진 여자인지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런데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보다 수정구를 더 철저히 깨 파괴하는 방법은 없다. 햇빛은 수정의 고유한 힘을 잃게 한다.

그녀는 바보 같은 고객들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는다. 그리고 보통 반대편에 앉아서 고객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시킨다. 그러면 대부



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심 없이 지껄인다. 그래서 그녀는그저 자신의 모습을 되비칠 뿐인 수정구를 들여다보면서 침울한 말투로 고객들의 말을 되웁는다. 그것으로 그녀는 대단한 천리안이라는 명성을 얻는다. 자신이 내뱉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고객들은 흔쾌히 그녀에게 돈을 내다.

돈을 위해 투시력을 발휘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투시가 는 애초에 가졌던 힘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투시기도 종 일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

는 일이다. “아, 오늘은 휴무일입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군요.” 그래서 다이나 드립드라이 같은 사람들은 수정구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 늘 그렇지만 — 뭔가 일을 꾸며내야 한다.

당신은 흔히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오늘 은 일에 집중이 안 되네.” 투시도 마찬가지다. 긴장하거나 흥분한 상태에 서는 투시력이 떨어진다. 제발 수정구 따위로 운세를 점쳐준다는 사람들 에게 지갑을 열지 말라. 그런 일을 상업적으로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하나 짚어줘야 할 사항은, 그 누구도 타인의 유체를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마치 커다란 달길을 놓기 직전의 암탉처럼 소란스러운 백치 여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전 당신을 알아요. 어젯밤 유체계에서 만났지요. 당신의 유체는 저 의 통제하에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최선의 방책은 흰옷 차림의 의료진들을 불러서 그 정신병자를 편안한 독방으로 이송하는 것뿐이다.

누구도 유체계에서 상처를 입지 않는다. 누구도 유체계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조종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한 어떤 나쁜 일도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특정한 조건과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최 면을 거는 일은 불가능하다. 물론 티베트의 밀교 사원에서 훈련받은 이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타 인을 돕는 목적 이외에는 그 일을 결코 시도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최면을 걸려고 시도하거든 그때는 그의 콧마루와 양 눈 사이를 똑바로 응시하라. 그를 똑바로 마주 보라.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저 스스로 최면에 걸릴 것이다. 이처럼 당신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술은 숨쉬거나 물건 들거나 걷기만큼이나 평범한 일이다. 당신은 서두르거나 부주의하게 굴지 않는 한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다. 물론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부주의 때문이지 걷는 행동이 위험해서가 아니다. 비술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질 위험조차 없으므로 걸음보다 더 안전하다.

사람은 이 지구를 떠난 후에 좀더 상위의 국면, 즉 진화된 세계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능한 영매만이 그와 교신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그는 이제 전혀 다른 시간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호주로 전화를 걸려면 그지역의 시간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한밤중에 전화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영매의 경우에는 몇천 광년 후의 미래로 간 사람을 불러야 한다! 그래서 경험 없는 영매들은 대개 '저급령'이라 불리는 존재들에게 현혹되기 십상이다.

사람들은 저급령이라는 존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아무튼 인간의 영혼과 닮은꼴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저급령은 원숭이처럼 인간을 흉내 낼 뿐이다. 그래서 유체계를 투시하지 못하는 영매들이 인간처럼 행세하는 저급령들에게 쉽게 미혹되는 것이다.

저급령들은 사악하다기보다는 부단히 반복된 사념에 의해 생겨난 형체일 뿐이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술을 마시는 사람의 생각은 온통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면 그의 에너지는 통제력을 잃고 마구 방사되면서 분홍색 코끼리 또는 점박이 도마뱀 같은 환상을 그려내게 된다. 이것들이 바로 저급령이다.

진화의 각 주기는 그 주기를 떠나려는 사람들과 새로 시작하려는 사

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존하는 영혼 또는 초자아들이 만 들어내는 삶의 파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 '파도'들은 나름대로 진화에 공헌하면서 저마다 본보기를 남긴다.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자와 예일 대학교 졸업자, 그리고 소년원 출신자가 저마다의 문화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삶의 파도가 계속 지나갈 때 무수한 사람들의 기억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치고, 그것은 유체계에서 단단한 피조물로서 굳어진다.

이 피조물은 다음 단계의 진화 단계 또는 주기가 와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겨진다. 그것에는 '신성한 불꽃'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지성이 없으므로 의식권 내에 들어온 일들을 모방하거나 재생할 수 있을 뿐이다.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다면 당신은 앵무새에게 말 몇 마디를 가르칠 수 있다. 앵무새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능숙하게 반복한다. 저급령들의 실체가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흥미를 가질 독자들을 위해 부연하자면 인류가 흑인종, 갈색인종, 황인종, 백인종등으로 나뉘듯이 저급령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 지구의 유체계에 둘러붙어 있는 저급령들은 주로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점성학의 일부 속성들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공기의 정령, 불의 정령, 물의 정령, 땅의 정령이 바로 저급령들의 네 가지 주요 유형인 것이다.

또한 마법사나 연금술사들은 조금 다른 표현을 쓸 것이다. 즉 첫 번째 집단은 땅의 신령, 두번째 집단은 공기의 요정, 세 번째 집단은 불의 도마뱀, 그리고 마지막 집단은 물의 요정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저급령과 자연의 영을 햇갈려서는 안 된다. 자연의 영은 나무와 식물의 성장을 관장한다. 그것은 식물의 생리작용을 돕고 과실을 맛깔스럽고 기름지게 한다. 자연의 영들에게는 그 나름의 초자아(Overself),

표현으로는 초영혼 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마누 라고 부른 다. 인종요■에도 마누가 있고, 나라에도 마누가 있고, 자연의 영에도 마누 가 있다. 바위의 영을 관장하는 마누가 있고, 나무의 영을 관장하는 마누 가있다.

오래전 고도로 훈련된 이집트의 사제들은 이런 마누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예컨대 고양이의 신인 바스테트는 사실 고양이들의 마누였다.

나는 인류가 여러 가지 진화의 파도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는 레무리안 종족이 있었는데 , 그들은 주로 본능과 열정에 의해 움직였다가 점차 세련된 정서를 발전시켰다. 다음에는 아틀란티안 종족 이 등장하여 세련된 정서를 점차 이성적인 마음으로 발전시켰다. 그다음 에는 아리안 종족이 등장하여 기능적인 마음을 점차 추상적인 마음으로 발전시켰다. 아리안 종족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 종족이 등장할 것인데, 이들은 추상적인 마음을 영적인 인식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영적 인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을 일곱 번째 종족은 우주의식을 성취하기 위해 더욱 진화해갈 것이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영매는 어딘가 다른 두뇌구조를 통해서 존재 의 다른 단계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라디오가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메시지를 수신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이 다. 영매는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다. 영매에 따라 수준은 다르지 만 , 그상태에서는 영매의 자의식이 억압되면서 다른 실체가 그로 하여금 특정 한 생각을 말로써 표현하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영매들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저급한 유체계에 머물고 있는 존재를택해서 '교통정리'를맡긴다.소위 '안내자 , 로볼리는그존 재는 경찰관 노릇을 하면서 장난기 많은 저급령들이 영매에게 해를 끼치

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영매의 초자아가 '안내자'에게 고삐를 쥐여주고 자리를 비키더라도 의자에 앉은, 또는 침상에 누워 있는 영매 자신은 정작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결과에 전전긍긍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영매는 자신이 영터리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작업의 요체는, 영매가 자신의 인격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다만 하나의 전화기로서만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죽음 저편으로부터 얻으려는 것은 영매의 편견 섞인 해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일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얻는 유일한 길은 혼령이 영매로부터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른바 타계한 혼령들과 접촉해서 메시지를 받고자 할 때 당신이 듣게 되는 것은 대개 두서없는 이야기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진화된 영혼들은 보통의 영매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차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이다. 시간을 앞질러 달려가서 대단히 멀리 떨어진 영혼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내는 일은 진정한 명인들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타계한 사람들로부터 진실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얻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이다.

영매가 하는 일은 사실 이렇하다. 천부적으로 기질을 타고난 한 영매가 죽은 사람들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고 하자.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낮은 수준의 유체계에 머물고 있다. 이른바 연옥, 즉 중간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병원에 비유하자면, 그들은 지상의 삶에서 겪은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

들은 병실의 침대 위에 누워 있으므로 병원의 전체 업무를 알 수가 없다.

당신은 막 세상을 떠난 이들을 돕는 임무를 맡은 안내자 또는 특수한 존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단지 병원의 미숙한 간호사 또는 청소부 수준의 정보만을 전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병원의 전체 업무를 파악할 수 없다. 즉 당신은 그저 병원 주위를 배회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워듣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성경에서 '연옥'이라 칭하는 낮은 수준의 유체계로 가게 된다. 그곳은 앞서 말했듯이 영혼들을 위한 병원에 해당한다. 거기서 우리는 이 조잡한 지구에서 견뎌야 했던 많은 충격들을 치유받는다. 우리는 자신이 지상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해 기력을 회복한 후에 쾌적한 '공원'으로 걸어 들어간다. 존재의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투약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말이다.

결론적으로, 사별한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영매란 영매는 다 찾아다니고 강령회란 강령회는 다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그 대상에게 커다란 해를 끼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 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날마다 찾아가서 괴롭히는 것은 오히려 그의 치료를 훼방하는 짓이다. 의사들은 그를 충분히 돌볼 수가 없고, 그는 충분히 휴식할 수가 없다. 당신이 그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할수록 치료 과정은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구름 위에서 하프를 튕기고 찬송가를 부르며 그저 앉아 있지 않는다. 그들은 지상에 있을 때보다 할 일이 더 많다. 그러나 계속 정신적 방해받게 되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 간부, 과학자, 또는 외과의사의 옷자락을 뒤에서 계속 잡아당긴다면, 그들은 도저히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없을 것이다.

아주 특별한 조건과 아주 특별한 안전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영매들은 결코 타계한 사람들과 함부로 접촉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접근이 영매들은 절대적으로 성실한 태도를 갖추고 그저 재미로만 저급령들과 접촉할 뿐이다. 스스로 저급령들을 상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한 여기에는 아무런 위험도 없다. 그렇지만 굳이 얼빠진 원숭이 무리와 장난을 쳐야 할 이유는 또 뭐란 말인가?

117장 생의 마지막 순간

개 한 마리가 귀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구슬피 킁킁댔다. 꼬리도 다리 사이로 축 늘어져 있었다. 그러다 갑작스레 불안한 냉기를 느꼈는지 녀석은 몸을 떨면서 음울하고 날카롭게 짖었다. 문앞에 움츠리고 있던 녀석에게 동조하듯 나뭇잎들도 살랑거렸다.

한동안 경계 태세를 보이던 녀석은 무슨 소리라도 날라치면 몸을 움찔거리다가 곧 낙담한 듯이 다시 주저앉곤 했다. 한번은 별떡 일어나서는 커다란 흠이 생길 만큼 문짝을 거칠게 할퀴기도 했다. 녀석은 마치 늑대처럼 머리를 뒤로 젖히고 날카로운 울음을 내뿜었다.

부드럽고 차분한 발소리를 내면서 집 모퉁이를 돌아온 노인이 말했다. “브루노, 브루노! 조용히 해.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주인님은 지금 몹시 아프셔.” 노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자, 날 따라오렴. 널 화분 창고에 묶어둬야겠구나. 그래야 말썽을 안 부릴 테니노 정원사는 호주머니를 뒤져 기다란 끈을 꺼냈다. 그리고 한쪽 끝을 개목걸이에 꿴고는 녀석을 구석의 덤불로 이끌었다. 개는 힘없이 머리를 떨어뜨리고는 경꺽대며 뒤를 따랐다.

“조지, 뭐가 잘못됐어?” 부엌 창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브루노가 뭔가를 알고 있어. 그게 잘못된 거지!” 조지는 대답하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여자는 뒤로 돌아서서 누군가에게 중얼거렸다. “거참. 말 못하는 동물이 뭔가를 알고 있다니, 그게 말이나 돼?”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창문을

등지고 일을 계속했다.

커다란 고택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도자기 그릇의 덜그럭거림조차 없었다. 정적, 마치 s 겨와도 같은 정적뿐 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전화벨이 따르릉 울렸고 누군가가 황급히 수화기를 낚아챘다.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사 램에게 남자는 무뚝뚝하지만 정중한 말투로 답했다. “아닙니다. 유감스 럽지만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의사가 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흥 분한 목소리와 차분한 대답이 오갔다. “네. 부탁하신 대로,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 즉시 선생님의 조의를사모님께 전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만치 떨어진 문에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딸랑하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소곤담 속에서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신부님, 오셨군요.” 나이 지긋한 여자가 말했다. “신부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모시고 올라가죠; 나이 든 가정부와 성직자는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넓은 계단을 올라갔다. 침실 문을 살짝 두드리자 낮은 목소리가 누군지를 물어 왔다. 이내 조용히 문이 열렸고 젊은 여자가 밖으로 나오며 문을 닫았다.

“의식을 빠르게 잃고 계세요.” 그녀가 성직자에게 말했다. “신부님께만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시네요. 의사 선생님도 자리를 비켜줄 거예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그녀는 침실로 성직자를 인도했다. 침실은 크고 넓었다. 이 방은 진정한 옛 시대의 유물이었다. 무거운 커튼이 높은 창문을 뒤덮어 소리와 빛을 차단하고 있었다. 벽은 고미술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까마득한 선조들의 초상화였다. 큼지막한 구식 침대 옆에 놓인 녹색 갓을 단 램프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몹시 여위고 연약했으며 피부는 색 바랜 양피지와도 같았다. 침대 옆에 앉아 있던 의사가 성직자를 보고 일어섰다.

“신부님을 무척 기다리셨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전 침실 밖에서 기다리죠. 상태가 몹시 안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바로 절 부르세요.” 의사는 목례를 하며 침대를 빙 둘러서 젊은 여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성직자는 주변을 둘러본 후에 작은 가방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의례용 물품을 꺼내기 위해서였다.

“아! 그것들은 필요 없어요!” 먼지처럼 메마른 목소리가 소곤댔다. “대신 이리 와서 제게 얘기 좀 해주세요, 신부님.”

성직자는 자리를 옮기고 허리를 굽혀서, 늙어 죽어가고 있는 남자의 양눈을 꼭 쥐고 말했다. “형제여, 당신의 영혼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노인은 숨을 헐떡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바로 제가 신부님께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젠 무슨 일이 제게 일어나는 건가요? 저승에서 저는 월 보게 되나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는 건가요?”

성직자는 조용히 답해주었다. 오직 그의 종교가 허용하는 또는 알고 있는 것들만을. 번민하던 남자의 호흡이 점차 얇아지고 희미해졌다. 성직자는 재빨리 문으로 달려가 의사를 손짓해 불렀다.

성직자는 의사에게 물었다. “중부성사를 행해도 될까요?”

의사는 침대로 가서 병자의 쇠약한 팔을 들어 올렸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다. 의사는 청진기를 귀에 꽂고 심장소리를 듣더니 언짢게 고개를 흔 들고 흠아불을 끌어올려 병자의 얼굴을 덮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댔다.

“알고 싶군요, 신부님. 저도 알고 싶어요. 삶의 저편이란 게 대체 뭐

서양의 종교는 그들 나름의 이유 때문에 죽음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죽음은 탄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장에서는 영매에 관해 다루었으니 이번에는 죽음을 다루는 게 적절할 듯싶다. 애초에 죽음이 없다면 영매들이 죽은 자와 접촉하려 애쓸 필요도 없을 테니까 말이다.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든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런데 이미 알다시피 죽음은 (또다른의미에서의) 탄생이다! 우리는 그것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태아는 따뜻하고 안락한 엄마의 뱃속에서 '죽음으로써' 차갑고 험한 바깥세상으로 나온다. 탄생의 고통은 곧 죽음의 고통이다. 그것은 옛 상태로 죽고 새로운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지상에서 겪는 죽음의 고통은 곧 새로운 존재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탄생의 고통인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죽음 그 자체는 전혀 고통이 없는 과정이다. 실제로 죽음이 임박할 때 자연은 체내의 신진대사를 변화시킴으로써 당사자를 일종의 마비 상태로 이끈다. 그저 육체의 반사능력에 의한 운동이 있을 뿐, '죽음의 고통'을 느낄 만한 지각작용은 이미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과 고통을 연관 지어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병을 앓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런 모습은 죽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암세포, 장기의 손상, 말단신경의 위축 또는 파괴 때문인 것이다.

죽음, 곧 이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의 — 물리적 신체를 떠나는 — 이

동과정만 따져본다면 자연스런 마비 현상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죽음의 과정을 전부 기억하고, 심지어는 그 기억을 가진 채로 지상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죽어가는 동안 우리의 몸은 점차 쇠락해간다. 그런데 이 '쇠락'이라는 말에 유념하라. 그것은 고통을 느끼고 인식하는 능력 또한 쇠락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그것은 일종의 착각이다.

사고사를 제외한다면, 죽어가는 몸은 대부분 내구력이 다한 상태이다. 그때 몸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쇠락한다. 부실한 기관을 재생할 신진대사 능력이 이젠 없는 것이다. 결국 심장이 멈추고 호흡도 멈춘다. 임상적으로, 법률적으로, 입술 앞에 거울을 갖다 댔을 때 입김이 서리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것이다. 또는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한순간에 죽는 것은 아니다. 두뇌는 심장이 박동을 멈추고 폐가 펌프작용을 그친 이후에 죽는다. 귀중한 산소공급이 끊기더라도 두뇌는 몇 분 정도 기능을 유지한다. 이렇게 두뇌까지 죽은 이후에는 나머지 신체 각 부분이 서서히 죽어간다. 대부분의 기관이 대략 하루 이내에 기능을 정지한다. 그리고사흘이 지나면 그것은 그저 부패한 원형질(세포를 구성하는 질료)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불멸의 영혼, 곧 초자아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자.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어떤 사람의 호흡이 방금 멈췄다. 그 자리에 투시기가 있다면, 그는 사자⁵시의 몸 위에 형성되는 희미한 안개 같은 구름을 볼 수 있다. 은줄은 사람마다 그 출구가 제각각이지만, 통상적으로는 몸의 배꼽 부위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구름은 한데 뭉치면서 점차 짙어지고 뚜렷해진다. 죽음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그 형태는 갈수록 육체를 닮아간다. 마침내 더 많은 기관이 쇠락함에 따라 그 구름은 더욱 짙어지며, 마침내는 기존의 육체와 꼭 닮은 형상이 뒹뒹 떠 있게 된다.

은줄은 물리적인 육체와 유체를 연결해준다. 그 구름이 바로 유체이다. 점차 은줄은 시들고 가늘어지고 흐릿해지다가 결국 끊어진다. 그제야 그 육체는 진정으로 죽은 것이다. 그제야 그 사자⁵ 때는 비로소 다른 생으로, 진화의 다음 단계로 날아간다. 일단 그 안개 같은 형상이 떠나버리고 나면, 남은 육체에 무슨 일이 생기든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화장할 수도 있고 매장할 수도 있다. 방법이야 어떻든 상관없다.

여기서 잠시 옆길로 새서 독자들에게 경고를 하나 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막 죽은' 사람들이 다음 단계의 삶을 거쳐 가는 과정을 심히 훼방하고 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가능한 한 그의 시신을 이틀 또는 사흘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시신을 장례식장 한구석으로 옮겨서 모셔놓고, 선량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도 없는 찬사를 늘어놓게 하는 것은 사자에게 명백히 해롭다.

은줄이 베어지고 금빛 주발이 부서질 때까지, 유체는 시신 주위를 떠돌면서 자신의 죽음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낸다. 더구나 시신이 사흘 이내에 화장될 때는 종종 극심한 충격이 유체에도 전해질 수 있다. 그 때 유체는 기이하게도 불타는 열기가 아니라 혹독한 추위를 느끼게 된다. 만약 당신이 앞서 간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가 사람들로 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죽은 사람의 유체가 시신과 분리되는 데는 사흘이 란 시간이 필요함을 꼭 명심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영혼 또는 유체가 육체를 떠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영혼은 다른 혼령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떠났고, 거기서 영혼들은 서로

를 단단한 실체로서 인식한다. 당신은 소위 '유령'을 투명한 또는 반투명한 개체로 보게 되는데, 이는 육체를 가진 인간보다 유령의 진동수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령들끼리는 서로를 단단한 실체로서 — 인간들끼리도그렇듯이 — 인식한다.

영혼은 그렇게 육체를 떠나간다. 그리고 진화된 영혼, 즉 사후의 삶을 이해하는 영혼은 도움을받아 '기억의 방'인 Hall of Memories 이라 불리는 곳

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선 과거 생의 모든 사건이 상영되고 모든 잘못이 점검된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것을 '심판의 날' 또는 '심판의 방'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관에 따르면, 가장 엄중한 심판은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한 심판이다.

불행히도 죽은 영혼이 사후의 삶을 믿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런 경우에 그는 마치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또는 거대한 검은 안갯속에 있는 것처럼 한동안 방황하게 된다. 그는 점점 더 큰 비참함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는 자신이 달라진 형태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아마도 생전에 배워뒀던 지식이 이때 도움이 되리라. 그것을 주일학교에서 배웠든, 교회에서 배웠든, 힌두사원에서 배웠든 상관없다. 어쨌든 뭔가를 떠올리게 해줄 사전 정보가 그에겐 실마리처럼 작용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 한 분파의 신도로서 자랐다면, 그는 천국과 천사에 대한 사념체들을 만들어왔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동양의 특정 지역에서 자라났다면, 그는 전혀 다른 유형의 천국을 상상해왔을 것이다. 예컨대 살아 있는 채로는, 육신을 갖고 있는 채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었던 모든 쾌락이 공짜로 주어지는 그런 천국 말이다.

우리의 주인공은 종교를 수박 겉핥기로만 맛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낸 사념체들이 득실대는 상상의 세계 속에서 한동안 머물게 된다.

천사들의 사념체, 아름다운 처녀들의 사념체 등등... 그곳의 모습은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런 상상은 무한정으로 계속된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온갖 오류들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천사들이 날개를 털갈이한다든가, 처녀들이 생각만큼 '흠 없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이곳이 그 대단한 천국 — 모든 사람이 금빛 후광을 두르고 있는 — 이 아님을 눈치채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긴 잠옷을 입고 구름 위에 앉아 마냥 하프를 연주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사념체들에 대한 의심,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심 말이다.

만약 우리의 주인공이 생전에 그다지 선량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진다. 그는 지옥을 상상해냄으로써 스스로 갖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 그는 온몸을 찢러대는 악마의 사념체를 만들어낸다. 그는 불, 황유황, 그 외 약제실에서나 쓰일 법한 지독한 재료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여기서도 곧 의심이 스며든다. 이 모든 고통이 대체 무엇 때문에 주어진다 말인가? 피 한 방울 없는 나의 형체가 어떻게 씌어 칼에 찢리고 뼈가 부러질 수 있단 말인가?

점차 의심이 커지면서 그의 영적인 마음은 이른바 영계의 '사회복지사들'과 접촉할 수 있을 만큼 열리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모든 연극적 요소들을 치워버린다. 그들은 그로 하여금 진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 죽음 저편의 세계가 생전의 장소보다 더 나은 장소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 준다.

이미 습관처럼 되어버렸지만, 한번 더 옆길로 빠져보자. 라디오 방송

실 마이크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다. 그가 “아”라는 한 마디를 내뱉는다. 그러면 그 음성이 마이크를 진동시켜 전기신호를 만들어내고, 그 신호는 여러 장비의 아주 구불구불한 통로를 거치며 훨씬 빠르게 진동하는 고주파 신호로 바뀐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상의 육체는 느린 진동의 평범한 목소리에 해당한다. 반면에 영 (Sp, 혼(Soul), 초자아(Overself) 또는 아트만 At_은 - 당신이 뭐라 부르든 간에 — “아”라는 음성정보를 담고 있는 고주파 라디오 신호에 해당한다.

이해가 좀 되는가? 물론 산스크리트어를 동원하거나 불교철학을 늘어놓지 않고 이것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쉬운 비유로서 설명을 계속하고자 한다.

죽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 모두는 죽음을 수없이 반복 경험한다. 마침내 우리가 지상의 ‘고통과 시련’을 벗어나게 된다고 해도, 즉 우리가 좀더 높은 단계의 존재로 성장하여 좀더 높은 차원으로 가게 되더라도, 거기서도 여전히 생사의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상위 차원으로 갈수록 탄생과 죽음은 점점 덜 힘들고 즐길 만한 일로 변해갈 것이다.

자, 우리가 아까 영계에 남겨뒀던 이 불쌍한 친구에게 되돌아가자. 어쩌면 그는 우리를 기다리느라 지쳐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영계 (world), 아니 더 엄밀히 말해서 아직은 유체계 (astral stage)에 속하는 이곳은 일종의 중간지대이다. 어떤 종교는 이곳을 ‘낙원’이라고 부른다. 지상을 떠나면 먼저 낙원으로 가게 되고, 천국 <Hea_은 그보다 더 멀리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았을 때의 얘기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제 영계로 들어가서 자신이 지난 생에서 어떤 일을 망쳐놓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는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지 못했

을까? 그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을까? 그가 평범한 인간이라면, 대답은 양쪽 다 그렇다이다. 그래서 그는 '기억의 방'으로 들어가서 지난 생을 상영해보며 자신이 얻은 과실과 성취, 미처 못 배운 것들을 점검하고 특별한 안내자들과 상담을 하게 된다.

여담이지만, 이 안내자들은 붉은 피부의 아메리카 원주민이거나 수염을 길게 기른 고대의 중국인처럼 낯선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자⁵ 병의 성향과 생각과 문젯거리 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그가 지나온 과정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좀더 진화가 되어 있고 좀더 훈련이 되어 있으므로, 이 남자가 앞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학생들이 진로상담가로부터 특정 직종에서 일하려면 어떤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지에 관해 조언받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논의가 있는 후에, 그가 다시 아기의 몸으로 지상으로 돌아가기에 적합한 조건과 상황을 선별하게 된다. 좀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으나, 그는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오직 배워야 할 교훈이 어느 성별에 더 적합하냐에 달려 있다. 현재 당신이 얼마나 남자다운 남자이든 또는 여자다운 여자이든 간에, 그 성별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에게는 입장의 전환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반려자가 무엇을 참아내야 했는지를 몸소 겪어봄으로써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다.

한 존재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다 보면 이윽고 이 지상에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도래한다. 그렇지만 지상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비참하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오해받는 몸

품격 있는 영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발효제라고 할 만하다.

지상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는 사람은 종종 가장 불운한 부류의 인간들로 여겨진다. 마지막 삶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는 행운이지만, 겉모습만 보면 청소도 필요하고 이사도 다녀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음 생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충분한 몫을 취하는 것이다. 죽은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생 전의 고통은 오히려 기쁨으로 탈바꿈되리라.

그들은 영계로 돌아가서 충분히 휴식한다. 그들은 확실히 그럴 자격이 있다. 그들에게 휴식이란 수년간 잠을 자는 것이다. 여기서 '수년'이란 지구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동안 그들은 회복되고 견실해지고 모든 측면에서 개선된다.

휴식 후에 그들은 상위 차원을 향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그래서 한 생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운 '위대한 예언자'조차도 그 너머의 진화 단계로 옮겨가면 새로운 능력과 기예를 배워야 한다. 처음 자전거를 산 소년은 그것을 타는 법부터 배운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타게 된 이후에는 오토바이에 도전한다. 오토바이는 자전거보다 조작법이 좀더 복잡하다. 오토바이보다는 자동차, 자동차보다는 비행기, 비행기보다는 헬리콥터의 조작법이 어렵듯이 우리는 점점 더 까다로운 일을 배워가게 된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의 90 퍼센트라고 해두자 — 유체 상태로 유체계 또는 영계로 들어간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소들이 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겠노라." 그의 말처럼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거소들' — 존재의 여러 차원들 — 이 있다. 그중지상에 가장 가까운 것이 유체계

이고, 그다음으로 가까운 것이 영계이다.

죽은 사람들은 자연히 영계로 가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유체계로 내려오므로써 밤에 잠든 지상의 사람들을 유체 상태로 만날 수가 있다. 이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면회를 가는 것과 같다. 영계에 있더라도 때때로 지상에서 어울렸던 친구들과 재회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꽤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체계 너머 영계에서는 오직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더 큰 위안이 되리라. 영계에서 당신은 당신이 혐오하는 사람이나 당신을 혐오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당신은 당신과 서로 끌리는 사람들만을 만난다. 당신은 조화, 친절, 배려,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들만을 만날 수 있다.

반면 유체계에서는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된다. 요컨대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밤에 유체 상태로 만나서 갈등을 봉합하곤 한다. 그들은 그때 유체계의 언어를 쓰기도 하고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 등 특정 언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들은 유체 상태에서 상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처럼 당신은 유체계에서의 만남을 통해 물리적 세계인 지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종 논의한다. 예컨대 당신은 애들레이드(호주 의 도시)에 사는 페니 아줌마를 유체계에서 만날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녀의 유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마리아 마틸다! 내가 며칠 전에 너한테 편지를 부쳤단다. 지상의 육체로 되돌아가면 내일쯤 그걸 받아보게 될 거야." 이제 당신은 아침에 잠을 깬 후에 페니 아줌마를 막연히 떠올린다. 그리고 우체부가 당신의 편지함에 들르는 모습을 별 감흥 없이 바라보고, 거기서 페니 아줌마의 편지를 발견해도

우리는 유체계에서 특정한 정보를 가진 영계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은 저 아래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쳤소. 그러니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버스에 부딪히게 될 것이오 버스에 치이기 전에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소. 당신은 이미 이번 생의 과업을 거의 성취했소;

유체 상태의 당신은 지상의 삶이 거의 끝났다는 말에 행복해한다. 그러나 지상의 육체로 돌아온 후에는 다소 침울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죽고 당신이 미망인이 되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어." 물론 아내는 기쁜 기색을 감추리라. 하지만 당신이 사무실이나 상점으로 나가오 나면 서둘러 금고를 열어 두툼한 보험증권들이 유효한지, 연체된 보험료는 없는지를 점검하리라.

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미래를 내다보기도 한다. 그는 유체계를 넘어서 우리가 '중심 영계_mary spirit wo_'라고 부르는 곳으로 — 아직 더 좋은 용어를 찾지 못했다 — 진입한다. 거기서 그는 아카샤 레코드와 '확률상의 미래'(Records of Probabilities)를 열람할 수 있다. 그는 한 개

인 또는 한 국가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은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다. 물론 몇 시 몇 분에 누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 정확히 예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국가 또는 전 세계에 앞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를 내다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장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상세히 다루었다. 당신은 죽음을 아주 유쾌한 사건으로 여기는 편이 좋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느끼는 감정처럼 말이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려해보기로 하자. 죽음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기대치가 현실과 일치할수록 더욱 행복한 경험으로 변모한다.

티베트에는 죽음을 다룬 책들이 여러 권 있다.《티벳 사자의 서》는 동양의 위대한 고전들 중 하나다. 이 책은 육체를 떠나 다음 생으로 여행을 떠나는 영혼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주 상세히 말해준다. 특별한 투시력이 있는 티베트 라마승은 사자⁵많은 옆에 앉아서 텔레파시로써 그의 육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단언하지만, 의심 많은 서양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동양인들은 죽은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일이 엄연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책에는 그 모든 것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죽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느낌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까지 말이다.

이집트인들에게도《이집트 사자의 서》가 있다. 그렇지만 당시 이집트 사제들은 독점적인 권력을 원했으므로 여기에 많은 상징물을 도입했다. 호루스(태양의 신)와 오시리스(죽음과 부활의 신)라던가, 영혼의 무게를 깃털과 함께 양팔 저울에 달아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것은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실제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맞은 후에,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실제로 오시리스 신에게서 심판을 받는 등의 기묘한 일들을 '마음속에서' 겪게 되었다. 마치 영혼이 새처럼 날갯짓하는 것처럼 보였고, 고양이의 신인 바스테트를 만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기억하라. 이는 진실로 나아가기 전에 부서뜨려야 할 우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현실을 망각하고 월트 디즈니 동화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특수한 종교 또는 철저한 무신론으로 인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 무얼 기대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스스로 지어낸 엄청난 환상에 사로잡히거나, 더 나쁘게는 무지로 인해

나는 당신이 아래의 연습을 열린 마음으로 실천해보길 당부한다. 당신이 사후세계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다. 그저 열린 마음으로 아래 내용을 숙고해보라.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시간 또는 두 시간 동안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명상하라. (우리는 바로다음 장에서 명상을 다룰 것이다) 당신은 이 지구를 떠날 차례가 왔을 때, 점차 차가워지는 — 그리고 불편하기만 한 — 몸뚱이를 고통 없이 빠져 나와서 그 늘어진 육신 위에 구름과 같은 형체를 형성할 것이다. 당신은 그 구름 속에서, 한 발 먼저 다음 생으로 떠났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텔레파시에 대해서 잘 몰라도 전혀 상관없다. 좀더 위대한 생을 향해 갈 때 우리는 저절로 그런 능력을 갖게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로 설명해두는 편이 좋겠다. 죽음의 순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 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러 나오길 바란다는 생각을 전송하라. 지금 기차를 탈 예정이니 언제쯤 역에 마중을 나와 있으라고 전보를 치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평화 속에 자신을 내맡기라. 당신은 가벼워진 느낌을 받을 것이다. 뻑뻑하게 옥죄던 방을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을 열라. 냉소하지 말라.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죽음의 순간에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연습해두라. 죽어가는 몸을 빠져나와 사후의 삶을 시작하는 과정을 연습해두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어떻게 요청할지 생각해두라. 그러면 때가 왔을 때, 당신은 죽음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으며 육체의 어떤 현상도 당신을 전혀 동요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리라.

고 또 가늘어지다가 미풍 속의 연기처럼 흩어져 버린다. 당신은 당신을 마중 나온 사랑하는 사람들의 팔에 안겨 위로 떠오른다.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는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당신이 기차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마중 나온 친구와 악수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대면할 때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죽음 너머에는 다만 평화와 위대한 진화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만일 사람들이 지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유쾌한지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하지 않을 것이다. 자살이 횡행할 것이다. 그것은 몹시 나쁜 결과를 빚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품고서 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의 '유혹'에 이끌려 자살을 범하지 않게끔하기 위한 자연의 장치이다.

죽음이 실제로 닥쳐오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러니 건강하게 사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기 지상에 붙잡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학생은 게으름 피우는 회사원처럼 어디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마음을 열라. 그리고 당신을 돕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간직하라. 기억하라. 지옥 같은 것은 없다. 영 원한 저주 같은 것은 없다. 파괴만을 바라는 복수심 많은 신 같은 것은 없다. 신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신은 선하다. 신은 사랑의 대상이다. 죽음은 선한 일이다. 죽음이 왔을 때 당신은 그것을 두 팔 벌려 반기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에 따라 실마갈 일이다.

약간의 시간과 인내심 , 그리고 믿음을 투자할 의향만 있다면 당신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진지하고 분명하게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탐구에는 희생이 따른다. 예컨대 당신은 파티를 포기해야 한다. 영화관을 포기해야 한다. 술집에서의 '한 잔'을 포기해야 한다. 당신은 은둔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나는 은둔자다. 나는 은둔자가 되길 택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힘을 갖게 되었다. 당신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들 중 많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거목의 가지들이 햇빛을 향해 허공을 더듬으며 위로 뻗어 있었다. 땅 위엔 그림자가 어둡고 길게 뻗쳐 있었는데, 태양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영원한 여행길을 걷고 있는 동안 그것은 점점 더 길어졌다. 생명을 부여하는 햇빛 아래 나무들이 몸을 녹이며 무성하게 자라났다. 무성한 나뭇잎 뒤에 숨겨진 가지에선 새들이 퍼덕이며 짹짹했고, 이따금씩 먹잇감을 찾아 다른 나무로 재빠르게 날아갔다. 나무 잎사귀가 우거진 어느 은신처에 서는 원숭이의 침입에 분노한 새가 날카롭게 깹깹 울음소리를 냈다.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 가지에서 가지로 그네뛰기를 하자 깹깹 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 마치 스위치라도 돌린 듯이 - 이 숲의 주 민들은 일제히 침묵하며 경계 태세를 갖췄다. 인간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허리 굽은 노인이 수풀 사이의 좁다란 길을 헤치며 걷고 있었다. 그는 마디진 손에 튼튼한 장대를 움켜쥐고 거침없이 터벅터벅 나아갔다. 그리고 두 젊은이가 작은 짐꾸러미를 들고 그 뒤를 졸졸 따랐다.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한 나무를 가리켰다. "저기서 머물자꾸나! 잠시 쉬고 나서, 나는 밤을 새워 명상을 하겠노라." 그들은 함께 작은 공터로 들어섰다. 불거진 거목의 뿌리로 인해 땅바닥이 우물투들한 모양새를 빚고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나무등치 아래 평평하고 큼직한 돌이 솟아 있는 장소를 발견했다. 그 위에 누워 느긋하게 몸을 굽고 있던 원숭이 한 마리가 사람들의

모습에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더니 수풀 사이로 몸을 숨겼다.

두 시종 중에서 나이가 더 어린 젊은이가 근처에서 시든 가지들을 조심스레 모아왔다. 그는 부드럽고 기다란 덩굴로 그것들을 단단히 묶어 일종의 술을 만든 후에, 그걸로 바위 위를 깨끗이 쓸어냈다. 다른 시종은 모서리가 날카로운 돌을 들고서 번들거리는 초록색 이끼가 잔디처럼 펼쳐진 곳으로 향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돌칼을 눌러서 아까 그 바위의 크기에 맞도록 이끼를 잘라냈다. 그는 이끼의 높이를 일정하게 정돈하고는 그것을 마치 카펫처럼 말았다. 그리고 더 어린 시종과 함께 그것을 옮겨 바위 위에 깔았다. 노쇠한 스승의 뼈가 거친 돌에 다치지 않도록 두툼한 쿠션을 마련한 것이다.

노인은 누더기가 된 승복을 여미고는 예상외로 민첩하게 푸룽푸룽한 쿠션 위로 기어올랐다.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해의 찬란한 빛살이 우거진 숲에 갖가지 색채를 비추었다. 햇빛은 이곳의 나무꼭대기엔 금박을 입히고, 저곳의 낮은 가지들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재빨리 두 시종 중 연장자가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다. 볶은 보리 약간, 쌀 한 줌, 작은 망고, 근처 냇가에서 떠온 시원한 물... 이내 빈약한 식사가 끝났고 식기들은 닦여서 짐꾸러미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명상을 하겠노라.” 노인은 결가부좌를 취하고 승복을 바짝 당기며 말했다. “방해하지 말 거라. 때가 되면 내가 알릴 테니

시종들은 공손한 자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바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서 승복으로 몸을 더 단단히 감싸고는 잠잘 준비를 했다. 어느덧 해는 지구의 테두리 밖으로 풀썩 떨어졌고, 부드럽고 향내 나는 진줏빛의 평온한 밤이 찾아왔다. 어둠은 숲 속의 야행성 동물들을 깨워 밤일을 시작하게 했다. 어디선가 꾸벅꾸벅 조는 새가 제 짝 앞에서

“쩍쩍” 하는 소리를 냈다. 아마도 머지않아 살찐 벌레와 달콤한 과일을 즐기는 꿈에 빠질 터였다.

연인들의 여신인 달이 하늘로 떠올라 잠든 세계에 그녀의 빛을 퍼부으면서, 밧그레하던 밤의 풍경은 서서히 광택 나는 은빛으로 바뀌어갔다. 밤의 부드러운 미풍이 잠에 빠진 아생화들을 깨워 낮의 악취를 지우고 신 선한 향기를 퍼뜨렸다. 시간은 마치 기어가듯이 천천히 흘렀다. 달은 저 멀리 지평선 아래로 빛을 낮추었고, 하늘엔 깃털 같은 구름이 잔잔하게 흘러^^.

노인은 곳곳이 앉아 아무런 움직임 없이 깊은 명상에 들어 있었다. 굴속과 미궁으로부터 나온 미물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계하다가, 별다른 위험이 없음을 깨닫고는 자신의 일을 계속해나갔다.

노인은 첫 빛줄기가 하늘을 획 스칠 때까지 곳곳한 자세로 명상에 잠겨 있었다. 빛줄기가 굽어져 어둠이 새벽의 갯빛으로 바뀔 때도 그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자고 있던 원숭이를 뭔가가 건드렸는지 어디선가 성을 내며 깹깹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식간에 빛은 더욱 밝아졌고, 밤공기로 차가워졌던 땅 위에 따스한 온기가 퍼져 나갔다. 나뭇가지에서는 방금 깨어난 새들이 짹짹대며 날개를 퍼덕거렸다. 아직 나무타기에 서툰 새끼원숭이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떨어져 추락하다가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아 몸을 부지했다.

시종들이 일어나서 눈을 비비며 잠을 쫓을 때까지도 노인은 계속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한참이 지나 뜨거운 햇별이 열기를 내리 쬐 즈음에야 긴 명상을 끝내고 간소한 아침식사를 들었다.

나이 어린 시종이 물었다. "스승님, 명상이 그리도 어려운것인가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단다." 노인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할 자격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자격은 있지만 방법을 알지 못한단다. 명상을 배우려 면
스승이 있어야 한다. 명상은 인간의 자아를 궁극의 경지까지 상승시키
는기예이니까;

노인은 생각에 잠겨 한동안 침묵하더니 나이 어린 시종에게 말했다.
"오늘은 혼자서 식량을 구해오너라. 나는 네 사형을 가르칠 것이니. 너
또한 자격을 얻었을 때 이것을 배우게 될 것이니라."

.....

사람들은 흔히 자기도 '명상을 할 작정'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 들
대부분은 명상이 무슨 뜻인지에 관해 실낱같은 개념조차 알고 있지 못
하다. 그들은 명상을 뭔가 신비스런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명상은 다른
형이상학적 기술들처럼 그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명상은 특정한 결
과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이유는,
그것의 기초적 훈련과 연구가 대부분 티베트와 인도 등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곳들은서양에서 문명이란 것이 발생하기도 훨씬 전에 화려
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다. 물론 고대 중국에도 고도의 문명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위대한 종교를 가졌음에도 전쟁의 기술에 너무나 많은 관
심을 쏟았다. 중국 문명은 공중에서 독화살을 소나기처럼 뿌려대는 군사
용 연월과 폭죽 같은 미덥지 못한 자산을 인류에게 안겼다.

중국은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부터 로켓과 같은 무기를 사용해왔다.
당시 그들은 '불덩어리'를 로켓처럼 멀리 쏘아 보냈다. 이 불덩어리들은

적진에 떨어져서 사람과 물자를 무참히 불태웠다. 중국은 또한 훌륭한 미술공예품들도 많이 남겼지만, 사실은 인도의 상징물들을 중국의 세계관에 맞게 개조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서 일본은 논외로 하자.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가 말해주듯이, 일본의 종교와 문화는 대부분 중국을 베낀 것들이다.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보여준 잔인성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그들은 확실히 세계를 거칠고 잔인한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 왜소한 민족을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이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거래에 의한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본 주제로 돌아가자. 우리의 커다란 난점 중의 하나는, 산스크리트어를 비롯한 동양 언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영어와 같은 서양의 언어로 옮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양의 언어는 구체적 인 사물을, 동양의 언어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데 적합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언어들 사이의 그런 간극을 제 대로 파악하지 못한 번역자는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중 한 실례가 '니르바나 Nivana'라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진정 동양 적 세계관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명상의 의미와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이 문제부터 짧게 언급해두고자 한다.

인도는 위대한 문명, 특히 영적인 측면이 대단히 발달한 문명을 갖고 있다. 사실상 인도는 이번의 진화 단계에서 진정한 종교들의 요람과도 같았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인도의 종교를 베끼고 변용했다. 고대 중국에서도 마오쩌둥이나 전젠 기술보다도 영성과 조상 숭배가 더욱 중요시 되던, 종교가*실로 번성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인들과 인도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교리를 너무나 문자 그대로 믿어버렸다. 그들은 그것만을 삶의 지표이자 길잡이이자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예컨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한 중국인 또는 인도인이 나무 밑에 앉아 한가로운 명상으로 허송세월하며 이렇게 생각 한다. “아, 이번 생은 그저 적당히 해두지 뭐. 다음 생에서 그걸 보상하면 되니까.” 이것은 지어냈거나 과장한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 지만 해도, 중국의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생의 채무를 다음 생에 갚는 다는 식의 거래가 이뤄졌었다. 당신은 서양의 대금업자가 — 그들은 스스로 격을 높여 ‘금융회사’라고 부르지만 — 오늘 빌려준 목돈을 다음 생에서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수락하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틀림없이 대단히 재미있는 회계기록으로 남으리라.

반복하지만, 동양의 언어는 주로 추상적이고 영적인 개념을 다룬다. 반면 서양의 언어에는 항공술, 돈(또는돈없음) 따위의 세속적인 주제와 결부된 단어들 이 많다. 따라서 서양인들은 ‘니르바나’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니르바나는 동양의 용어들 중 가장 오해를 많이 산 말일 것이다.

서양인들은 신실한 동양인이 그저 앉아서 꽃 냄새를 - 이 경우엔 연꽃 냄새를 — 맡으며 스스로 무휴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흔히 니르바나는 총체적인 삶의 적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곳, 또는 어떤 기억도 활동도 없는 무의 상태로 간주된다. 니르바나는 서양인들에게 완전한 진공[®]호의 표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하고도 철저한 무침의 상태를 지향하는 — 서양의 무지가 만들 어낸 오해이지만 - 동양의

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장소가 아니다! 무의 상태로 존재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평범한 서양인들은 명인, 대가, 스승 또는 깨달은 이빠가 애써 지향하는 상태는 모든 것을 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엇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우습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터무니없는 오해다.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곳이라면 당 연히 우리도 그런 곳에 존재할 수 없다.

명인, 스승, 대가, 깨달은 이(부처)... 당신이 뭐라 부르든 간에 그들은 니르바나를 추구한다. 하지만 니르바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욕망이 전부 제거된 상태를 뜻한다. 니르바나는 추 문과 거짓, 탐욕, 욕정, 그 외의 모든 결점을 없앤 상태이다. 깨달은 이들은 사악한 충동을 버리려고 노력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영혼을 복돋고 육체를 마음대로 떠날 수 있게 된다.

의식을 지닌 채로 유체여행을 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사고를 정화시켜야 한다. 그저 쓸데없는 호기심에 이끌리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자기확신이 있어야 한다. 의식의 완전한 통제하에 유체여행을 할 수 있으려면 거친 욕정과 욕망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동양의 많은 사람들은 의식을 지닌 채로 유체여행을 한다. 그들은 영적인 길에 들어서 있다. 그들은 여기에 성(성)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양의 경우에는 육신의 죄악이 영혼을 울리고 있는 동안에 의식적인 유체여행을 해내는 사람이 참으로 드물다. 영혼을 속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그릇된 방식의 성생활에 빠지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남녀끼리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남녀의 정상적인 성생활은 각자의 오라를 강화시킨다. 그때 그들의 오라는 투

명하면서도 선명해진다. 그러나 오직 동물적인 쾌락을 위한 성생활은 오라의 색채를 탁하게 만들고 파동도 약화시킨다.

그래서 동양의 신비전승에서는 영적 진보를 원한다면 그릇된 방식의 성생활에 탐닉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또 경고한다. 불행하게도 서양에서는 그 말을 동양의 구도자들이 성생활을 완전히 도외시한다는 식으로 잘못 받아들였다. 이것은 오해이다. 성생활은 두 남녀가 그걸 필요로 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면 전혀 해될 것이 없다.

인도와 티베트의 사원들에는 서양인들의 눈에 지독히 색정적이고 음란하고 외설스럽게만 보이는 그림들이 있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그 그림들을 보아도 전혀 민망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그림들이 암시하는 진짜 의미를 알고 있다. 성행위는 생명의 발현, 강력한 오라의 흐름을 상징한다.

또한 인도와 티베트의 벽을 장식한 그 그림들은 진실한 성생활과 그릇된 성생활을 비교해서 보여주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수행자로 하여금 그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확실히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릇된 방식의 성생활은 불쾌감, 불감증, 신경증을 불러오고 남성과 여성의 고귀한 천성을 억압한다. 반면 올바른 방식의 성생활은 그걸 필요로 하는 이들의 영적 능력을 높여준다.

수행자가 영적으로 진보하여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는 별다른 인간관계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 그는 성생활을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우려처럼 그가 성적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성이란 아주 실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해감에 따라서 그 경험도 강화된다. 놀랍게도, 다음 단계를 위해 이 지상의 삶을

그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확실히 배워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책 몇 권을 읽고서 스스로 위대한 전문가니, 대가니, 만물박사니 하며 떠드는 그 모든 별종에게 결코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책은 어떤 경험도 주지 못한다. 책을 읽고도 아무런 지식을 못 얻을 수 있다. 지붕 위에 올라서서, 이러저러한 사람의 책을 읽었으니 자신도 이젠 위대한 각자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이없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얼마 전에도 나는 자칭 위대한 교사이자 대가라는 호주의 교양 없는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아바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읽은 한두 권의 책과 피누라의 의견을 근거로 삼아서 꽤나 많은 이야기를 지껄였다!

오직 당사자의 경험만이 진정한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당신은 단지 비행에 관한 책을 읽었을 뿐인 항공기 조종사에게 당신의 생명을 맡기겠는가? 당신은 선박관리와 항법에 관해 통신강좌를 들었을 뿐인 선장과 선원이 지휘하는 배를 타고서 대양을 향해하겠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같은 논리로, 당신은 책 몇 권 읽었거나 통신강좌를 받았을 뿐인 사람에게 자신의 훈련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높은 보수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무엇을 공부하던 간에, 당신을 가르칠 사람을 신뢰 하기에 앞서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드디어 명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할 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명상이란 마음을 특수한 상태로 단련시키기 위해 고안된 특별한 집중법 또는 제어된 사고법이다. 명상은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방법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잠재의식과 기타 영역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그런 일종의 '사고의 틀(directed thought)' 이다.

명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명상은 마음을 일깨워 좀더 높은 의식 차원

을 알게 해준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좀더 자유롭게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명상은 특정한 정보를 찾기 위해 넓은 서재의 책들을 열람하는 과정과 같다.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종이몽치 속에서 세월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명상을 훈련하는 것은 영적 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규율과 훈련이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듯이, 올바른 규율에 맞추어 올바르게 훈련되지 못한 인간의 정신은 쓸모가 없다. 또한 스스로 명상을 할 수 없는 자가 쓴 책을 읽고 명상을 시도하는 것도 무익한 짓이다. 그저 동양의 우화들을 곡해할 뿐인 비술 ■ 抑 책들이 무수히 많다. 그 책들은 명상 의 명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쓴 것이다. 스스로 명상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상법을 가르칠 수는 없는 법이다!

기억하라. 많은 비기독교 국가에서는 참배자들이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꼭 명상을 한다. 서양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소위 '신의 계시란 것을 받기 위해 마음이 깨끗해지고 열리도록 명상을 한다. 그저 이런저런 소원을 이뤄달라고 중얼대는 식의 기도는 전혀 효과가 없다. 미인대회에 입상하거나 경마판에서 돈을 따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따위의 기도는 전혀 효과가 없다.

진정한 기도는 더 높은 차원의 정보를 받기 위해 마음속에서 사념의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명상으로부터 시작된다. 반복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신에게 "은총을 내려달라"고만 요구한다. 그러고는 기도가 한 번도 통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명상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명상은 아래의 네 가지 부분으로 이뤄진다.

1. 첫 번째는 참된 인격을 고양시키는 명상이다. 명상으로써 인격을 수양하면 좀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게 된다. 개인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직업적으로도 동료들과의 돈독한 유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일한다. 또한 명상은 정신적 포용력을 키워준다.

2. 두 번째는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이 단계는 육체를 초자아에 동조시키고, 다시 초자아를 국가적 차원의 '마누'와 동조시키는 것이다. 이 단계를 실행할 만큼 높은 수준에 이르려면 먼저 욕망을 벗어나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한다.

3. 세 번째는 앞선 단계들의 모든 혜택과 더불어서 비술*[■]의 지식들을 온전히 향유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통합적인 이해와 인식이 가능해진다. 통합적 인식은 단편적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통합적 자각이란 마음의 내적 성찰을 의미한다(그로써 초자아는 자신의 영적 조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4. 마지막은 비의적젠[■]의 명상이다. 이 단계는 지상의 관념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 단계는 우리의 지적 이해력 너머에 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은줄을 따라서 초자아에게로 인도되고, 다시 금줄^{olden} ^{Co}때을 따라서 위대한 실재 — 흔히 '신'이라 일컫는 — 에게로 인도된다.

그렇지만 처음 두 단계의 명상이 중요하므로 여기서는 그것들에만 집중할 것이다.

명상을 시작하려면 먼저 규율이 있어야 한다. 명상을 장난삼아* 해보는 것은 불장난처럼 위험하다. 당신은 어린아이가 성난 한 갑과 화약 한 상자를 가지고 놀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멋모르고 한 번은 지나치더라도 두 번은 안 된다! 마찬가지로 좀더 높은 단계의 형이상학을 실습하

고자 할 때 당신은 강한 절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호리호리한 친구 하나가 갑자기 아틀라스(신들을 배반한 죄로 하늘을 짊어지 게 된 신)처럼 근육을 키우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자. 그러려면 그는 일정한 훈련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당장 무거운 역기를 들어대고 24 시 간 운동에만 전념한다면 오히려 그의 몸은 망가지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명상 또한 '영혼의 훈련'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바티칸(로마교황청)을 향하는 미국인 관광객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명상을 시작 했다면 , 그의 열의가 사그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당신은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명상을 해나가야 한다. 반대로,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못할 만큼 경직된 친구의 경우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과도한 명상 훈련은 마음을 경직시킬 수 있다. 그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다.

이 모든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하고 싶은가? 정말로 이 주제를 파고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의 사항들에 주목하라. 명상을 하려면 하루 중에 절대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당신은 이른 아침을 그 시간으로 택해야 한다. 성직자들은 보통 아침식사 전에 명상을 한다. 명상 은 배부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잠에 빠질 수 있으니 침대 위 에서 명상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날 준비 를 하라. 자명종이 울리면 침대에서 빠져나와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러면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가려는 유혹을 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진지하게 명상하고자 한다면 , 방의 한쪽 구석을 '당신만의 성소'로 만들어놓으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방 하나

흰 천으로 덮인 작은 탁자를 놓고 그탁자 위에는 일종의 성상■ -에
 큰대 선한 삶을 상징하는 포 대 화 상 의 그림 -을 모시라.(우리는 지
 금 성상을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단지 상징물에 불과하다) 향로도 준비해두
 라. 명상을 할 때는 향에 불을 붙였다가 꺼서 연기가 적절히 피어오르도
 록 하라. 향이 다 타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미리 알아두면 거기
 에 맞춰 명상을 그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본격적으로 명상을 하려는 사람이
 라면 마땅히 명상복을 착용해야 한다.
 명상복의 목적은 우리를 외부의 영향력
 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
 상복은 전신을 완전히 덮어야 한다. 소
 매가 길고 헐렁해야 하며, 머리도 두건
 으로 감싸야 한다. 얇은 검은색 비단이
 좋으나 너무 비싸다면 검은색 무명천도
 괜찮다. 명상복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검은색 비단 상자 속에 넣어서 다른 옷
 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라.

이 모든 것이 연극 같다고 생각할지
 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
 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

* 비만한 체구에 배가 울퉁이처럼 튀어나왔다고 전해지는 중국의 선승禪僧으로, 잠동사니들을 쑤셔 넣은
 포대를 지광이로 메고 돌아다녀서 '포대호 h 상'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미륵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복
 덕원만▲■툼면한 인상 덕분에 불교미술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다. 역주.

법이다. 원하는 결과를 바란다면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 명상을 할 때는 명상복을 입으라.

성소와 명상복, 성상과 향[^] 준비됐으면 그곳에 조용히 앉으라. 앉는 자세는 중요치 않다. 꼭 결가부좌로 앉을 필요는 없다. 몸이 옥죄이거나 아프지 않는 편안한 자세면 충분하다. 특히 초심자들은 자세가 불편하면 명상에 집중하기 어렵다.

잠시 앉아 묵상을 하면서 다음 기도문을 반복하라.

나로 하여금 날마다 명해진 대로 살면서
내 상상력을 통제하고 이끌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날마다 명해진 대로 살면서
내 욕망과 사고를 통제해 그로써 정화되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내 상상력과 사고가
이뤄야 할 과업에 집중되어 그로써 성공을 거두게 하십시오.

나는 항상 상상력과 사고를 통제하면서
날마다 내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성소는 다소 어둑한 상태여야 한다. 완전한 암흑이라기보다는 갓 빛 정도의 그늘진 상태가 적당하다. 당신은 어느 정도의 어둠이 가장 알맞은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훈련을 하나 실행한다. 찬물을 채운 유리컵을 양 손바

닥과 손가락으로 — 단 윗면은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 잘 감싸줘 라. 이때 양 손가락을 서로 각지 끼워서 가능한 한 최대한 넓은 면적(컵의 옆면)이 당신의 손으로 둘러싸이도록 하라.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라. 그리고《선인들의지혜》(611 쪽)에 나오는 호흡법을 행하라. 숨을 깊게 들이쉬고 , 아주 오랫동안 길게 소리를 내며 내쉬라. 일부러 크게 소리를 낼 필요는 없지만 “르르르르르르 아아아 아아아아 RrTmTAnw” 하는 소리를 부드럽하면서도 분명하게 내뱉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진지하게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진지한 훈련 법이기 때문이다.

심호흡을 세 번 반복한 후에는 그대로 앉아서 , 당신의에테르가 그 자화⁵된 물컵 주변으로 마치 연기처럼 물러드는 모습을 몇 분 동안 지켜 보라. 당신은 아마도 일종의 아지랑이를 뚜렷하게 보게 될 것인데 , 그것은 푸른 담배 연기 또는 향의 연기를 연상시킬 것이다.

이 훈련을한주또는두주, 아니면 한두달동안 실행하면—그시간은 당신의 진지함에 달렸다 — 당신은 그 물속에서 어떤 생명력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력이 투입된 물은 마치 탄산수처럼 광채를 발한다. 그것은 은섬광, 빛줄기 또는 여러 색채가 소용돌이치는 모양새일 수 있다.

조급해하지 말라. 시간은 충분하다. 하룻밤 만에 떡갈나무를 키워낼 수는 없는 법이다. 진지하기만 하다면 당신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 물컵이 다채로운 빛을 발하고 회오리를 일으키는 소우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일정한 순서 또는 예정에 맞추어 명상을진행해야 한다. 명상의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염주를 준비해두면 편리하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획을 엄수하는 것이다. 당신은 늘 같은 방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명상복을 입어야 한다. 하나의 주제를 택한 후에 당신의 작은 제단 앞에 조용히 앉으라. 외부세계에 대한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고 당신의 주의를 내부로 돌리라.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하나의 생각이나 개념에 대해 명상하라. 집중이 잘 된다면 당신은 내면에서 어렵פות한 떨림을 감지하게 되리라. 그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 가냘픈 진동은 명상이 잘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다음은 권할 만한 몇 가지 명상 주제들이다.

1. 첫 번째로, 사랑을 주제로 명상하라. 살아 있는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친절할 생각을 품도록 하라.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친절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주 다른 곳이 될 것이다.

2. 두 번째로, 불행한 사람들을 주제로 명상하라. 그들의 슬픔과 비참함을 '나의 것으로' 느껴보라. 그리고 자비로부터 나온 진실한 공감과 연민을 - 그 빛들을 - 그들에게 보내주라.

3.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주제로 명상하라. 그들이 마침내 이뤄낸 성취와 번영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외부세계를 향해 사하라.

4. 네 번째로, 악을 주제로 명상하라. 죄와 병에 관해 명상하라. 정상과 비정상, 건강과 병든의 간극이 얼마나 좁은 것인지에 관해 명상하라. 한순간의 쾌락이 얼마나 덧없는지, 한순간의 유혹에 굴복했을 때 그 해로움이 얼마나 집요하게 들러붙는지에 관해 명상하라. 악과 연합했을 때 뒤따를 슬픔에 관해 명상하라.

5. 다섯 번째로, 고요함과 평정에 관해 명상하라. 일상의 일들은 전부 내려놓으라. 미움이란 감정도, 사랑이란 감정도 내려놓으라. 왜냐하면 지상의 사랑은 진리에 비하면 초라한 대체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그 자체를 바라지 말라. 부는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 때 유용한 수단일 뿐이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평온함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자신이 현재의 진화 단계에 맞추어 항상 최선을 다해 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 이른 이들은 진화의 길에 제대로 들어선 것이다. 그들은 내면의 지식에 의존하여 자기 자신을 생사의 수레바퀴로부터 떼어 놓는다.

이제 당신은 명상의 다음 순서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다. 그것은 '트랜스 trance 상태(몽환상태)이다. 더 나은 용어가 없어서 지금은 '트랜스'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 트랜스 상태란 '진정한 당신'(유체)이 육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명상 상태이다. 마치 운전자가 잠시 차에서 내린 것과^^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듯이, 차도둑들은 운전자 없이 주차된 차를 훔쳐간다. 마찬가지로 욕망에 물든 마음을 씻지 않은 채로 깊은 명상으로써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곧 다른 존재들의 '몸도둑질'을 부추기는 행위다. 따라서 트랜스 상태는 반드시 유능한 안내자의 지도하에서 훈련되어야 한다.

유체계에는 각양각색의 저급령과 형체 없는 존재들이 있다. 그들은 질 낮은 장난거리를 찾아 늘 주변을 헤맨다. 그들은 사람의 몸을 차지해서 장난을 치면 아주 즐겁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마치 자동차를 훔쳐서

도로를 질주하는 10 대들과도 같다. 그들은 나중에 차를 안전하게 되돌려 줄 생각이지만, 그전에 심심찮게 사고가 나곤 한다. 그래서 '제 3 자' 에 의 해 점유된 육체가 자주 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당신의 생각과 의도가 순수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침범당하거나 사로잡히거나 해를 입지 않는다. 두려움 그자체를 제외하면, 당신이 두려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신의 오라는 도난경보기가 집을 지키듯이 몸을 보호한다. 당신의 생각이 순수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몸을 점유하려고 수작을 부릴 때 당신은 즉각 은줄을 통해서 그 사태를 알 수 있다. 당신의 농부는 사과를 지키기 위해 늘 과수원을 감시하고 있다! 그 령지만 아직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다면, 몸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트 랜스 수준의 깊은 명상을 시도하지 말라.

나는 아주 강력한 안전 조치가 없는 한 최면술에 절대 반대한다. 미숙한 최면술사는 당신을 무사히 깨워낼 자신도 없으면서 당신을 트랜스 상태로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면에 의한 트랜스 상태는 수동적인 것이다. 그것은 피험자가 최면의 가능성을 충분히 믿고 최면술사의 강력한 암시들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다. 그때 피험자의 상태는 약간 사팔뜨기와도 비슷해진다. 왜냐하면 에테르체와 육체 사이의 동조상태가 약간 어긋나기 때문이다. 즉 육체와 에테르체가 더 이상 완전히 일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질 낮은 최면술사를 만난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을 여러 해 동안 괴롭힐 수 있다. 사람들은 통신강좌로 외과술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수술 실력을 갖춘 유능한 외과의를 찾아간다. 그러니 당신의 건강과 온전함을 위해 아마추어에게 자신을 맡기지 마라.

만약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최면이 필요해졌다면 당신이 사는 지역의 의학협회에 연락을 하라. 그들은 확실한 감독하에 훈련받은 윤리적 최면가를 알려줄 것이다. 내가 위험요소만 너무 강조하는 듯이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도 어쭙잖은 최면술사 나부랭이들이 저지른 거의 범죄에 가까운 해악들에 관해서 내가 받아온 편지들을 읽어보아야 한다! 기억하라. 최면에 걸릴 때 당신의 영혼은 의식의 동조상태로부터 밀려난다는 사실을.

영매들은 비몽사몽과 같은 일종의 트랜스 상태, 최면 상태로 종종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피암시성을 높이고 최면 상태를 유도함으로써 죽음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전화기' 처럼 이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선 장에서 형체 없는 존재들에 관해 이야기했던 사실들을 기억하라. 선량한 영혼들은 대개 너무 바빠서 때문에 메시지를 구걸하는 강령회 따위에 불려다닐 틈이 없다.

물론 특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양심적이고 잘 숙련된 영매는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서 — 그의 유체는 여전히 또렷이 깨어 있는 채로 접근해온 존재를 감시한다 —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이것은 사후세계를 자세히 연구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불청객의 난입이나 소음 등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주 특별한 형태의 비술적■, 인 트랜스 상태도 있다. 명인들은 그것을 '사원의 잠抑_e sleep}'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는 앞에 언급한 것들과는 전혀 유형이 다르다. 사원에서 모든 공부를 마친 수행자는 완전한 자각 속에서 스스로 트랜스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는 능숙한 운전자 이므로 모든 것을 제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는다.

려면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필요한 만큼의 경험을 쌓는 동안 그는 유경험자로부터 주도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물론 재미로 트랜스 상태를 시도해보더라도, 당신이 정상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보통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당신은 자신이 이내 잠속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체 없는 존재들은 당신을 침범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대한 위험요소가 두 군데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깨어 있는 채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갔다가 곧 잠에 빠진다. 그런데 이 '깨어 있음'과 '잠'의 틈새가 바로 당신의 약점이다. 이렇게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날 때도 마찬가지다. 알아둘 것은, 이런 위험요소는 최면술이나 트랜스 상태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할 뿐이지 밤에 잠 들고 아침에 깨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주도면밀한 안내자 없이 트랜스 상태를 시도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특별한 사원의 수행자들은 두 명의 라마승으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그들은 수행자의 모든 생각을 알 수 있으므로, 수행자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만한 요소를 사전에 단호하게 차단한다. 수행자는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혼자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는 일이지 허^^다.

보통 수행자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은 소위 '시각적인 트랜스_{nce of Vision}' 상태이다. 이때 그의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근육은 완전히 굳어버린 듯 경직된다. 그는 여전히 육체 안에 있지만, 마치 고성능 망원경을 갖고 탐 꼭대기에 오른 사람처럼 모든 사물을 크게 확대하여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놀랄 만큼 뚜렷하게

지켜^^.

'시각적인 트랜스' 상태는 육체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를 벗어나려면 '투사적인 트랜스(trance of _edion)' 상태를 훈련해야 한다. 이때 그의 육체는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무기력하고 흐늘흐늘해져서 보호자에 게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생 명 력 이 주 유유하게 흐를 뿐이므로, 호흡도 천천히 이뤄지고 심장박동도 크게 느려진다.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보다 보이는 것들이 전부 상상의 산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다른 존재들로부터 - 그것이 형체가 있는 존재든 그렇지 않은 간에 - 방사된 사념체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딘가에 평화롭게 앉아 깊은 트랜스 상태에 들었 다고 하자. 만약 자신의 의식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멋대로 방황하도록 내버려두면, 당신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사람 가까이로 갈 수가 있다. 그 러면 당신은 그의 주위에서 꿈틀대는 별의별 괴이한 동물들을 다 보고 겁 을 먹게 되리라. 그렇다. 그 줄무늬 코끼리들은 사념체로서 실재한다! 이 보다 더 나쁜 경우를 상상하자면, 당신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심중 에 살의를 품은 몹시 질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만약 그가 살기를 드러낸다면, 당신은 불쌍하게도 그의 사념을 마치 생생한 현실의 사건처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경련을 일으키며 육체로 되돌아와서 는, 살인 또는 그보다 더한 사건을 실제로 목격했다고 믿으면서 온종일 두통에 시달리게 되리라.

형이상학의 수행자는 진실한 실체와 상상의 산물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시 충고하건대, 합당한 이유 없이 트랜스 상태를 굳이 시도하려 들지 말라. 정 시도해야겠거든 이것을 꼭 기억하라. 깊은 트랜

스 상태 또는 유체 상태에서 당신을 험상궂게 노려보는 무서운 존재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저 그들에게 '난 네가 두렵지 않아' 라는 강한 사념만을 보내라. 그러면 그 피조물들은 곧 사라지리라. 그들은 다만 당신의 두려움에 기생할 수 있을 뿐이다.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물러^ㅅ다. ■

진정한 우정의 뜻에서 충고하건대 , 유능한 전문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게 최면을 맡기지 말라. 경험 있는 사람의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트랜스 상태를 시도하지 말라.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명상은 절대적으로 안전 하다. 명상 시에는 당신 자신의 모든 능력이 유지되므로 어떤 위해도 닥 치지 않는다. 그러니 명상을 하고 그 효용을 만끽하라. 최면술과 트랜스 상태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것들은지금 당신의 진보에 티끌만큼 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19장 유체여행

태양이 떠오르자 거무스름했던 밤안개가 갓빛으로 변하며 서서히 물 러갔다. 무성히 자란 풀밭 위로 축축한 덩굴손처럼 수증기가 한동안 피어 올랐다. 이곳은 코츠월드 구릉지대가 만들어낸 계곡 깊숙한 곳에 자리한 유서 깊은 "나불나불 지겔임(MuchNa) 때 마을이었다. 숲이 이 작은 마을 을 마치 집어삼키기라도 하려는 듯 경사지를 따라 길게 에워쌌고, 큰 거 리를 중심으로 작은 시내가 옛 문명의 모든 찌꺼기를 실은 채 반짝이며 경쾌하게 흘러갔다.

'나불나불 지겔임은 근처 습지의 노란 골풀로 지붕을 엮은 작은 돌 집들이 모여 있는 전형적인 영국 마을이었다. 마을 한쪽 끄트머리에는 공용 잔디밭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는 연못이 있었다. 마을에서 말썽을 일으킨 여자들은 긴 장대 끝 의자에 앉혀진 채로 그 흙탕물 속으로 처박히곤 했다. 그 연못가에는 평평한 바위로 된 작은 단도 있었는데, 아마도 산허리 어딘가에서 오래된 현무암 덩이를 옮겨놓은 듯했다.

이 마을에는 마녀가 잡히면 연못에 던져넣어 그녀가 가라앉는지 헤엄 을 치는지를 확인하는 관습이 있었다. 만약 익사한다면 그녀는 마녀가 아 니다. 만약 헤엄을 쳐서 나온다면 악마가 그녀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불쌍한 '마녀'들은 악마가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연못으로 계속 되던져질 수밖에 없었다.

5 월의 축제를 기념하는 기둥은 아직도 리본으로 장식돼 있었다. 왜냐 하면 마을의 젊은이들이 춤을 추면서 기둥을 돌고 언약& 니뉘던

이 바로 어제였기 때문이다.

날이 밝아옴에 따라 , 흙지붕의 틈새 또는 초가지붕의 굴뚝에서 조금 씩 연기가 새나왔다. 영국의 자작농들이 일과에 앞서 분주히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는 표시였다. 아침식사라 봤자 약간의 맥주와 마르고 거친 빵이 전부였지만. 그 당시엔 차와커피, 코코아같은 것이 없었다. 그들은 어쩌다가, 고작해야 1 년에 한 번쯤 고기란 걸 맛볼 수 있었다. 오직 부유한 가정만이 고기 맛을 알았고, 나머지 집들은 그저 이 마을에서 나는 것들만 을먹으며 살았다.

사람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자 마을은 시끌벅적해졌다. 집 밖으로 나온 남자들은 양의 우리나라 헛간으로 향했다. 또는 말을 잡아서 마구를 채 우려고 들로 나갔다. 여자들은 청소 , 먼지떨이 , 요리, 수선 등의 일로 집 안을 바빠 움직이면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를 궁리했다. 이 마을은 물물교환이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무 었을 갖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았다. 아마도 곧 외지의 행상들이 새로운 물건들을 가지고 이 마을을 찾아오리라.

아침의 밝은 햇살이 거리를 비추자 초록빛 둥근 유리로 된 창문들이 화사하게 반짝였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거리 끝의 한 집에서 헬렌 하이워드 여사가 뛰쳐나와서 자갈길을 쿵광쿵광 뛰어 내려갔다. 빠른 발걸음 탓에 그녀의 풍성한 치마가 흔들리면서 그 아래로 잉쪽에 고무 를 댄 헨 부츠가 얼핏 드러났다. 리본을 단 챙모자를 쓴 그녀의 얼굴은 땀 으로 범벅이 된 채 벌겍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겨울 강풍을 받으며 질주하는 범선처럼 계속 앞으로 내달렸다. 또각또각, 또각또각 , 또각또각, 또각또각.... 그녀의 뒤축이 매끄러운 자갈의 윗면을 때려댔다. 이따금 그녀는 황망한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로

고개만 뒤로 돌렸다. 마치 악마가 뒤쫓기라도 하는 듯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슬쩍 뒤를 살핀 그녀는 더욱 힘을내서 달려갔다. 거리 끝에 다다랐을 즈음엔 숨이 목까지 차서 그녀는 한동안 헉헉거려야 했다.

자갈길 끝에서 그녀는 오른편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다른 집들로부터 고고하게 떨어져 있는 약초 가게를 향했다. 그제야 그녀는 달음박질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납으로 테두리를 두른 가게의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가게의 옆쪽도 돌아보았는데, 약재상이 출타했는지 묶여 있어야 할 말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그녀는 앞으로 되돌아가서 세 개의 뚫아빠진 돌계단을 올라 단단한 나무문을 밀어젖혔다.

또각또각, 또각또각.... 그녀가 어둡고 침침한 집안으로 들어서자 조그맣게 벨소리가 울렸다. 사방에서 향내가 몰려왔다. 사향, 계피, 레몬, 백단향, 소나무, 그리고 그녀의 콧구멍이 인지할 수 없는 다른 이상한 냄새들까지. 그녀가 거기에 서서 혈떡이며 숨을 돌리고 있을 때 가게 뒷방에서 약재상의 아내가 나타났다.

“오, 아이다 셰이크!” 헬렌 하이워터가 말했다. “어젯밤에 그걸 또 봤어요. 그녀가 달이 떠오른 하늘 위를 날고 있었어요. 그것도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커다란 자작나무 빗자루를 타고 있었다구요.” 헬렌은 쓰러 질 듯이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이다 셰이크가 황급히 그녀를 카운터 옆의 의자로 안내했다. “이쪽이에요; 아이다가 말했다. “여기에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맥주를 좀 따라 드릴게요. 그러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헬렌은 연극을 하듯 긴 숨을 내쉬고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어젯밤에 나는, 잠옷차림으로 침실의 창문가에 서서 하느님의 영광스런 밤하늘과 달을 바라보고 있었죠” 헬렌은 말을 멈추고 다시 한숨을 쉬었다. “그런 데 갑자기 오른쪽 서 커다란 늑은올빼미가 나타나서 휙 날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그 올빼미가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직감했죠. 그래서 창밖으로 목을 빼서 오른쪽을 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몸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어요. 그때 난 생각했어요. ‘오, 저런. 밤길을 걷던 남자와 저 아래 모여 사는 집사들은 모두 하늘을 나는 사탄의 딸을 봤다며 겁에 질릴 거야 라고요.’”

아이다 셰이크가 맥주를 더 따랐고 들은 한동안 말없이 술을 마셨다. 이윽고 아이다가 말했다. “우리 도퀴드 목사님께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 해요. 그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실 거예요. 보닛 모자를 갖고 올 테 니 잠시 숨을 돌리고 계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가게는 남편의 조수더러 보라고 하면 돼요.” 아이다는 몸을 돌려 뒷방으로 급히 들어갔다. 헬렌은 아이다가 짊고 날카로운 어조로 지시를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곧 두 여자는 까치들처럼 재잘대며 샛길을 바삐 내려가 교구 목사관을 향했다. 훌륭한 목사이자 그들 영혼의 관리자인 도퀴드 사제를 만나기 위해서.

당시 런던으로부터 수 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지내던 흥포한 울지 Woolsey 추기경은 침대 위에서 불안한 듯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그는 대대적인 마녀 사냥을 통해서 왕위를 쥐락펴락할 권력을 얻고 왕자들까지 빈민처럼 헐벗은 생활을 하게끔 만들 계획을 진행 중이었다. 그는 런던에서 몇 마일 떨어진 햄프턴 마을의 시골저택으로 은퇴하면서, 그 저택을 런던의 왕궁과 견줄 만한 진정한 궁궐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훗날 자신의 이름이 속옷 상표로 쓰이리라는 사실을 알 리 없는 추기경은 쉬지 않고 몸을 뒤척였다. 아마도 그의 특별 조사관들이 지금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영국의 방방곡곡을 살살이 뒤지고 있을 터였다. 신의 영광과 구원이란 명목 아래, 마녀들을 찾아서 고문하고 회형에 처하기 위해서 말이다.

존경받는 추기경은 이 모든 일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쿠션에 등을 기대고는 깊은 만족감에 취해서, 나중에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궁리 중이었다. 비록 당장은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으므로 지상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다시 '나불나불 지껄임' 마을로 돌아가자. 두 여자는 도퀴드 목사와 작별을 고하며 일어섰다. 목사가 말했다. "그러면 두 숙녀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그미망인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에 신의 뜻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목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이다 셰이크와 헬렌 하이워터를 목사관 밖으로 안내했다.

그시간 이후로 몇몇 여자들이 은밀하게 소곤대면서, 을씨년스러워

보이는 마을 주변의 숲 속을 종일 응시했다. 그녀들은 쉬지 않고 머리를 끄덕이거나 가로저었고, 때론 앞치마 속에서 양손을 깎지끼었다. 영문을 모르는 남자들은 그녀들의 행동을 수상쩍게 여겼지만, 그저 여자들에게 이따금 찾아오는 달거리의 광기려니 생각했다. 저 아래 5 월제의 기둥 옆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빙빙 돌고 뒤펅키며 강충강충 뛰었는데, 그들은 곧 다른 마을의 방문객들 앞에서 시연할 새로운 춤을 연습 중이었다.

이내 밤의 땅거미가 모여들었고, 종일 노동을 한 남자들이 어둑어둑 해진 들에서 돌아왔다. 그들은지친 몸을 이끌고 자갈길을 터덜터덜 걸어 집으로 향했다.

교구 목사관의 어둠 속에 네 남자가 벽에 기대어 서서 들릴 듯 말듯 귓속말을 하며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이 한층 깊어지자 목사관 옆문으로 한 사람이 나왔다. 도퀴드 목사였다. 네 남자가 정중히 인사하자 목사가 말했다. "나와 함께 미망인의 오두막으로 갑시다. 조사관들에게 전령을 보내두었습니다;

그들은 성큼성큼 마을을 통과하고 숲을 향해 나아갔다. 약 20 분쯤 걸렸을까. 그들은 소나무가 우거진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이젠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다. 앙상한 가지들 사이를 비집고 내려오는 밤하늘의 희미한 자줏빛 조명에 의지할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곳 지형에 익숙했으므로 더듬거리며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소리를 내지 않고 계속 숲을 헤치며 나아갔다. 그리고 드디어 개간지에 접근하여 한 무더기의 개암나무 잔가지와 목탄 부스러기를 지나쳤다. 왼쪽으로 길을 돌자 그들의 눈에 오두막의 흐릿한 윤곽이 들어왔다. 그들은 더욱 경계하면서, 개간지 너머 오두막을 향해서 용의주도하게 발끝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일렬로 창문가에 다가섰다. 커튼을 치긴 했으나 가느다란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목사가 앞장서서 창가 틈새에 눈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무를 베어 손수 만든 가구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초라한 집안이었다. 송진이 똑똑 떨어지는 소나무 옹이가 타면서 집안에 불을 밝히고 있었다. 널름대며 툭툭 튀는 그 불빛 옆으로, 늙은 노파가 방한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목사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녀는 뭔가를 웅얼거리고 있었다. 목사는 한동안 그대로 서서 지켜보고 엿듣기만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박쥐가 덤벼들며 한 남자의 머리카락을 형클었다. 그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다가 공포에 질려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목사와 다른 세 남자는 망연자실했다. 그때 오두막의 문이 삐걱 열리며 파가밖으로 나왔다.

목사는 제정신을 되찾고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고함쳤다. "사탄의 딸아, 너를 잡으러 왔다!" 자신에게 닥칠 일을 직감한 노파는 겁에 질려 반쯤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목사의 신호로 다른 세 남자가, 아니 고꾸라졌던 남자까지 네 명이 노파에게 달려들었다. 그중들은 그녀의 양팔을 뒤에서 거칠게 붙잡았고 다른 둘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집안 살살이 뒤졌지만 마법이나 마술에 쓰였을 법한 도구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술가지가 쌓여 있는 곳에다 불붙은 소나무 옹이를 쑤셔 넣었다. 오두막은 불길에 휩싸였고, 그들이 뒤로 물러나자 곧 땅으로 무너져내렸다.

교회 지하실에서 노파는 목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사관들이 곧 올 것이야." 목사가 으르렁댔다. "사탄의 딸아, 벌거벗은 채로 사탄과 함께 하늘을 날아다녔음을 시인하라!" 가련한 노파는 울부짖었다. 자신의

집이 불태워진 것으로 보아 이미 판결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다. “황제 폐하의 조사관들이 올 때까지 밤새 감방에 가둘 것이야.” 목사의 명령에 따라 네 남자는 노파를 구내감옥으로 데리고 가서 다음 날 아침까지 가두었다.

다음 날 느즈막한 아침, 잘 다져진 흙길을 따라 광광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났고 마부들이 덜커덕거리며 자갈길로 들어와 교구 목사관 앞에서 고삐를 당겨 멈추었다. 선두의 말에서 내린 황제폐하의 마녀 조사관은 무뚝뚝한 인상에 돼지처럼 작은 눈을 가진 거만한 남자였다. 시종과 조사관 둘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말등에서 자신들의 작업도구가 든 가방을 정성스레 내렸다.

그들은 목사가 기다리고 있는 목사관으로 향했다. 얼마 동안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고, 남자들은 목사관을 떠나 구내감옥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들어서자마자 두려움에 말을 더듬거리는 노파를 붙잡고 그녀의 옷을 벗겼다.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밀히 조사한 후, 날카로운 핀으로 온몸을 찔러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부위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것은 마녀 색출을 위한 일반적인 심문 중 하나였다.

그들은 나비나사로 그녀의 엄지손가락을 강하게 죄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나사는 곧 피로 물들었다. 그녀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자 — 사실 그녀는 자백할 것이 없었지만 — 그들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자갈이 깔린 마을 거리를 내달려 연못으로 향했다.

이미 그곳에는 마녀가 익사하는 꼴을 보려는, 볼 만한 구경꾼들을 탐욕스럽게 찾는 한 떼의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다. 노파는 알몸으로 석조 단 위에 세워졌고 남자들은 연못가로 이동했다. 목사가 그녀의 앞에서 말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고하노니, 이제라도

백하여 죽기 전에 신의 자비로써 영혼을 구원받기를 바라노라. 너무 늦기 전에 고백하라, 말을 마친 목사는 허공에 십자가를 긋고 옆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노파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네 남자가 그녀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공중으로 높이 던졌다. 그녀의 몸은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한 바퀴 돌면서 거품이 낀 썩은 연못으로 곧두 박질해 떨어졌다. 한동안 수면에는 잔물결만이 있었으나 곧 그녀의 치렁 치렁한 머리카락이 떠올랐다. 그녀는 사납게 물장구질을 했고 헤엄을 쳐 서 밖으로 나올 듯 보였다.

그때 한 구경꾼이 큰 돌덩이를 던져 그녀의 머리에 맞혔다. 이내 돌팔매질이 잇따랐다. 불쌍한 노파는 영혼을 쥐어짜는 듯 무서운 비명을 질렀다. 눈알 하나가 튀어나와 볼 옆에 매달렸다. 계속된 돌팔매질에 그녀는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수면은 점차 붉게 물들었다. 약 1 분 동안 수면 아래서 소란이 이는 듯하다가 적잖은 양의 붉은 핏물이 울컥 위로 솟아올랐다.

한 조사관이 다른 조사관에게 말했다. "악마가 그녀를 구하질 않았으니, 어쩌면 그녀의 주장대로 그녀는 결백했는지도 몰라."

다른 조사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데 말이야. 우리는 그녀를 편안하게 해준 거라고!"

그때 나이 든 곱사등이 하나가 눈에 띄지 않게 나무 덩굴의 그늘로 숨어들었다. 그의 두 눈에서 흘러나온 눈물이 마른 불을 흠뻑 적셨다. 그는 마디투성이의 손등으로 눈물을 연신 훔쳤다.

희고 술 많은 눈썹 아래 그의 두 눈은 앞을 응시했다. 그의 왼손은 비틀어진 낡은 지팡이를 거칠게 움켜쥐고 또 쥐었다. 그는 걸음걸이가 불편

한 노인이었다. 가련한 노파가 죽음의 마지막 고통과 함께 물밑으로 가라앉아 잡초 속에 뒤엉킬 때 그는 중얼거렸다. "슬프구나, 참으로 슬프구나,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뒤늦게 분주히 좁은 길을 걸어오던 한 여자가 꼬부라진 노인을 발견하고는 그 옆에 멈춰 섰다. 여자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그녀는 어떻게 되었어요?"

"살해됐어!" 곱사등이는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무지와 미신의 제물로 살해된 거야. 그녀는 마녀가 아니야. 그녀는 나와 함께 학교를 다녔다고. 그녀는 악한 데라고는 전혀 없는 순수한 영혼이었어.;

젊은 여자가 언짢은 얼굴을 하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말 씀을 좀 삼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도 그녀와 함께 연못에 처박힐지 몰라요. 아시겠지만 할아버지도 소문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착한 손녀라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벌써 고발당했을 거라고요, ,

그녀는 이제는 고요해진 연못의 수면을 탐욕스런 눈으로 서둘러 살펴 보았다. 하지만 수면은 이따금 평하고 터지는 거품으로 물결칠 뿐이었다.

곱사등이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손녀를 뻔히 보더니 혼자 중얼댔다. "미신, 미신이란 늘 진보의 적이야. 우리는 유체여행을 행하는 탓에 늘 사악하고 무지하고 시기하는 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그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릴 나쁘게만 생각한단 말이야. 나도 조심해야지. 나도 조심해야 해!"

그는 슬픈 눈으로 다시 연못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사관들이 내던진 노파의 옷을 주워왔다. 그는 엄숙하게 여러 번 주문을 외면서 찢어진 낡은 옷에다 부싷돌과 깃을 갖다 댔다. 그는 불씨가 살아나도록 부채질을

하며 옷을 불태웠다. 곧 검은 재가 떠도는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솟아 흩어졌다. 늙은 급사등이는 처량하게 돌아서서 어깨를 으쓱하고는 몸을 숨기기 적당한 숲 속으로 비틀대며 걸어갔다.

그렇다. 수 세기 동안 유체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시샘하는 사람들에 의해 박해받고 처형당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그렇지만 동기와 생각이 순수하다면, 그리고 충분히 연습한다면, 누구나 유체여행을 할 수 있다. 유체여행을 하기 위한 자격과 구체적인 훈련 방법에 대해서는 <<영원한 당산>>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세속적인 차원에서 유체여행을 다루었다. 즉 별처럼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대형 도서관과 대규모 화랑, 그리고 대도시를 구경하는 식의 유체여행 말이다. 하지만 당신은 어쩌면 지상 너머의 유체계, 즉 옛 율법학자들이 '연옥(Purgatory)과 '낙원(Paradise)이라고 부른 곳을 방문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명심하라. 그것은 >주 간단한 일이다.

고대 힌두경전에는 달과 해와 별들의 세계를 여행한 사람의 아주 생생한 기록이 있다. 유체 상태에서는 온도의 차이와 숨 쉴 수 있는 공기의 결핍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무런 불편도 초래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요즈음 사람들은 만 년 전에 힌두교도들이 유체 상태에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는 고작 로켓 같은 바보 같은 물체들을 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분명한 사실이다. 힌두경전을 번역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당신도 직접

고도로 진화된 친구들을 유체 상태로 방문하고 싶다면 당신은 특별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 높은 의식 차원에서 (지구의 시간 감각으로) 한두 시간쯤 보내고 돌아왔을 때, 지구에서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은 생각의 속도에 의존한다. 조잡하게나마 설명하자면, 하나의 생각이 인간의 두뇌를 떠나서 엄지발가락을 꿈지럭대거나 손목을 돌리게 하는 데는 약 10분의 1 초가 걸린다. 그런데 유체 상태에서 는 만 분의 1 초밖에 안 걸릴 수도 있다. 요컨대 시간의 체계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지만 밤마다 유체여행을 훈련하면서 마음을 상위 차원에서 조작하는 데 익숙해진다면, 당신은 육체의 한계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상위 차원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지상의 우리가 '칼리의 시대' 를 살아가고 있음을 떠올리도록 하자. 칼리의 시대는 천체력으로는 1,200 년에 해당하지만 인간의 햇수로는 무려 432,000 년이다. 그렇지만 지구의 차원을 넘고 시공간의 모든 체계마저 넘어선 곳에는 '우주 창조자 Peator of the Universe'의 세계가 있는데 , 그곳의 하루는 인간의 햇수

로 4,320,000x1,000 년에 해당한다. 즉 엄청나게 시간이 응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좀더 진화한 존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한다. 뒷골목의 영매 따위에게 과연 이런 능력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는가!

그럼에도 당신은 더 높은 차원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그렇다면 스스로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정한 후에 , 잠들기에 앞서서 자신이 이 세계를 떠나 유체계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겠노라고 확언하라. 당신 자신이 지구를 떠나 계속 우주로 상승해가는 모습을, 예컨대 다른 차원으로

은줄에 매달린 채로 육체를 탈출하면 모든 색채가 달리 보인다. 당신은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색채들을 보게 된다. 당신은 나뭇잎이 대단히 다양한 색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당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색들이 어우러져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알 수 없는 말을 지껄이고 음란한 거동으로 유혹하는 기괴한 피조물들을 접하고 두려움에 빠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용기를 잃거나 놀라지 마시라. 당신은 단지 저급령들의 소굴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저 우연에 불과하겠지만, 대개 기차를 타고 대도시로 진입할 때면 먼저 빈민가의 실체부터 목격하게 되는 것과도 비슷하다.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다.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한 어떤 저급령도, 어떤 존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당신은 이 저급령들의 소굴에서 뭉그적대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황금빛의 나라'로 가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물들을 보게 될 터인데, 3차원 세상의 언어로 그것들을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황금빛 나라'는 각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을 뿐이지 인쇄된 글자나 말로서는 접근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을 위해 한 가지 행복한 사실을 말해두겠다. '황금빛 나라'에서 당신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만을 만나게 된다. 게다가 거기서 당신은 '쌍둥이 영혼', ^{in s} '빠'도 만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실재한다.

제10장 인간의 구조

나이 많은 기술자가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모형을 내려다보며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양손을 빠근한 등에 대고 몸을 쪽 펴고는 방문객을 맞으려 뻗뻗하게 일어섰다.

“찾아와줘서 고맙네.” 기술자가 다정스럽게 말했다. “뭔가 문제가 있어.” 그는 방문객의 팔을잡고작업대로 이끌었다. “저놈이야.” 그는마치 자식을 소개하듯 자랑스럽게 말했다. “최신 모델이지. 알다시피 아직 실험 중인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좀 있어. 너무 몰두해서 그런지 해결이 안 되는군.” 그는 작은모형을조심스럽게 집어서 손바닥 위에 놓았다.

방문객이 주위를 훑듯 둘러봤다. “여긴 꽤 멋진 곳이네요. 다스리기가쉽진 않겠지만, 당신은 꽤 번창한 식민지를 가진 듯싶군요;

“자네 생각만큼 번창하진 않아!” 기술자는 우울하게 답했다. “직접 와서 보게 ; 그는 양손으로 작은 모형을 감싸 안고는 아담한 크기의 파란 구형체로 향했다. “저 장비로 들여다볼 수 있다네. 한 번 보고 자네 생각 을말해주게나;

방문객은 양 눈을 접안렌즈에 붙이고 조절장치들을 돌렸다. 그는 한참 동안 살펴보고는 한숨과 함께 투시장비를 옆으로 치웠다. “난장판이군요? 꼭 미친 것처럼 보이네요;

기술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서 무료하게 작은 모형만 만지작거렸다. “미쳤다고?” 그는 깊은 상념에 빠졌다. “미쳤다? 그래, 그렇게 말할 만도 하지. 내 생각에 이것들은 원격조종에 문제가 있어. 이것들은 전송

된 신호대로 반응하질 않아. 바른 정보를 반송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기술자는 돌아서서 이리저리 오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에 든 모형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그는 문득 방문객의 앞에 멈춰 서서 통명스럽게 물었다. “자네가 나라면 어찌겠는가? 위원회는 이것들의 교정 작업이 늦어지는 걸 불평하고 있다네. 자네 의견은 어떤가?”

방문객은 대답 없이 다시 투시장비를 통해 구형체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주의 깊은 손놀림으로 만족스러울 때까지 초점을 맞추고 또 맞추었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그 속을 관찰했다.

방문객은 마침내 그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기술자에게 말했다. “조사관을 내려보내야 해요. 안 될 것 없잖아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추측이 틀렸던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대체 왜 그동안 전문가를 부르지 않은 거죠?”

기술자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아냐!” 기술자는 말했다. “위원회는 절대 수락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외부의 전문 7VO^{Outside Specilaist})와 손을•잡지 않을걸!”

기술자와 방문객은 함께 작업대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기술자가 모형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게 최신 모델이라네. 우리는 이것들을 ‘호 2 사피엔스’라고 불러. 그렇지만 이것들은 전혀 ‘지혜롭지(sapient)’ 않은 것 같아.” 방문객은 모형을 건네받아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여기 다른 것도 있다네.” 기술자는 작업대의 저편에 놓인 상자에서 다른 작은 모형을 꺼냈다. 방문객은 이 두 번째 모형을 첫 번째 모형과 비

교해보았다.

“번식 기능을 갖춘 것이지.” 기술자가 말했다. “이 둘은 일정한 나이 가 되면 짝을 지어서 자식을 낳는다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동등 한 능력을 갖고 있지. 우리는 첫 번째 것을 ‘남자’라고 부르고 두 번째 것 을 ‘여자’라고 불러. 그런데 이것들을 원격조종하는 데 문제가 있다네. 우리는 아직 그 원인을 모르고 있고;

방문객이 또 다른 상자를 가리켰다. “저것들은 뭐니까?” 기술자는 어 두운 표정을 지었다. “아, 그건 불량품이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 하거든 우리는 그것들을 ‘기자■時*라고 부르지!” 그렇다. 인간들은 확실히 어딘가 혼란스럽다. 꽤나 복잡한 구조를 갖췄음에도 제대로 기능하는 것 같지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태양계 밖의 다른 우주, 다른 은하계 의 존재들과는 사뭇 다른 질료들로 이뤄져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구의 모든 생명은 똑같은 벽돌(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 , 물 , 수산화물, 암모니아 , 메탄, 그 외 여러 가스들이 바로 태양계에서 쉽게 이 용될 수 있는 질료이다. 우리의 몸도 탄소 분자와 아미노산과 뉴클레오티 드(DNA, RNA 등 핵산의 기본재료)로 이뤄져 있다. 이 단순한 합성물로부터 실 로 지구의 모든 동식물과 광물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 질료들이 인간의 형태로 빚어질 때 , 그 결과물은 우리가 ‘점성학적 각인’(astrological _내띠이 라 부르는 자기뉘탈 총격과 온갖 광선들로부터 결정적인 영힘을 받는다.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살펴보자. 당신이 인체의 해부도를 구해서 척추

와 척추신경을 살펴본다면 이해가 더 쉬워지리라. 인간의 육체는 — 즉 통제 메커니즘은 — 실제로 아홉 개의 통제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적인 비술가들은 그중에서 물질적인 또는 세속적인 차원에 속하는 일곱 센터만을 언급한다.

옛날 중국의 의사들은 인체의 모든 기관이 '작은 사람들'에 의해 다스려진다고 믿었다. 뒤에서 당신은 약 7천 년 전에 중국에서 그려진 그림의 각색본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그림에서 당신은 '작은 사람들'이 음식물을 목구멍으로 내려가게 하고, 바람을 폐로 불어넣고, 간에서 각종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여러 근육을 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인체의 '동물적인' 부분, 즉 근육과 장기만을 다룬 것이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가 초자아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육체의 기능을 통제하는 부분들도 다뤄야 한다.

인체는 언뜻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창문 밖의 전신주에 걸린 전선을 보는 것만으로는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그것들은 그저 구리선일 뿐이다. 하지만 적절한 도구만 있으면 전류의 유무를 탐지할 수 있고 또한 그 방향도 알아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초자아의 특정 영역과 상응하는 온갖 센터들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수준에서 인체를 파악해볼 수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인체에는 '차크라'라고 불리는 일곱 개의 '세속적인' 센터들이 있다.

머리 꼭대기에는 '천 개의 꽃잎이 달린 연꽃'에 비유되곤 하는 센터가 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사하스라라 차크라'라고 한다. 이것은 영계에 가장 가까운 '중계소' 또는 '중추'이며 그렇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 쉽다.

그 아래에는 -우리는 지금 인체를 등 쪽에서 바라보고 있다 -목이 시작되는 부위에 '아즈나 차크라'가 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센터로서, 초자아와 실제로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마음의 차크라다. 마음은 메시지를 수신하는 전화처럼 전기적인 하나의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하라. 수화기가 전화선의 반대편에서 말해진 것을 전달해주는 '장치'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다.

좀더 아래로 내려가면 '비슈다 차크라'로 불리는 세 번째 센터가 있다. 이것은 입의 움직임을 통제한다. 확실히 말하건대, 만약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차크라가 훈련되어 있지 않거나 손상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잠시 옆길로 빠져서, 당신이 거리를 따라 걸어가다가 맨홀 속에서 일하고 있는 전화국 직원을 보게 되었다고 하자. 멈춰서 들여다보니 그는 굵은 피복전선의 절연재를 벗겨 내고 있다. 절연재를 벗겨 내니 엄청난 숫자의 가는 선들이 보이는데, 그것들은 서로 다른 색깔을 띠고 있다. 어쨌든 선이 너무나 많아서 당신은 직원이 무슨 수로 그것들을 일일이 구분 해낼 수 있는지 고개를 가우뚱한다.

말하자면, 당신의 척추 안에 있는 신경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신경들은 척추를 통해 내려가면서 갈라진다. 하지만 차크라를 떠올릴 때는, 그 모든 선을 다루고 있는 전화국 직원을 연상하라. 또는 작은 계전기나 중 계소를 연상하라. 그것들은 앞선 지점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고 그것을 증폭하여 다음 지점으로 보낸다.

우리의 다음 중계소는 '아나하타 차크라'이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느낌과 접촉을 관장한다.

그 아래엔 '마니푸라차크라'가 있다. 이것은 '불에의 원리'를 따르는

차크라인데 , 지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시 아래에는 여섯 번째 센터가 있다. 이것은 '스와디스타나 차크라'로 불리며 '물의 원리'를 따른다.

마지막으로는 '땅의 원리'를 따르는 일곱 번째 센터가 있는데, 산스크리트어로는 '물라다라 차크라'로 불린다. 이것이 바로 '쿤달리니'의 집이다.

쿤달리니는 사실상 인간을 통제하고 있는 생명력이자 힘이다. 이것은 용광로의 불과도 같다. 이 불이 물을 덥혀 증기를 올리면 증기는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성하고, 전기는 램프에 불을 켜고 냉장고를 식히는 등의 문명생활을 가능케 해준다. 하지만 한 번 불이 꺼지면 증기가 멈추고 전기도 만들어지지 못해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다.

쿤달리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오도되었다. 더 나쁜 것은, 무지한 사람들이 인위적인 수단으로써 쿤달리니를 복돋으려 시도한다는 것이다. 쿤달리니를 제대로 복돋으면 그는 훨씬 더 깨어나고 훨씬 더 현명해질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이 철저히 순수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쿤달리니를 무차별적으로 일으키면 스스로 엄청난 해를 입게 된다. 그것은 빈번히 광증을 초래한다.

결과를 생각지도 않고 쿤달리니를 자극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엄청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해박한 지식을 갖춘 명인의 지도를 받지 않는 한 절대로 쿤달리니를 일으키려 시도하지 말라. 명인은 쿤달리니가 당신에게 명백히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그것을 일으키려 들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쿤달리니를 일으켜줄 힘이 없다. 그들은 오직 해악만을 끼칠 뿐이다.

인간처럼 육체를 가진 존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우주의식' 的을 획득•하려면 쿤달리니에 다소 '요동'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이 '요동'은 실제로쿤달리니를일으키는것과는다르다.

음탕하고 성적인 탐닉이 지나친 사람은 참으로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왜냐하면 진실한 사랑 없이 그저 성 그 자체만을 즐기다 보면 그로 인해 쿤달리니의 바른 흐름이 잠정적으로 또는 영구히 마비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여기서 '영구히란 말은 , 부정한 성행위를 끊지 못한다면 이 생애 내내 그럴 것이라는 뜻이다.

지상에 있는 동안 육체의 각 부분은 차크라를 통해서 유체의 상응 부위와긴밀히 연결된다. 당신은절단한 다리 부위에서 분명한통증을느끼는사람들의 얘기를들어본 적이 있으리라. 이것은절단된 다리가여전히 유체의 다리 부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당연하게도 유체의 다리는 제거되지 않았고 제거될 수도 없다.

우리가 유체여행을 끝내고 육체로 귀환할 때는, 유체의 모든 부위가 육체의 모든 부위와 정확히 들어맞아 그 둘이 전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또한 그 두 몸은 전류의 방향도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전기엔 양극과 음극이 있고, 그리하여 일정한 방향의 전류가 생겨난다. 마찬가지로 인체에도 전기가 흐른다. 인체에는 두 가지 전선이 있고, 그것들은 각기 '이다와 '핑갈라로 불린다. 물론 그것들은 전선이라기 보다일종의 '통로'라고할수있다.

이다는 왼편에 있고 핑갈라는 오른편에 있으며, 이 두 통로는 쿤달리니가수동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그것들은 쿤달

리니가 이번 생에서 또는 다음 생까지도 — 우리가 필요로 할 때까지 —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키는 문지기¹와 같다.

올바른 지도와 통제하에 깨어난 쿤달리니는 이다와 핑갈라의 통로를 우회한다. 즉 이다와 핑갈라의 작용에 묶여 있는 한 우리는 지상의 차원, 즉 탄생과 죽음과 재탄생이라는 원리와 실제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오직 자신의 쿤달리니를 깨워서 이다와 핑갈라라는 에너지 공급처를 우회 할 수 있을 때, 그는 자신이 탄생과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을 벗어날 단계로 진보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차크라들을 중계소 또는 원한다면 원격조종 장치로 여기라. 그러나 인체에는 그 외에도 중요한 부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목에는 경신경절點神經 이 있고, 그 아래로도 미주신경앞走神經^아明》, 심장혈관총心, 태양신경총太陽經療, 골반 신경총》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간이역'에 해당하^B 로 여기서 굳이 번거롭게 들먹이지 않는 편이 좋겠다.

지상에 속하는 우리는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 인간에게 영향⁹ : 주는 여러 종류의 광선이 있다. 점성학은 참으로 실용적인 학문이다. 점성학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점성학을 잘못 전파하는 부류들만을 조소해야 한다. 올바르게 별을 점치는 일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수고가 따른다. 때문에 그것은 그다지 유용한 돈벌이가 되지 못한다. 일간지의 칼럼에 나온 자신의 '천궁도' 해설을 아무리 읽어봤지 가치 있는 내용을 얻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광선'이란 외부로 방사된 우주선^{mic}의 한 형태이다. 당신은 특정한 시각에, 특정한 위도와 경도에서, 특정한 광선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광선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¹ : 줄지는 당신이 타고난 점성학

적 기질에 달려 있다.

예컨대 오렌지,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등의 여러 광선들이 있다. 여기서 광선의 원리를 다 다루려면 주제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빨간빛은 개성을 발달시킨다. 자줏빛 또는 진홍빛은 단체의식과 관계가 있다. 초록빛은 배움을 향한 충동을 일으킨다. 노란빛은 지혜와 관계가 있다.

아마도 당신은 '쌍둥이 영혼'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지상에서 자신의 쌍둥이 영혼을 만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당신이 기초를 착실히 공부하여 반물질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면, 완전한 '배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양극과 음극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에 수긍하라.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벽한 쌍'이란, 철저하게 짝을 이루는 두 존재로서 한쪽은 이쪽 세계에 있고 다른 한쪽은 반물질 세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느슨한 의미로 '쌍둥이 영혼'을 이해해보자면, 천상에는 서로 극치의 조화를 이루는 초자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각자 지상에 자신의 꼭두각시를 내려보낸다. 그러면 당연히 그 꼭두각시들도 극치의 조화를 이룬다. 만일 그들이 실제로 대면하게 된다면 즉각적인 '일체감'이 솟아날 것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나는 이 사람과 절대 초면이 아니야!" 그들은 아주 진실한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런 만남은 지상에서 좀 드문 편이다. 대신 이런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상당한 정도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단히 조화롭게 서로를 보완한다. 소위 '쌍둥이 영혼'이라

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상대가 말하려는 바를 수초 전에 미리 예견하기도 한다.

하나의 난자에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들은 깊이 동조하고 있으므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방의 정서를 느낀다. 심지어 그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깊은 사랑에 빠진다. 그 연인은 자신들이 '쌍둥이 영혼'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진짜 '쌍둥이 영혼'이라면 관심사가 같아야 한다. 예컨대 한쪽이 독실한 신자인데 다른 쪽이 무인론자일 수는 없다. 그런 신앙의 차이가 둘 사이에 불협화음, 부조화, 마찰을 일으킬 테고 그리하여 그 둘은 서로 끌리는 게 아니라 밀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바랄 수 있는 최상의 삶은, 순수한 생각과 순수한 행동을 통해서 극치의 조화를 이루는 짝을 끌어당겨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려면 전적인 희생과 이타심이 요구 된다. 상대방에게 모든 걸 퍼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각자의 길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많은 인간관계는 사실 카르마(업보)에 의한 것이다. 카르마를 풀기 위해서는 좋은 나쁜든 당사자들끼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카르마에 의해 엮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시에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둘은 강한 유대감을 통해서 둘 사이의 나쁜 카르마를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우리야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결국에는 선한 것이 이기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는 그 남자를 증오한다면, 그

둘 사이에는 불만스러운 카르마가 더 쌓일 것이다. 그때 그 둘은 증오심이 사라지고 사랑이 솟아날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이어가야만 한다.

그러니 오로지 완전하고도 철저한 무관심만이 카르마의 형성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라.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카르마가 생긴다. 당신이 누군가를 싫어해도 카르마가 생긴다. 그러나 당신이 상대방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 카르마가 생기지 않는다. 즉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카르마 사슬의 시작점인 셈이다.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예로 들면,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지속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일시적인 경우에는, 때가 되면 마치 불타버린 듯이 그 인연이 단숨에 정리된다.

최악의 경우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죽음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이다. 만일 한 여자가 진심으로 사랑하던 남편과 갑자기 사별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달리 갈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환생을 통해 미래에 다시 만나고 여러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그 사랑은 그대로 저장된다. 그러니 자신이 '쌍둥이 영혼'을 만났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저 부드럽게 미소를 보내주라.

우리의 낡고 가여운 육체는 온갖 수상한 질병에 걸리기 쉽다. 복잡한 기계장치가 종종 삐걱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 군데가 말뚝을 부리면 인간의 육체는 최상의 상태를 벗어나서 흔들리게 된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빠가 되길 희망하므로, 여기서 치유법을 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싶다. 어쨌든 우리는 인간의 신체구조를 이>기하는 중이니깐!

이 지상은 음품적인 세계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음적인 치유

기에 꼭 알맞은 이름이다.

먼저 당신은 폐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숨을 내뿔어야 한다. 힘껏 숨을 내쉬며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라. 그리고 너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그상태로 머물라. 그러면 육체가 소위 '음극' 상태가 된다. 프라나(氣)와 산소가 결핍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을 몇 분간 안정시키라. 그리고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폐에서 공기를 내뿜으면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폐를 텅 비우고, 참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고는 다시 가볍게 숨을쉬며 호흡을 안정시키라.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라. 총 세 번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당신의 육체는 뚜렷하게 음극 상태가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이 아픔을 느끼고 있는 부위, 즉 치유할 부위로 왼손을 가져 가라. 그리고 오직 엄지와 검지만으로 -손바닥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의 피부를 단단히 쥐라. 치유할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단단히 붙들고서 숨을 한껏 내쉬고 호흡을 멈추라. 그리고 호흡을 멈추고 있는 동안 손가락 끝에서 생명력이 흘러나와 그 부위로 스며든다고 상상하라. 더 이상 숨을 참기가 어려워지면,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가볍게 숨을 들이쉬며 호흡을 안정시키라. 이때도 손가락은 계속 그 부위를 쥐고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세 번 반복하라. 반복할 때마다 엄지와 검지가 치유할 부위를 최소 2분 이상 붙들고 있도록 하라.

확실한 치유를 취해서는 자신의 몸이 상당한 정도로 회복될 때까지 이 방법을 매시간 실천하는 것이 좋다. 이 치유법이 효과가 빠어난 이유는 바로 외부의 힘을 불러들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감기에 잘 걸려 머리가 띵하다면 이 음적인 치유법을 실행함으로써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그때 당신의 엄지와 검지는 눈 아래서 코의 양편을 누르게 될 것이다. 한껏 공기를 내뿜은 후에 숨을 멈추라. 생명력이 당신의 코로 흘러들어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병원균을 죽이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실제로 시도해보면 울혈이 아주 빠르게 사라지고 콧속이 시원해졌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젠 콧구멍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천식은 큰 오해를 받고 있는 질병이다. 여러 가지 처방이 난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천식은 신경과민이 원인이다. 그때는 엄지와 검지로 목젓 이 있는 부위 위의 목 양쪽을 움켜쥐라. 이것은 보통의 천식 환자들을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호흡이 대단히 거칠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면 검지와 엄지를 7 센티쯤 벌려서 목 아래쪽, 즉 목과 가슴이 이어지는 부위를 잡아야⁴.

수년간 지속된 천식이 몇 초 만에 낫기를 바랄 수는 없다. 인내심을 갖고 상식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을 계속하다 보면 천식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명상과 내적 성찰을 통해서 신경과민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천식은 더욱 빠르게 없어 질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천식은 그저 불안한 신경계의 '출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이 치유법을 정확히 따를 수 있도록 설명을 반복한다. 당신은 항상 왼손을 사용해야 한다. 오른손을 사용해서는 '음적인 치유'의 강한 효과를 얻어낼 수 없다. 그리고 기억하라. 폐의 공기를 내뿜은 후에는 잠시 숨을 멈추라.

이 방법은 심한 화상 부위에도 효과가 있다. 엄지와 검지를 해당 부위



에 놓고 치유법을 반복하면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빨리 의사를 부르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이 방법으로 충분히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옛날 중국인들은 인체의 각 기관마다 그것을 돌보는 '작은 소인들' 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체의 모든 기관은 신경계를 통해 두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뇌는 각각의 기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인체의 기

관들은 본래 그 주인의 의식적인 통제하에 있었다. 그렇지만사람들이 점차 무신경해지면서 점차 자율적으로 움직이게끔 변화되었다.

각 신체기관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달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특히 인도에서는 '타락한 달인'인 파키르들이 그런 기예를 선 보이곤 한다. 그들은 손바닥에 칼을 꽂았다가 그 상처를 수분 내에 아물 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지어낸 말이 아니다.

위의 그림은 주의해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 기발한 그림 속에는 , 조그만 승려와 수행자들이 라마승의 감독하에 신체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는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체에 손상이나 기능부 전이 발생했을 때 두뇌로 경고가 전달되는 '모니터 시스템'과 흡사하다.

당신의 육체가 이런 소인들에 의해 통제되는 모습을 생생히 심상화하는 것은 큰 가치가 있다. 당신은 이 소인들을 통제함으로써 깊은 명상 상태에 들 수 있다. 다른 책에도 써놓았지만 , 당신은 그저 의식이 비워지도록 이 소인들을 몸 밖으로 떠나보내기만 하면 된다. 소인들을 발가락에서 다리로 행진케 하라. 그러면 발가락과 다리가 이완되고 편안해진다. 소인 들을 콩팥과 창자와 쓸개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완전하고 철저히 이완 될 것이다.

그러서 당신이 철저히 이완되어 깊은 명상 상태에 들 수 있으며 , 그로 써 진정 다른 차원으로부터 계시를 얻게 된다. 실천해보라! 그러나 그전 에 꼭 다른 책에 실린 이완법을 읽도록 하라.(267 쪽) 나는 여기서 그 내용 을 다시 다룰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내가 쓸